

아름다운 나눔

굿스핀 이야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인종, 민족, 피부색, 문화, 언어에 관계없이 존귀합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정신에 근거해 모든 인간이 존귀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식과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급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아름다운 나눔 굿스푼 이야기 / 지은이: 김재역. -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14
p. ; cm

ISBN 978-89-8350-884-3 03230 : ₩12000

선교(종교)[宣敎]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

235.6511029-KDC5
266.023-DDC21

CIP2014006051

아름다운 나눔 굿스푼 이야기

펴낸 날 · 2014년 2월 25일 | 초판 1쇄 찍은 날 · 2014년 3월 5일

지은이 · 김재역 | 펴낸이 · 김승태

등록번호 · 제2-1349호(1992. 3. 31) | 펴낸 곳 · 예영커뮤니케이션

주소 · (136-825) 서울시 성북구 성북1동 179-56 | 홈페이지 · www.jeyoung.com

출판사업부 · T. (02)766-8931 F. (02)766-8934 e-mail: edit1@jeyoung.com

출판유통사업부 · T. (02)766-7912 F. (02)766-8934 e-mail: sales@jeyoung.com

□ copyright © 2014, 김재역

ISBN 978-89-8350-884-3 03230

값 12,000원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아름다운 나눔 굿스푼 이야기

김재역 지음



예영커뮤니케이션

|| 프롤로그 ||

이 사람은 염병(pest)이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pest)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행 24:5-8).”

염병 같은 영향력

AD 1347년, 유럽을 동시에 강타한 두 질병이 유럽 전체 인구의 25-40%인 2천 4백만 명을 죽였다. 첫 번째는 감염된 쥐 벼룩에 물려 전파되었던 가래뿔 형 흑사병(bubonic plague)과 폐렴형 흑사병(pneumonic plague)이고, 두 번째는 소에서 유래된 가축 탄저균(anthrax)이었다.

지오바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가 지은 『데카메론(The Decameron)』에 언급된 흑사병(Black Death)은 코피가 나면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시작되어 작은 사과나 달걀 크기의 종양으로 커지면서 온 몸으로 번진다. 종기가 생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흑색 또는 보라색 반

점이 팔이나 허벅지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나타나면서 죽음의 신호는 점점 확산해진다. 단단한 종기들이 점차 흑색을 띠면서 전신에 엄습하는 통증에 아무 대책 없이 쓰러져 죽어야 했다.

처음 발병지는 아시아가 정설이다. 당시 중국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었으나 흑사병으로 절반이 죽었고, 동서양을 활발하게 넘나들던 상선에 몰래 스며들었던 쥐에 의해 이탈리아로 유입됐다. 이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서구 유럽, 동구 유럽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세계와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광범위하게 전파됐다. 영국의 조앤(Joan) 공주는 스페인 카스티야의 페드로(Pedro) 왕자와 결혼하려고 길을 나섰다가 흑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은 쥐들로 오염된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었다. 부모조차 페스트에 걸린 자녀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서글픈 사실이었다. 살인적인 염병의 공포에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조차 왕래하지 않았다. 무차별적인 역병에 제대로 된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길모퉁이마다 시체가 쌓여갔고, 시체 썩는 냄새가 유럽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으며, 유럽 전역은 순식간에 거대한 규모의 공동묘지로 바뀌어 가버렸다.

애꿎은 유대인들은 페스트의 희생양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퍼트린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흑색 루머가 페스트처럼, 탄저균처럼 번졌고, 급기야 사람들은 서구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붙잡아 탄압하기 시작했다. 무서운 증오와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학살되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자들은 폴란드, 러시아 지역의 오지를 향해 또 다시 엑소더스(Exodus)를 해야만 했다.

바울을 인격적 · 정치적 · 종교적 죄목을 걸어

고소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풍광 좋은 가이사랴 총독 관저까지 127Km의 먼 거리를 닷새 동안 분기탱천하여 달려온 노구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초빙한 당대 최고의 율사 더들로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의 세 가지 죄목을 열거한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행 24:3).”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로마 황제와 벨릭스 총독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고 총독의 선견지명으로 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화의 달콤한 열매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바울을 잡기 위해서 하는 더들의 마음에도 없는 아침의 말이 속을 아리게 한다.

법정에 세운 바울을 향하여 비수처럼 던지는 더들의 정죄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인격 침해, 인신공격으로 고소를 시작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pest) 같은 사람이다(행 24:5a).”

그는 염병 같은 자요, 무차별적 살인마요, 무서운 죽음의 신호 같은 자요, 죽음의 공포를 퍼트리는 감염된 쥐 벼룩, 탄저균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와 로마 신민에게 있어 암적 존재에 불과하다며 정죄하고 있다.

2. 정치적 타격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행 24:5b).”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우두머리이며, 또 천하에 다니며 그 사상을 전파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을 꾀하는 반 로마주의의 수괴이고, 불순분자와 다름없다.”

바울이 반 로마 혁명을 꾀한 자라고 정죄한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에 반기를 들어 이스라엘 독립 투쟁에 앞장선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규합하는 자요, 한마음으로 로마에 저항하여 이스라엘의 자주독립을 쟁취하자고 선도하는 반 로마 혁명가라고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안긴다. 또한 그는 적색 혁명가요, 정치적 이단아요, 무정부주의(anarchism) 앞잡이요, ‘좌경화된 빨갱이’ 같은 존재라며 고소하고 있다.

3. 종교적 이단아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행 24:6)”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더들로의 눈에 비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염병은 오늘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살인적 공포로 몰아넣는 무서운 영향력(influence, impact)을 갖고 있다. 퍼지면 그냥 몰살시켜 버리는 것이 전염병인 것이다. 더들로는 바울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회심하기 전의 바울은 아나니아의 자랑이었고 충성스런 ‘충복’이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롤 모델이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

름 같은 추종자를 몰고 다녔던 예수와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이스라엘 경내 바깥인 시리아까지 도망친 성도를 찾아다니며 처단하던 열성 유대주의자였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바울은 더이상 유대주의자들의 친구도, 롤 모델도, 칭찬받을 만한 동료도 아닌 철천지 원수 같은 자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처형시키고 싶은 이단아에 불과했다.

굿스폰도 할 수만 있다면

바울 같은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하고 싶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복음과 함께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며 선교를 감당해야 했다. 굶주리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을 받고, 핍박과 함께 온갖 고난을 당하였던 바울의 선교 지향적 삶과 신앙이 과연 열병짓이며 맞아 죽을 만한 범법을 한 것인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기 직전인 이땅에는, 비진리가 난무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자칭 재림주라 부르는 이단과 사교가 난무하고 있다. 영적 흑암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맘몬이 주는 사치와 허영의 맛을 사랑하고, 음란과 쾌락과 찰라적인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머지 않아 “오직 예수”를 전하면 혐의가 되고, 끌려가 시비거리가 되고, 견책과 벌금과 투옥과 더나가 심한 태형과 감옥살이와 중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 살해의 위협까지 받게 될 때가 급속히 임할 것이다.

|| 감사의 글 ||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부리는 하수인들이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거룩한 주의 교회와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타락시키려는 영적싸움이 지능적이며, 통합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다. 단연코, 복음적이고, 실천하는 신앙을 견지하면서, 겸손히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값은 꼴로 살려고 하면 무서운 댓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머지 않을 것이다. 변변한 방어 벽 한 번 세워 보지 못한 채 치참하게 유린되어 가고 있는 영적 암흑기 같은 말세 때에, 할 수 있다면 바울처럼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유통자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 복음의 바이러스(virus)를 몰고 오는 세상과 고귀한 영혼들에게 퍼트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굿스푼은 창립 초기부터 지난 10년간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굿스푼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크든 작든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바울처럼 미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은 죄의 영향력, 미혹의 영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현혹시켜 죄 아래 복속시키려고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굿스푼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주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영향력, 경건한 영향력, 겸손하고 정의로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음과 함께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세상에 복음과 함께 예수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살기를 원하는
김재억 목사

에게해(그리스와 터키 경계에 있는 바다)에서 채취하는 여러 어패류 중 특별한 염료를 품고 있는 빨고둥(gastropoda)이 있다. 이 빨고둥에게는 ‘악귀패(惡鬼貝)’라는 이상한 별명이 있다. 삐죽삐죽한 고둥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서 생긴 별명이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모습이 ‘악귀’처럼 생겨 섬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온갖 현란한 색채의 염료가 발달하여 현대인의 시각을 빼앗고 있고, 가오리처럼 생긴 스텔스 전폭기의 표면에는 적의 레이더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염료까지 도포될 정도로 발달했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는 자연에서 채취한 동·식물을 통해서 가까스로 천연염료를 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식물이 ‘꼭두서니’인데 대공에서 흐르는 진액에서 붉은색 염료를 얻었다. 어패류 중에서는 ‘빨고둥’에서 염료를 얻었다. 이 빨고둥의 목구멍과 위장 사이에는 병아리 눈물보다 더 적은 분량의 염료가 있는데 처음에는 노란색을 띄다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고, 끝내는 자주색으로 바뀌는 신기한 염료다.



고대 로마 시대의 황제와 원로원 그리고 고관 대작들만 입을 값비싼 실크를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다. 빨고동 1,200개를 채취하여 바닥까지 훑어도 불과 1.5g밖에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값이 금싸라기 같았고, 자주 염료로 채색한 실크는 당대 최고의 명품이었다.

소아시아(터키)의 두아디라 지방은 직조와 자색 염료 기술로 유명했으며, 수공업이 발달했다. 정성껏 만든 자주색 명품 옷감을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그중 가장 큰 성읍 빌립보에 가지고 와서 사업 확장에 힘썼던 여성 경제인이 루디아(Lydia)다.

바울과 일행이 여전히 소아시아 중서부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바울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 주셨다(행 16:9-10).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급전환시키게 되었다.

바울과 일행이 환상을 목격한 후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머물게 된 곳이



빌립보였고, 경건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가족 구원을 이루었다. 루디아는 흔쾌히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모셨고, 기도 처소로 삼았던 루디아의 집이 훗날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고,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Evangelism 0)-유다(E1)-사마리아(E2)-땅끝(E3)까지 확산되는 데 루디아의 신앙과 그의 선교적 협력은 마치 펌프의 마중물처럼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굿스폰의 사역이 태동하던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만 10년 동안 루디아처럼, 마을을 열고, 집을 열고, 소중한 물질을 열어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구령하는 데 고귀한 마중물로 사용된 고마운 분들이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교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이 책의 서두에 모두 담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지속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은 루디아 같은 분들의 그 아름다운 행적을 이 책에 담아 감사를 드리고, 영원히 기념하고자 한다.

1. 애난데일, 컬모, 셸링턴, 랭글리 파크, 리버데일, 볼티모어 등 도시빈민 밀집지역을 찾아다니며 복음 전파와 함께 온갖 곳은 일을 함께한 선교 동역자에게 감사 드린다.

목사: 조영길, 이현호, 박은우, 다니엘 이, 박명수

권사: 김영조, 최이섭 집사: 오향숙, 박정애

2. 겸손한 신앙의 거목들로 굿스푼의 운영 전반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사진께 감사드린다

장로: 심우섭, 송성수, 김후남, 이동운, 조창연, 홍우식, 김영호, 최윤덕,

박해수, 최정선 집사: 닥터 조종희, 최경진 이사

3. 굿스푼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워싱턴 지역 한인 목회자들과 섬기는 교회에게 감사를 드린다.

목사: 이종욱, 최인환, 양광호, 김영봉, 김만풍, 김요한, WBU Peter

Chang 총장, 리종빈, 켈 흥, 토머스 한, 김종식, 임현묵,

김승현, 백인기, 최성은, 안인권, 조병래, 유효환, 양형덕,

강정아, 박영애, 김경목, 김도원, 김미리, 장세규, 김해길,

김택수, 노규호, 노국순, 신민철, 염희섭, 이창순, 이 범,

이영문, 홍원기, 정병택, 최시영, 허성무, 안계수, 김성도,

김미혜, 한세영, 김제이, 이성자, 정원효, 안형준, 지상원,

강현식, 임철성, 민철기, 신석태, 김일호, 최윤환, 차용호,

김용훈, 배동환, 서성용, 손상웅, 안현준, 엄주성, 우미숙,

이석해, 이종암, 이원희, 이 철, 주병열, 한요한

4. 축복의 통로처럼, 넓게 편 손으로 풍성히 후원하고 있는 경건한 기독교 실업인과 단체장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김종택 장로, 제임스 킴 사장, 강종훈 장로, 최정선 권사, 이인숙 권사,

송인준 사장, 임기모 대사, 신현욱 전도사, 문일룡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 Min Cho, 함계선 교수, 재클린 킴, 강민식 회장, 진순세 권사,

황영옥 권사, 김용오 사장, 박준형 집사, 수잔 오 사장, 에스더 송,

이선희 사모, 이예순 권사, 이 철 권사, 윤애순 집사, 임순덕 권사,

정영훈 형제, 정재훈 장로, 조영노, 차진선 집사, 캐티 고, 한만수 사장,

홍민제 형제, 신정란 자매, 윤소영 자매, 노영주 자매, 배재현 장로,

이창복 권사, 안영수 권사, 원용춘 권사, 김인애 집사, 김신자 권사,

김정숙 집사, 김나미 집사, 김덕영 장로, 김필수 집사, 김환희 집사,

맹기재 권사, 이연순 권사, 박복순 권사, 박순자 권사, 이영순 집사,

장광자 집사, 장성은 반주자, 정미정 집사, 정영훈, 조윤희, 조종필,

진 이 집사, 최동녘, 김영관, 최순배, 케빈 여, Amy Cho 집사, 혜선

바이어, 홍민제, 황은숙 전도사, 황정례 권사, 김정례 권사, 쌤 강 선생,

김동성 선수, 박애숙 집사, 원미경 사모, 원명희 집사, 음영희, 허 왕,

이정백 집사, 이 건 경찰서장, 이규원 장로, 이규정 장로, 이문형 권사,

이민경, 정희석, 이석용 집사, 최귀대 집사, 이동호 집사

5. 복음과 함께 사랑의 밥퍼 운동 확산을 위해 홍보해 준 여러 언론사 기자들께 감사 드린다.

이현애 사장, 이양호 사장, 박태욱 국장, 박성균 국장, 최철호 국장,

이병한 기자, 홍알벗 기자, 정윤희 기자, 이종국 기자, 유재원 기자,

조요한 기자

6. 선한 사마리안처럼 의료 재능을 기부해 주신 굿스푼 굿닥터들의 헌신적인 치료 사역에 감사 드린다.

김용관 내과의, 나탄 리 치과의, 유제운 한의사, 문병권 한의사,
조종희 척추신경의, 박공석 척추 신경의, 김봉수 내과의, 레슬리 리
외과의, 강동호 치과의

7. 배재현 장로와 월요팀 봉사자들, 이희숙 집사와 인터네셔널 갈보리 교회의 수요일 봉사자들, 합계선 교수와 목요팀 봉사자들, 김신자 권사와 토요일팀 봉사자들, 오향숙 집사와 볼티모어 다운타운 선교팀, 원미경 사모와 주일 ESL 팀, 윤석기 집사와 한국어 과정의 여러 교사들 등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선교 확장을 위해 섬겨오셨던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린다.

8. 굿스푼 한국 지부 설립을 위해 산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석재왕 교수, 김승진 교수, 윤병국 형제, 윤옥순 부교, 김유미 전도사,
신덕호 장로, 김미영 권사, 최상대 장로, 김진국 형제, 최창수 세무사,
이용학 형제, 양정일 형제

9. 오늘이 있기까지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하는 어머니 방옥분 부교, 외삼촌 방수부, 방수길, 다정한 형제 김용한, 김영숙, 김향숙, 한상은, 나숙자, 조승상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아내 음영금과 아들 김요셉에게 감사 드린다.

역기능 가정 출신의 가난한 선교사 후보생 김재역을 남편으로 맞이한 음영금은 천성이 밝고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다. 뒤늦게 시작한 신학 공부 7년을 마치고 남미 선교지로 가기까지 아내와 나는 온갖 풍상을 함께 겪어야 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안양에서도 제일 험한 달동네를 함께 다니며 우유 배달을 해야 했다. 숨이 턱에 닿도록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신문을 돌리고, 방학 내내 전국에 산재한 교회들을 전전하며 교회용품을 팔고, 중국집 철가방을 나르며 신학 공부를 마쳐야 했다.

30대 초반에 시작한 남미 선교지에서의 미숙한 좌충우돌식 선교, 안식년 없이 가난과 외로움과 병마와 싸우면서 벌였던 10년간의 세월 속에서 아내와 아들은 변함없이 함께 있었다. 마흔살 되던 해, 미국에 올라와 계속된 흑인 홈리스 미션과 라티노 빈민들을 위한 도시선교 14년. 아내와 아들 요셉의 헌신적인 동고동락이 없었다면 감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 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성을 위해 다듬어져 가는 불편함과 미흡함이 많은 김재역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실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 음영금과 아들 요셉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을 삼가 헌정한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굿스푼 사무실에서

굿스푼선교회 김재역 목사

프롤로그 : 이 사람은 열병(pest)이라 · 5 / 감사의 글 · 11

1부 Good Spoon 이야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 한인과 라티노들 · 23 /

강한 용사가 준비하는 돈가스 · 25

목적이 이끄는 밥퍼 · 28 / 교회여, 빈민을 위해 문을 열라! · 30

모달리티 소달리티로 비상하는 선교 · 33 / 봉선화 같은 소화기 · 36

빈대 매트리스 · 39 / 아나바다에서 만난 사람들 · 42

약혼식 피로연을 도시빈민과 함께 · 45 / '영적' 스나이퍼 · 48

자신에게 갇힌 죄수가 되지 말라 · 51 / 착한 기부 · 53

입을 거리 1 완벽한 명품 비꾸냐 코트 · 56

2부 라티노,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다

라티노의 고난절, 부활절 풍습 · 61 / 콜라 서베이(KOLA Survey)를 마치며 · 64

레드카드를 받고 떠난 사람 · 66 / 귀향의 꿈에 젖어 있는 코털 호세 · 68

어느 도시빈민의 비참한 말로 · 70 / 라 그란데와 만두 · 73

아반도나도(Abandonado) · 75 / 불체자 라티노의 가슴 시린 고백 · 77

한 달 노임이 만 원짜리 한 장 · 80 / 돌잔치를 라티노 노동자들과 함께 · 83

입을 거리 2 살인을 일삼는 마약 운반 마피아 · 85

3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라틴아메리카의 명소

볼리비아의 소금호수 · 91 /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 리오 데 자네이로 · 94

이뤄지지 못한 사랑을 간직한 이파수 폭포 · 97 / 남미의 알프스 바릴로체 · 99

나스카 평원의 비밀스런 기호들 · 101 / 고원에 떠 있는 바다 같은 호수 띠띠까까 · 103

잃어버린 하늘정원 마추픽추 · 105 / 거북이들이 사는 섬 갈라파고스 · 107

지구 종말을 예언한 마야 문명의 중심지 띠칼 · 109

땅고 춤의 본 고장 아르헨티나 라 보카 · 112 / 피의 제단 멕시코 떼오티우아칸 · 114

세계 최고층 폭포 베네수엘라 앙헬 폭포 · 116 / 아마존의 심장 마나우스 · 118

영원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 루나데 쉘라후 · 121 / 세계의 교차로 파나마 운하 · 123

화려함과 낭만이 공존하는 썬 파울로 · 125 / 몽특한 화살촉을 닮은 우루과이 · 128

파란 천국 모로코이 치치리비치 · 130 / 에콰도르의 장수촌 빌카밤바 · 132

황제 나비의 천국 멕시코 · 135 / 안데스의 여왕 뿌야 라이몬다 · 138

입을 거리 3 게릴라의 전설 체 게바라(Che Guevara) · 141

4부 라틴아메리카, 그들의 문화와 자연

가난해서 슬픈 나라 볼리비아 · 147 / 아마 쏘아, 아마 유야 · 149

돈데 보이(Donde Voy) · 151 / 라 노비아(La Novia) · 154

뜨레스 베세스 모하도(Tres Veces Mojado) · 157 / 라티노의 장례 문화 · 159

라티노가 좋아하는 발라드 · 161 / 라틴아메리카의 짤 이야기 · 164

라티노는 가나다라, 한인은 아베세체 · 167 / 라틴아메리카의 약이 되는 독초 · 169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동굴 · 172 / 맘몬(Mammon) · 175

볼리비아의 희망 · 177 / 세계 최고급 향수 다마 다 노이저 · 179

아뽀칼립토(Apocalypso)와 미션(Mission) · 181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Recuerdos de la Alhambra) · 184

엘 오르네로(El Hornero) · 186 / 자유의 씨앗 희망의 씨앗 · 189

쿠바 아리랑 · 192 / 파운드 까브랄(Pacundo Cabral)의 죽음 · 194

웰리스 나비다(Feliz Navidad) · 197

5부 맛있는 음식, 따뜻한 나눔

강렬한 커피의 유혹 · 201 / 도시빈민을 위한 추수감사절 · 204
디마쓰가 만든 찜빵 · 206 / 라면 매니아 라티노 · 209
라틴아메리카의 10대 음식 · 211 / 라틴아메리카의 슈퍼 푸드 · 213
라틴아메리카의 먹거리 · 215 /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열대과일 · 217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 220 / 쌀때냐 먹고 모꼬친치 마시고 · 222
엄마손 표 뿌뿌사 · 234
읽을 거리 480세 청년의 식지 않은 꿈 · 228

6부 그들의 신앙과 세계를 향한 선교

깊이 일 마일 넓이 일 인치 교회 · 231 / 도가니 · 234
복음으로 끝낸 피의 축제 · 236 / 빠뜨로나또 선교정책 · 238
사이코페스 아우까 인디오 · 240 / 은혜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 242
이것이 교회다 · 244 / 이것이 선교다 · 247
이것이 참 부흥이다 · 249 / 전능자와 나누는 영혼의 대화 · 252
휴가는 휴가답게 선교는 선교답게 · 254
흔들리는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올라 · 256

에필로그 : 굿스푼 선교회의 지난 10년간의 선교와

앞으로 해야 할 선교 과제 · 259

굿스푼 선교회(About Good Spoon) · 266

1부 Good Spoon 이야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인과 라티노들



“다시 사신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아 벨라 글로리아 오 누에스
프로 헤쑤스, A ti la gloria oh nuestro Jesus)!”

폴스처스 킬모 세븐일레븐 공터에서 있었던(4월 23일 토요일) 부활절 감
사예배는 한인 봉사자 30여 명과 라티노 150여 명이 모인 특별한 잔치자리
가 되었다.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 때문인지 오전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지
만, 정오쯤이 되자 점차 날이 환해지면서 라티노 일일 노동자들이 몰려들
더니 공터가 가득 채워졌다.

이윽고 한빛지구촌교회 이유정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장세규 목
사가 라티노들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제기하자 조영길 선교사가
재치있게 동시 통역을 했다. 간결하면서도 내면을 두드리는 메시지를
받은 라티노들은 무거운 시름을 잠시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에 해맑게 웃는다.

강정아 전도사가 이끄는 드보라 워십댄스 팀의 몸찬양이 드러진 후,
굿스푼에서 준비한 성만찬이 나뉘이자 소란했던 거리에배는 일순간 엄
숙하게 변했다. 성찬 떡 대신 중미 라티노들의 주식인 옥수수로 ‘또르펠라’
를 만들었고, 포도즙에 찍어 한인과 라티노들이 함께 나눌 때 차별 없는 하
나됨을 경험하는 성찬식이 되었다.



— 한인과 라티노들이 함께한 감격의 성찬식

도시빈민에게 차려진 점심식사는 맛깔스런 라티노식이다. 천연 염료로 채색한 후라이 라이스, 소불고기, 후리홀레스, 곱절이 김치와 맛있게 끓여진 치킨 스프가 배식되어 풍성한 먹거리가 나눠졌다.

행사장 한켠에 설치된 간이 천막 아래에서는 도시빈민들을 위한 의사들의 무료 진료가 펼쳐졌다. 김용관 내과 의사, 강동호 치과 의사가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일일이 살펴보며 진료를 했다.

푸짐한 음식을 준비한 한빛지구촌교회 박해수 집사는 “가난한 라티노 도시빈민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 도리어 감사하다.”라고 하며 함께 동참해 준 교회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한 용사가 준비하는 돈가스



전체 중남미 32개 국 라티노 5억 인구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4천만 명의 라티노들이 즐겨 보는 텔레비전 방송 중 하나가 채널 14번 유니비시온(Univision)이다. 그 방송사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는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짜바도 히간떼(Sabado Gigante, Giant Saturday)’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장수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짜바도 히간떼’의 간판 스타로는 ‘돈 프란시스꼬’를 꼽을 수 있다. 그의 본명은 마리오 크르에우즈 베르헤르(Mario Kreuzberger)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을 피해 칠레로 피신한 유대인 출신 이민자다. 21살의 나이에 방송국에 진출한 그는 ‘짜바도 히간떼’와 한평생을 울고 웃으며 지내왔다. 최근 그가 진행하는 화요일 초대석에 특이한 가톨릭 신부가 출연하여 화제다. 신부는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 갱생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주임 신부의 만류가 만만치 않았지만 백색가루에 취해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는 젊은 영혼들이 가여워서 중단할 수 없었다.

선교 기금 마련이 쉽지 않자 오랫동안 고민하던 신부는 밤이면 사제복을 벗고 돈내기 격투기에 몸을 내던진다. 싸움에 익숙하지 않던 신부는 매일 깨지고 부러지고 성할 날이 없었다. 그렇지만 온 몸에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도 선한 일을 한다는 뚜렷한 소명감에 아픈 줄 모르고 허다한 못매

를 품으로 받았다.

“매에 장사 없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얻어 터진 것’도 싸움 기술이 되었는지, 맞으며 터득한 싸움 기술로 요즘은 타고난 싸움꾼도 신부님의 한방에 나가 떨어진 다. 노력형 싸움꾼이 되어 선교 기금을 제법 두둑히 마련하는 신부의 인터뷰는 화요일 저녁, 오랫동안 가슴을 치며 파고 들었다.

무더위에 지친 도시빈민들을 돕기 위한 선교 기금 마련 ‘일일 밥집’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강한 용사’들에 의해 오픈한다. 한국에서처럼 초복이, 중복이를 잡아 무더위에 나른해진 심신을 회복시킬 수는 없어도 맛있는 돈가스를 준비하여 한인들을 섬기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도시빈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던 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지난 7월초이다. ‘강한 용사’ 팀 중 1976년, 1977년 또래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려는 ‘일일 밥집’ 프로젝트에는 벌써부터 청년들의 끼와 아이디어가 만발하다. 강한 용사의 1.5세, 2세 한인 청년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투철한 신앙인들이다.

20여 명의 청년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장을 보고 준비할 메뉴는 돈가스와 우동 콤보다. 물론 식사 후에는 맛있는 디저트로 케이크와 커피가 제공된다. 15달러가 넘는 음식이 ‘미소’를 찾는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제공된다.

3년 전, 애난테일에 송순진 집사가 오픈한 ‘미소(Miso)’는 신선한 올리브 기름에 살짝 튀겨 낸 각종 돈가스와 우동이 전문인 퓨전 레스토랑이다.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웰빙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야채 비빔 모리소바를 정성껏 내놓는 ‘미소’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식당이다.

‘일일 밥집’ 행사 당일에는 돈가스와 우동, 그리고 음료수와 디저트를 무료로 먹을 수 있다. 빈민선교에 관심을 둔 한인이면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다. 굿스푼 선교회 빈민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일주일 중 가장 매출이 많은 일요일 오후시간을 오픈한 ‘미소’의 송 집사는 “빈민들을 위해 선교 기금 마련 장소로 미소가 사용되어 도리어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같이 싱그러운 청년들의 정성이 깃든 일일 밥집에 꼭 방문하여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강한 용사’ 임해은 간사는 “약 20여 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일일 밥집을 운영하려는데 다들 결혼 전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빈민들을 위한 좋은 일이라 생각하니 즐겁게 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며 뜻 깊은 일에 참여를 도리어 고마워한다.

이날 미소 레스토랑에는 강한용사 청년들 외에도 굿스푼 형제들의 집에서 함께 훈련 중인 라티노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굿스푼에서는 그동안 한인 사회의 협조로 꾸준히 벌이고 있는 빈민선교 동영상과 라틴아메리카 찬양과 음악을 준비한다고 한다. 라틴아메리카 선교 경험과 특색 있는 문화와 음식,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아름다운 관광지역을 소개한 김재익 목사의 저서 『좋은 손가락』도 전시하고 저자 사인도 나누는 시간도 겸할 예정이다. 통기타 선율에 복음을 실은 과테말라 두에도 다윗(Dueto David)의 서정적인 노래와 라티노의 어머니 같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누에바 칸시온과 어울려지는 ‘일일 밥집’에는 섬김과 사랑의 나눔과 그리고 고객 감동이 잔잔하게 퍼져 오를 것이다.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세심하게 준비하는 청년들의 접대에 하루쯤은 높은 양반처럼 마음 편히 서빙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 정성이 가득하고 서비스가 감동스러우면 주머니를 열어 후원금을 기부하면 된다. 사랑이 가득한 강한 용사가 준비한 돈가스,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목적이 이끄는 밥퍼



메릴랜드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리버데일은 라티노 도시빈민 55,000여 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등지에서 올라온 라티노들이 낡은 아파트 단지에 둥지를 틀고 있다. 리버데일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케닐워스 애비뉴이다. 아침이면 세븐일레븐 공터 주변에 수십 명이 몰려들어 일거리를 찾아 배회한다. 애난데일, 켈모, 설링턴 라티노 노동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메릴랜드 최대 라티노 커뮤니티가 있는 랭글리파크, 타코마 파크 지역은 불과 10여 분 거리이다.

2007년부터 이 지역에서 라티노들을 주요 고객으로 인터내셔널 푸드를 취급하고 있는 ‘라 그란데 슈퍼마켓’의 이수영 사장은 매장 주변에 모여 있는 라티노 홈리스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남루한 옷을 걸친 채 대낮에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녔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로 신규 주택 건설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막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된 지역 주민들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독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그들은 빠른 속도로 부랑자가 되었고, 사회 부적응자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업 3년 만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이 사장은 ‘도시빈민 라티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평소 그들의 성원을 고맙게 여겼던 이 사장은 “사업 성공을 통해 얻은 이윤의 일부를 기꺼이 돌려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매장 앞 공터에 테이블을 펼쳐 무

료급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도시빈민들을 초청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용기를 심어 주어 진흙탕에 빠진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재활의 장소로 사용할 것을 다짐하게 됐다. 마침 라틴아메리카 선교 비전을 갖고 있었던 신현욱 점장이 그 시기에 부임하면서 이 사장과 의기 투합하게 되었다. 이벤트 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구체적인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행보보다는 컨소시엄(consortium)을 이뤄 협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라 그란데가 빈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컵라면과 달콤한 떡 세트, 음료수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지척에 위치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반색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박은우 목사와 실버 봉사자들은 갓 지은 쌀밥과 치킨 테리야끼, 따뜻한 커피를 풍성히 마련했다.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구아에 신학교를 건립하고 벽오지 인디오 교회를 후원하고 있던 나누리선교회가 여섯 보따리 가득 중고 옷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면서 구성은 더욱 탄탄해졌다. 여기에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조영길 목사의 영혼을 두드리는 스페니쉬 설교가 더해지면서 구제와 선교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영글어 가기 시작했다. 리버데일에 한인들의 아름다운 선행의 손길이 나뉘질 수 있었던 것은 술과 마약에 찌들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저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여 사랑의 화톳불을 지피게 되었기 때문이다.

매주 금요일, 한인과 라티노들이 함께 어울려 아카펠라로 부르는 영혼의 찬송이 소풍물 가득히 울려 퍼진다. 리버데일에서 계속되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밥퍼’ 사역은 엄동설한에 힘들어 하는 도시빈민들의 언 손과 얼음장 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교회여, 빈민을 위해 문을 열라!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인 미국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고 있다. 세계에서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국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다. 동토의 땅 알래스카에서부터 선 벨트의 플로리다까지 측량 불가능한 각종 천혜자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값진 땅이 미국이다. 어디 지하자원뿐이라. 세계 250여 개국에서 온 3억 명이 넘는 맨파워는 영어 외에 120여 개의 언어를 말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이 부러울 정도다.

최고 부자나라에는 불행하게도 생활의 풍요에서 비롯한 비만과 각종 성인병, 당뇨 치료를 위해 눈물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첨단 다이어트 약품과 피트니스 산업도 얼마나 활발한지 모른다.

200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3,600만 명이 빈곤선 아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2,300만 명이 음식을 제공하는 교회나 비영리단체를 방문하여 생필품을 공급받고 있다. 그 중 1,300만 명은 어린이이고, 그 중 600만 명은 심각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한해 410억 파운드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 중 15%는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봉되지 않은 채 버려진다. 아리조나 대학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는 구입한 14%의 음식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생

산되는 식량의 1/5이 매 해 버려진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10억 달러어치다. 이 정도면 4,9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잘 분배하고 활용하면 최고 부자국가라는 명성과 어울리지 않는 가난한 빈민 3,600만 명을 잘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기아선상에 있는 가난한 난민을 돕는 훌륭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들이다. 그러나 이웃을 돌아보는 다정한 마음을 상실한 무심한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무조건 쓸어넣기를 좋아한다.

굿스푼의 주요 사역 중 빈민을 위한 무료 식료품 지급 사역이 있다. 세이프웨이 매니저인 최정선 집사의 헌신으로 시작된 식료품 은행에서는 매년 20만 달러가 넘는 다양한 식료품과 생필품이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급된다. 현재는 세이프웨이 세 군데와 아웃브리치 지구촌마켓이 후버 댐에서 흐르는 물처럼 빈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흘러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만나처럼 거뒀 아낌없이 나눠지는 곳은 굿스푼 사무실, 애난데일, 컬모, 셸링턴, 워싱턴 DC 등의 빈민선교 현장이다. 지역선교에 관심을 둔 한인교회와 굿스푼이 협력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 가



— 지역 한인교회가 빈민을 위해 여는 푸드뱅크 및 무료 옷 지급 사역

난한 이웃을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세우며, 나그네 된 자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다.

지역 한인교회는 빈민을 위해 푸드뱅크 및 무료 옷 지급 사역을 위해 방을 하나씩 열어야 한다. 수요일, 금요일 오후 5시-7시에 교회 공간 하나를 열어 기증받은 식료품과 옷가지를 진열하여 나눌 수 있다. 도시빈민들이 제재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며 원하는 식료품과 옷가지를 마음껏 가져갈 때 삶의 의욕을 다시 갖게 된다. 식료품과 옷가지들은 교우들이 주일마다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인근에 있는 이웃들의 도움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나눔을 위한 봉사 인원과 경비는 의외로 단출하다. 쇠 파이프로 만든 든든한 옷걸이 몇 개, 식료품을 구별하여 진열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반세트, 물품을 담아 줄 쇼핑백 등을 갖추면 훌륭한 나눔의 장소가 된다. 식료품과 옷 지급 사역을 위해 교인 대여섯 명이 교대로 섬길 수 있다.

각박할수록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가난에 찌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 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땀 흘리며 한 번 체험해 보자.

모달리티 소달리트로 비상하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전 세계적으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두 선교 구조가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다. 선교 전략가 랄프 윈터(Ralph Winter) 박사는 “하나님의 선교가 온 열방과 족속과 나라들에게 편만히 펼쳐지도록 이 두 구조는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작용할 때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 드높이 날 수 있다.”고 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안수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송한 안디옥교회는 모달리티에 해당되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선교 공동체는 소달리티라고 할 수 있다(행 13:1-3). 소달리티는 특별한 선교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연령대의 헌신된 사람들로 구별된 선교 공동체를 뜻한다. 군대로 말하면 적과 맞닥뜨려 일전을 불사하는 전투부대에 해당한다. 회사로 말하면 온갖 악조건과 싸워 기필코 거래를 성사시키는 영업부서와 같다.

소달리티는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적 노하우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선교지에 교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타 문화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목표가 있다. 모달리티는 지역교회 공동체로 공식적이며 보편적이고 형식적 구조를 말한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짐과 온 세계를 위해 구제와 선교의 손길을 펼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지는 곳이다. 연



- 라 그란데 슈퍼마켓 앞에서 펼쳐지는 선교현장은 가슴시린 라티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된다.

준비한 채 서성거린다. 이윽고 나눠 줄 그로서리와 옷가지를 잔뜩 실은 ‘굿스푼’ 카고 벤이 도착하면 아직 겨울 외투를 벗지 못한 라티노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든다. 은발이 멋진 조영길 선교사가 낡은 벤치에 올라 사자 후를 토하는 앞자리에는 건강미 넘치는 라티노 아줌마 부대가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운 채 자리했다. 알콜 중독자들과 홈리스들은 설교 끝머리에 슬그머니 후미를 차지한다.

고즈넉히 쇼핑물에 올려 퍼지는 아카펠라 찬송소리, 한 그릇 음식에 감사하는 저들은 매주 대하는 익숙한 단골이다. 복음의 능력이 리버데일에 넘쳐날 때까지 협력 선교는 계속될 것이다.

약해 보이나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선교의 모판과 같은 사명을 갖고 선교 인적자원, 선교 재정을 후원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박영선 목사는 “교회는 가정이고 선교단체는 학원과 같다.”고 했다. 갓 결혼한 새댁이 요리학원에 가서 여러 요리법을 배운 후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메릴랜드 리버데일 케널워스 애비뉴에 위치한 ‘라 그란데 슈퍼마켓’ 앞에는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맞춤형 협력 선교가 이뤄진다. 라틴아메리카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메릴랜드 제일장로 교회 박은우 목사와 10여 명의 실버 봉사대는 푸짐한 볶음밥, 카레라이스, 닭고기 야채 볶음 보파리를 한아름 펼쳐놓는다. ‘라 그란데’ 이수영 사장은 반가운 손님들을 맞이할 테이블을 세팅한 후 따뜻한 컵라면과 다방 커피를

봉선화 같은 소화기



분말 소화기에 가득히 담겨 있던 카본 다이옥사이드(Carbon Dioxide) 가스가 눈 앞에서 터졌다. 보통은 안전핀을 빼고 화재 방향을 향해 가름한 호스를 들이댄 후 손잡이를 눌러야 가스가 분출한다는데, 그날 아침 소화기통은 웬일인지 떨어지면서 터져버린 것이다. 도시빈민을 위해 매일 아침 빵, 야채, 과일을 준비해 주는 벤돈 플라자 세이프웨이 출입문 옆에 달려 있던 10파운드짜리 소화기가 떨어지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날따라 도네이션 물품이 유난히 많았다. 카트 가득히 실려진 박스들이 몇 번이고 드나들다 출입구 옆에 오랫동안 놓여 있던 소화기통을 건드린 것이다.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 때는 떨어진 것이 소화기통인 줄 몰랐다. 오래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듯 소리를 지르며 드라이 케미컬(Dry Chemical)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게 소화기인 것을 알았다. 눈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른 채 드라이 케미컬을 뿜어내는 것을 보면서도 맞고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절반이 다 분출되고서야 정신이 나서 소화기통을 세이프웨이 문 밖으로 옮겼지만 이미 실내는 자욱한 안개로 가득했다. 조그만 통 속에 얼마나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지 밖에서도 한바탕 난리 블루스를 추고서야 멈췄다.

그날 나는 연노란 송악가루 같은 소화기 분말을 원없이 들이켰고,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에서 일과를 보내야만 했다. 화산재처럼 묵직한 카본 가



- 이들에게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영식도 함께 공급해 주는 이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루는 모든 물품 위에 내려앉았다. 세이프웨이 인벤토리 컨트롤 룸에 쌓여 있던 수천 가지의 물품에 화장한 것처럼 덮고 앉았다. 컴퓨터 모니터와 자판기, 뿌에르토리코 산후안이 고향인 매니저(Margie)가 아침 대용으로 먹던 머핀과 커피 머그에까지 골고루 내려 앉았다.

이제는 상황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할 일만 남았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가슴을 콩닥거리게 한 것은 매니저가 화가 나서 “내일부터 물품 공급 정지”를 선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불경한 죄를 저지른 내시처럼 고개조차 못 들고 사태 수습 장비를 찾아 나선다. 깨끗한 물에다 마대 걸레를 여러 번 빨아 닦기를 네 차례,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군데군데 비듬가루처럼 허영게 남아 있는 게 마음에 걸린

다. 페이퍼 타월을 한 움큼 뽑아 손걸레 대용으로 매니저의 책상에 수북히 쌓여 있는 종이와 필기도구, 의자와 모니터를 구석구석 닦아낸다. 마지막으로 비닐봉지 몇 개를 겹쳐 총채처럼 엮어 기를 쓰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먼지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마무리했다.

난리를 피해 매장 안으로 피난 갔던 매니저가 돌아온 것은 거의 한 시간이 지나서다. 물초롬한 눈으로 복구 상태를 확인하러 고개를 디민 매니저에게 죄송함과 아부가 묻어 있는 소리로 말한다.

“에르마나 마지, 디스쿨빼메(Hermana Margie, Disculpeme, 자매님, 정말 죄송합니다).”

상큼하게 갈아 입고 나간 티셔츠와 바지에 자욱하게 내려앉은 가스 분말, 검정 구두가 백구두가 되었고, 쓰고 있던 안경마저 잿빛가루로 가려진 채 안절부절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이 딱했던지 매니저는 까칠한 목소리로 “에스따 비엔 빠스톨(Esta Bien Pastor, 괜찮아요 목사님).”이라고 한다. 트집을 잡아 후원을 끊어버릴까봐 청소하는 내내 불안했던 마음이 그 한마디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다.

그날 이후부터 빨간색 소화기만 보면 봉선화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만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소화기.”

빈대 메트리스



굿스푼 선교회는 애난데일 에버그린 4209번지에 위치한 작은 이층 건물을 만 7년째 사용하고 있다. 2004년 창립하던 해에 입주하여 매년 2만 명의 도시빈민들을 위한 선교, 구제, 소셜서비스,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선교의 요람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층 주방에는 여러 대의 냉장, 냉동고, 스토브, 조리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 매일 다양한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기증된 식품들을 조리하여 도시빈민들을 위한 ‘사랑의 점심 도시락’을 만드는 곳이다. 이층 사무실은 선교회 사무실, 도시빈민 접견실로 사용하고, 주말에 운영되고 있는 영어강좌, 예배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곳이 현재의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붉은 벽들로 외장했지만 내부는 너무 형편 없었다. 싸구려 합판으로 열기설기 쪽을 대었고, 벽과 천장은 단열재(insulation)를 넣지 않아 여름에는 한증막 같고, 겨울에는 부실한 벽 속에 숨어 있던 칼바람이 손발을 푹푹 얼게 했다.

뼈대를 제외한 건물 내부를 다 바꿨다.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의 이동식 성막 건축의 달인이었던 오홀리압과 브사렐처럼 지혜로운 건축가인 조창연, 맹기재 목수가 탁월한 솜씨로 리모델링을 했다. 여기에 이종암 목사가 가세하여 입구에 튼튼하게 쇠기둥을 세우고, 녹슬지 않는 양철로 덮어 물품 하치장으로 달아 주었다. 물품 하치장은 소나기가 내릴 때는 비를 피하는 아늑한 공간이 되었고, 한여름에는 폭양을 피할 넉넉한 그늘을 만

들어 주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제이 글로벌, 지구촌마켓, 키 월드, 라 그란데 슈퍼마켓에서 기증하는 수만 개의 음료수, 중남미 산 열대과일과 채소들이 쌓여 있다가 거리 급식과 푸드뱅크(food bank)로 출하되는 수납 공간으로 한몫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때로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모은 재활용품을 박스에 담아 놓아 두는 곳이 되기도 한다. 사연이 담겨 있을 소중한 소장품들-옷과 신발, 장난감, 운동기구, 약세사리, 캔 푸드를 마음의 보석상자에 담아 겸손히 놓고 가는 사랑 나눔터로 사용된다.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 물품들이 여럿 있었다. 뒷굽이 약간 닳았을 뿐 새 것처럼 보이는 수십 켤레의 구두와 신발들, 테니스 라켓과 깨끗한 공 세트, 깨끗이 세탁된 옷가지, 정성껏 갠 후 향수까지 뿌려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온 옷들은 도시빈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했는지 모른다.

반면에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물품도 여럿 있었다. 냉장고 반만한 구식 일제 46인치 텔레비전은 십여 명의 빈민들이 동거하는 작은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는 분명 크고 불편했다. 누군가가 가볍고 날씬하고 화질 또한 굉장한 최신 LED 텔레비전으로 바꾸면서 코끼리 같은 괴물을 몰래 굿스폰에 내려놓고 간 것이다. 이 괴물은 돌덩어리처럼 묵직해서 장정 네 명이 겨우 처리했다. 작은 장롱만한 구닥다리 오디오 세트는 귀퉁이마다 깨졌고, 스피커는 수명을 다해 전기조차 통하지 않았다. 한참동안 도끼질을 해서 달랑 자석 몇 개를 꺼내야 했다.

가장 마음을 다치게 했던 물품으로는 빈대 매트리스만한 것이 없었다. 사무실 입구에 길게 걸쳐 놓은 허름한 매트리스 두 장, 습기찬 지하실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지 검은 곰팡이로 까맣다. 스프링은 탄성을 잃은 채 눌



- 아직도 굿스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라티노 노동자들은 너무나 많다.

려 있고, 화폭 삼아 그린 오줌 지도가 앞뒤로 누렇다. 맨바닥보다는 낫겠지 싶어 그 위에서 잠을 청했던 라티노의 목덜미와 팔목 언저리 수십 군데가 빨갱게 부어 올랐다. 밤사이 수백 마리의 찐체(chinche, 빈대) 군단의 공격을 받아 피를 빨렸고, 발진을 일으킨 것이다. 지독스런 빈대 독은 여러 달 동안 가렵게 했고, 끝내는 스테로이드 로션을 발라야 했다.

중고 재활용품을 나누는 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남에게 나눠져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사랑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 내게 폐품인 것은 남에게도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나바다에서 만난 사람들

애난데일에서 스티어링에 위치한 굿스푼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가게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페어팩스와 라우든 카운티가 이웃한 헨든 시와 스티어링 시의 경계. 락힐 센터에 위치한 굿스푼 재활용품 가게는 지난해 8월 오픈했다. 동전 다섯 개를 먹어야 길을 여는 267번 그린웨이 톨(TOLL) 로드. 헨든 쪽으로 나와 잠시 달리다 보면 작은 쇼핑 센터에 위치한 재활용품 가게를 만날 수 있다. 락힐 센터에는 아홉 개의 각기 다른 인종이 경영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중에는 한인이 경영하는 푸드마켓, 세탁소도 섞여 있다.

재활용품 가게 옆에는 중국인 식당과 쿵푸 도장, 파키스탄 전문식당 Shalmar와 양고기와 중동 매운 소스를 파는 Shan Halal 그로서리, 영화와 음반을 파는 인디아 부띠끄 등이 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면서도 피부가 까무잡잡한 파키스탄, 인디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듯한 우르드어를 말하는데 신기하다. 형형색색의 히잡을 쓴 이슬람계 여인들과 머리 위에 터번을 칭칭 동여매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시크교 구르 같은 영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맞은편 옛 헨든 경찰서 자리에는 매일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라티노 노동자들의 일일 노동시장이 선다. 레스톤 인터페이스라는 비영리단체가 야외용 텐트를 쳐놓고 구직자 라티노들을 맞이하는 곳이다. 중미 과테말라,



— 아나바다는 다양한 언어, 인종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 라티노들은 대부분 몽골계 인디언 혼혈로 키가 작고 순박한 성품을 갖고 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서부 아프리카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리카 이민자들, 지리적으로 스페인과 가까워서 스페니쉬에도 능숙한 모로코인들까지 섞여 있다. 뿐만 아니다. 가끔씩은 엔틱 액세서리나 가야금, 병풍 등을 찾는 백인 쇼핑객들의 발걸음도 빈번한 곳이다. 아나바다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점심 때면 작은 쇼핑센터는 구수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찬다. 차이나이스 식당에서 번지는 고소한 로메인 냄새, 파키스탄 식당 살리마르에서 피어오르는 치킨 띠도리(Tandoori)와 카레 냄새가 매콤하게 코끝을 자극한다. 지독하게 매운데다가 향이 독특한 파키스탄 음식이 자신이 없지만 살리마르 케밥

약혼식 피로연을 도시빈민과 함께



은 파키스탄 음식에 덜 익숙한 한인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회교도의 습관대로 닭고기, 양고기를 차콜에 굽고, 끊어진 쌀국수처럼 길쭉한 쌀밥에 얹은 카레와 샐러드로 맛을 내서 먹는 케밥은 명품이다. 딜레스 공항에서 일하는 중동계 리무진 택시 기사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매콤한 향료에 취한 라티노들도 곧잘 어울려 식사하는 곳이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프레드릭 애퀘이(Frederick Acquaye) 씨는 스마일 신사다. 일주일이면 두세 번 아나바다에 들러 가나로 보낼 물품을 사는 데 정성을 쏟는다. 이미 그의 집 한켠에는 컨테이너에 선적할 재활용품으로 가득하다. 가나 현지에 있는 그의 남동생이 판매책으로, 프레드릭이 싼값에 물품을 실어 나르는데 별이가 쓸쓸하다.

멕시코 치아빠스가 고향인 마떼오 에르난데스(47세)와 그의 아내 이달리아 로페스는 최근, 아나바다에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벵타이 매는 법을 배웠다. 평생 한 번도 벵타이를 매본 적이 없는 그는 다음 주일 처음으로 벵타이를 매고 교회에 가려고 중고 벵타이 열두 개를 샀다.

한해 동안 아나바다에 보내 준 한인들의 따뜻한 정성이 고맙다. 손끝의 추억이 남아 있는 기증 물품을 쌓자면 오벨리스크보다 높을 것 같고, 펼쳐 놓으면 66번 도로 길이보다 더 길 것 같다. 가난한 빈민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는 모습에 마음이 짝해진다.

올해 스물아홉 살 동갑내기인 동녘과 윤경이는 지난 5월 중순에 버크의 아담한 한인교회에서 30년 가까이 고이 길러 주신 양가 부모님과 사랑하는 일가 친척, 친구들을 초청하여 조출한 약혼예배를 축복 속에 드렸다. 결혼의 꿈은 아직 멀었다고 멀찌감치 밀어뒀던 동녘이다. 공인회계사 준비도 미흡했고, 곱게 길렀을 남의 규수를 모셔오기에는 아직 결혼의 외적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다. 주변 어른들의 ‘선 보라.’는 여러 번의 권유도 있었지만 매번 시큰둥했었다.

윤경이를 처음 만났던 것이 작년 10월쯤이다. 아담한 키, 조용한 몸가짐, 착한 심성, 동그란 얼굴, 메릴랜드 주립대를 졸업원 재원,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를 너무 흡사하게 닮은 고운 외모에 동녘은 첫눈에 반해 버렸다. 마지못해 나갔던 첫 미팅날, 심장이 멎는 듯한 쇼크를 받고 돌아왔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듯한 전율을 느끼며 만나기 시작했고, 7개월만에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려고 순결한 약혼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동녘에 대한 윤경이의 호감도 다르지 않다. 곱상한 외모, 맑고 깨끗한 성품,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다운 모습에 훈훈한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운명적인 끌림을 경험한다.



—젊은 연인들이 대접한 따뜻한 식사는 라티노 노동자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동녘의 부모는 경사스런 약혼식을 근사한 곳에서 하고 싶었다. 무녀독 남 외동아들인데다 때마침 한국에서 오신 예비 사돈 부부에게도 신랑측이 결코 부실한 가문이 아님을 보여 주고 싶었다. 딸을 안심하고 맡겨 달라는 무언의 제스처어를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양가 어른들의 허락이 있자 신록 같은 젊은 연인들은 약혼식 계획을 세운다. 경건하게 교회에서 드리 되 피로연은 최대한 검소하게 치룬다. 모아진 경비는 라티노 도시빈민 100명을 먹이고 접대하는 일에 사용한다.

약혼식 다음날, 라티노 도시빈민들에게 나눠 줄 스페니쉬 친구약 성경 100권을 준비했다. 그리고 약혼 기념 점심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양가 부모와 당사자들이 굿스폰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에 몰입한다. 점잖은 바깥사돈이 불고기를 지지고 볶고,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계란말이를 만들어내느라 분주하다. 두 시간에 걸쳐 만든 음식들로 조리대가 꽉찼다. 따

뜻하게 지어진 밥, 불고기, 계란 야채말이, 상큼한 샐러드를 준비하여 담는다. 때 이른 무더위에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왔지만 모두의 마음 위에 이슬 같은 행복이 촉촉히 내려앉음을 경험한다.

드디어 정성껏 만들어진 100개의 도시락이 차에 실려 애난테일 거리 급식소로 향한다. 거리에 삼삼오오 몰려 있던 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면 예배가 드려진다. 평소보다 더 맛있고 속이 꽉 찬 도시락에 놀랄 즈음, 예비 신랑 신부가 약혼의 기쁨으로 대접한다는 소개가 있자 라티노들의 진심어린 축하가 거리 급식소에 가득 채워졌다.

동녘과 윤경은 풍성히 나누고 남은 도시락을 세븐일레븐 공터 나무 그늘에 앉아 맛있게 나눴다. 두 젊은 연인은 다짐한다. 평생의 삶을 해로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날마다 실천하며 살겠다고.

‘영적’ 스나이퍼



야생 도요새와 비슷하면서 몸집이 작고 날렵한 스나이프(snipe) 새가 있다. 참새보다 조금 더 큰 몸통, 유난히 길고 단단한 부리로 호수와 늪지의 진흙을 뒤져 벌레와 작은 물고기를 잡는다. 자연친화적인 보호색을 입고 날렵하게 날아다니는 스나이프는 민첩하고 지능도 뛰어나다. 18세기 인도를 점령한 영국군 장교들은 경쟁적으로 스나이프 사냥을 하곤 했다. 엄청나게 빠른 이 새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최고의 업사로 추앙받았고, 스나이퍼(sniper, 저격수)로 불렸다.

스나이퍼는 길리 슈트(Ghillie Suit) 같은 위장복을 입고 엄폐물 뒤에서 관측병과 2인 1조 혹은 혼자서 피격 대상이 저격 가능할 때까지 수십 시간 숨죽이며 찰라의 기회를 포착한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죽음의 그림자다. 고도로 훈련된 그 자체가 하나의 정밀한 인간 무기다. 소리없이 움직이는 저격수는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며, 여우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냉혹한 죽음의 전사들이다. 이들은 미동도 없이 웅크린 채 주변을 해결해야 한다. 드디어 목표물이 등장하면 원거리에서 M40, M24 라이플의 스코프를 사용하여 크로스헤어 정가운데에 피격 대상자를 조준한 후 한 방의 총탄으로 피격 대상을 죽인다. 이런 특등 저격수가 스나이퍼다.

단 한 방의 총탄으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저격전은 최고의 전술이다. 지휘관을 거꾸러뜨린 후 통신병, 운전병, 공용화기 사수

등 전투력의 핵심 요원들을 차례로 제거할 수 있다. 적을 죽여야 자신이 살아남는 처절한 전쟁에서 스나이퍼의 일발필살의 저격 기술은 분명 공포와 피를 부르는 살벌한 진혼곡 같다.

이라크 전쟁 초기에, ‘주바(juba)’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이라크 저항 세력의 스나이퍼가 미군 143명을 사살했다. 미 해병대 순찰대가 바그다드 거리를 조심스럽게 수색 중이었다. 갑자기 날아온 저격탄이 짧은 병사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자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저격당한 시신을 황급히 옮길 때쯤, 또 한 발의 총탄은 동료 병사를 얻거려 거꾸러뜨린다. 코란 독경 소리를 배경으로 ‘주바’의 실제 저격 장면을 동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퍼트린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소름끼치는 저격 장면은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붕괴시켰다. 인명 손실도 참담했지만 심리적 차원에서 파장은 크게 일어났고 이라크와의 전쟁 수행 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악명 높은 ‘주바’를 사살하기 위해 미 해병대 스나이퍼 네 명이 즉시 동원됐지만 실패했다.

2006년 1월, 새도우 저격부대의 최고 스나이퍼 제임스 질리랜드(James Gilleland) 하사가 부서진 병원 건물 4층에 숨어 있던 반군 저격수를 1,250m 떨어진 거리에서 M24 소총으로 사살했다. 세계 최정예 미 해병대를 공포에 떨게 하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게 울스툽시킨 ‘주바’ 스나이퍼가 제거되는 순간이었다.

무더위와 함께 시작한 6월 하순에는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방학 중 4기에 걸쳐 진행될 굿스푼 섬머캠프는 한인 청소년들의 신병 훈련소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될 한 주일간의 ‘영적’ 스나이퍼가 되는 훈련 일정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실제적인 훈련 일정이 짝 차 있다. 한인 청소년

자신에게 갇힌 죄수가 되지 말라



— 불우한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청소년들은 “영적 스나이퍼”이다.



들이 불우한 이웃의 고통스런 삶의 현장에서 저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체험학습 시간이 될 것이다.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후 평생 남을 겸손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누며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맥클린에 있는 워싱턴 한인교회는 김영봉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매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맥클린, 센터빌 두 캠퍼스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1,500여 명의 교우들을 위한 김 목사의 목회 비전이 신선하다. 김 목사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교인들의 영성과 삶에 더 관심을 두고 목회하려고 애쓴다. 성도 상호 간에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차세대(Rising Generation) 코리언 아메리칸을 위한 신앙교육에 정성을 다한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영성과 지성이 잘 어우러진 김 목사의 설교에는 깊은 감동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준비한 영혼의 젖줄기 같은 메시지에 흠뻑 취한 교우들은 어떻게 하면 들려 주신 바 말씀대로 겸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변화와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도전이 넘쳐난다.

김 목사는 지역선교와 해외선교가 균형 있게 시행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목양칼럼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에, 연말연시에, 나와 내 가족만이 함께 모여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갇힌 죄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를 내가 알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식비의 십일조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매년 추수감사절 즈음에 교우들을 독려하여 그로서리 카드를 구입

착한 기부



하게 했던 것은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마켓을 방문할 때 얻어지는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그로서리 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한 번이라도 더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목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손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이다.”라며 그로서리 카드 수집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매년 5,000달러 상당의 그로서리 카드가 모아지는데, 카드의 액면가는 10달러, 혹은 20달러로 세이프웨이, 자이언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들이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중 백미는 여러 목회자들이 김 목사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견고한 팀 사역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들이 먼저 숭선 수범하자 이에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그로서리 카드를 모았고, 그 중 1,500달러를 굿스푼에 전달했다.

굿스푼은 워싱턴 한인교회가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려는 가난 퇴치, 가난 치유의 귀한 뜻을 받들어 불우한 한인 동포와 라티노 도시빈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고 응급 숙소에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 심각한 질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장기간 일자리를 잃어 기초생활 수급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홀부 모 가정을 찾아 우선적으로 도움 예정이다. 부스러기 사랑과 정성이 모여져 가난한 도시빈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나눠 주는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최근 페어팩스 푸네널 홈에서 있었던 간소한 장례예배가 마음에 남는다. 시종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러진 영결예배 현장에는 거창한 조화(弔花) 행렬이 없다. 다만 강대상 뒤편에 푸네널 홈에서 만든 작은 꽃바구니 두 개와 고인(서언례)의 정갈한 마지막 모습을 모셔 놓은 캐스킷(casket) 위에 놓인 소박한 꽃바구니가 전부였다.

4월 29일자 조간신문을 읽다가 부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페어팩스 광역교육위원으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한인 사회와 미 주류 사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문일룡 변호사 모친의 부음 소식이었다. 6년간의 기나긴 와병 끝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훌쩍 이승을 떠나신 것이다. 놀랐던 가슴은 ‘조의금’ 전액을 굿스푼에 기부한다는 기사에 마음이 짠하게 젖어왔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더 성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명문 가문이지만 소중한 것을 빈민 구제와 영혼 전도에 사용하려고 소박한 장례 절차를 고집했던 것이다.

고인은 6년간 와병 중에 있으며 이런 날을 미리 예견한듯 유언을 남겼다. “본향으로 돌아갈 마지막 날이 되거든 검소하게 치러 달라. 경기 침체가 심각한 때 조문객들에게 괜한 부담되지 않도록 조화, 조의금은 절대 사절하라. 이생에서 다하지 못한 마지막 말을 묵묵히 바라봄으로 나눌 수 있는 조출한 장소와 시간만 있으면 된다. 부득이하게 조의금을 받게 되거든,

도시빈민들의 한 끼 점심식사를 위해 기부하라.”고. 생사의 갈림길에서조차 남은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살뜰히 챙기는 고인의 특별한 당부를 받은 유가족들이 밀려오는 슬픔 속에서도 준비한 예식이었다. 정갈하게 준비된 장례 예배는 그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드러졌다.

이윽고 초로의 만상주가 모친의 짧지만 굵었던 생애를 추모한 후 애잔하게 조가를 부른다. 그가 슬픔을 억누르며 부른 노래는 흔히 부르는 찬송곡이 아니었다. 1930년대, 양주동이 쓴 명시에 이홍렬이 곡을 붙인 ‘어머니 마음’이라는 곡이었다. 첫 번째 소절을 부를 때는 조문객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절은 생소하여 부끄러운 맘으로 경청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열리 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앓을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무치는 그리움에 부르는 이의 목이 눈물로 젖는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
하리오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3절이 끝날 무렵, 장내에는 슬픔의 파도가 출렁거린다. 유가족들의 호
느낌이 거세진다. 조문객들조차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굵은 눈물을
연신 짖어낸다. 일제 강점기에 자란 고인은 형편상 정식 학교교육을 받을



— 이웃에게 베푼 헌신적 사랑과 희생은 이들에게도 사랑의 흔적으로 가슴에 남게 될 것이다.

기회가 없었다. 고인의 또 다른 별칭은 ‘내가 뭐(I’m Ok)’다. 남편과 세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은 항상 맨 뒤로 남겨 놓았기 때문
이다. 육신이 쇠약해지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베푼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은 모든 이의 가슴에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사랑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완벽한 명품 비꾸냐 코트

안데스 4,000m 고지에 사는 낙타과의 동물로는 알빠까(Alpaca), 과나꼬(Guanaco), 비꾸냐(Vicuna), 야마(Llama) 네 종류다. 알빠까, 과나꼬, 비꾸냐는 안데스 인디오들의 언어로 이름이 붙여졌지만, 본래 야마의 본명은 까르구아(Kargua)였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제국을 점령한 후 처음 보는 까르구아를 보고 ‘꼬모 세 야마(Como se llama, 저 동물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동물들은 척박한 고산지에서 연명하던 가난한 인디오들에게 추위를 덜어 주는 따뜻한 모피를 제공하였고, 먹거리가 변변치 않은 저들에게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했던 친숙한 동물이다.

알빠까와 야마는 낙타 얼굴에 몸매와 덩치는 양과 비슷하다. 긴 속눈썹과 또렷한 눈망울, 부드럽고 탐스러운 긴 털이 온몸을 감싸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 주변이 원산지로 고지대에 잘 적응하였다. 원주민들은 알빠까와 야마를 가축으로 키웠고, 털을 깎아서 옷과 보자기, 침대 이불보로 만들어 사용했다. 생후 일 년 미만의 베이비 알빠까의 가슴 부분의 털을 최고로 친다. 털 70-80%, 화학사 20%를 섞어 직조한 제품은 실크보다 부드러우며 가볍고, 양모보다 따뜻하고 통풍성과 내구성이 강하다. 페루 리마에서 개최됐던 APEC 총회에 각국 정상들이 알빠까 판초를 입고 포즈를 취했었는데, 지구

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모직으로 평가받는다.

그런 알빠까보다 더 좋고, 더 희소가치가 있는 세계 최고의 명품이 있다. ‘안데스의 공주’로 불려지는 비꾸냐다. 비꾸냐 털로 만든 코트는 가볍고 두텁지 않아 착용감이 최고다. 겨울에 입으면 난로처럼 훈훈하고, 여름에 입으면 에어컨처럼 시원한 게 천연 고어텍스 같다. 위험한 천적을 피해 해발 4,000-5,000m 고지의 극한지로 올라와 적응한 비꾸냐는 평균 몸 길이 1.45-1.6m, 어깨 높이 75-85cm, 몸무게 35-65kg 정도이고,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채 야생으로만 자랄 뿐이다. 타조처럼 길고 날렵한 목선 위에 주먹만한 낙타 얼굴을 갖고 있다. 맑게 빛나는 커다란 눈망울은 눈 녹은 호수 같다. 날씬한 체구에 맵시 있게 짙은 네 다리, 몸통 전체를 뒤덮은 연갈색 털, 목과 앞가슴은 희다. 특히 앞가슴에 수북한 백색털은 세상 어떤 동물의 털보다 미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얼마나 성스럽게 생각하는지 페루 국기에 그려져 추앙받는다.

옛 잉카제국에서는 비꾸냐 털로 만든 의류는 오직 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큰 공훈을 세운 귀족이나 지방 영주들에게 하사하여 대단한 신뢰를 표시하는 징표로 사용되었다. 전국에서 선발한 비르히나 데 솔(Virgina de Sol,

태양의 처녀)들은 특정한 곳에 거하며 평생 잉카의 황제가 입을 비꾸냐 제복을 짜야 했다. 잉카 시대 때 페루, 칠레, 볼리비아 광활한 안데스에 500만 마리 넘게 방목됐던 비꾸냐는 한때 6천 마리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남획되었다. 급기야 멸종 위기에 직면하자 밀렵을 법으로 금했다. 현재 약 15만 마리로 개체 수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보호대상이다. 금싸라기처럼 귀한 비꾸냐 가슴털을 깎으면 3년간은 다시 깎을 수 없다. 스웨터 하나를 만들려면 비꾸냐 6마리 털이 필요하고, 코트 하나에는 무려 30마리의 털이 필요하다.

‘수퍼 리치’를 위한 목도리가 사백만 원, 니트가 오백만 원, 반코트가 사천만 원, 남성용 코트가 오천만 원을 넘는단다. 그러나 명품으로 치장하고서도 공허한 쓸렁함에 몸서리치는가 하면, 중고 옷을 입고서도 행복할 수 있다.

금년 겨울은 더 춥고 더 매서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서릿발 같다. 비록 비꾸냐 가슴털은 아니더라도 도시빈민들의 허전한 빈 가슴을 덮어 줄 허름한 담요라도 풍성히 안기고 싶다.

2부 라티노,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꾀다

라티노의 고난절, 부활절 풍습



라티노의 삶과 신앙 깊숙이 전통으로 뿌리 내린 쉼이나 쉼타(semana santa, 고난절)와 디아 데 레서렉씨온(dia de resurreccion, 부활절)은 국가 간, 지역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잠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은 대부분의 라티노들이 오락과 가무를 끊고 경건한 침묵으로 정지하는 시간이다.

북아메리카의 거대한 멕시코에서부터 남미 아르헨티나와 카리브해 도시국가까지 라틴아메리카는 33개국이다. 그중 중미 과테말라는 주변의 다른 나라보다 기독교인이 많다. 전체 인구 1,300만 명 중 96%가 기독교인이며 이중 개신교인은 45%를 차지한다.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많아 선교학 용어로 전도지역 내 미전도 추수지역으로 불리는 중남미 라틴아메리카는 전문인 선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초점이 일본, 북한, 중국, 인도, 중동과 아프리카 등 북위 10-40도에 집중되는 지금 시대에도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선교 황금어장임에 틀림없다.

16세기 초, 황금과 향료를 찾아 미지의 땅 중남미에 상륙한 스페인, 포르투갈 정복자와 함께 동행한 가톨릭 신부들의 포교를 통해 밀알처럼 인디오의 마음 밭에 떨어진 기독교는 그후 500년간 아름드리 거목으로 변신

했다. 문명세계에 공개되기를 거부하던 심심산골의 몽골계 아메리카 인디안 오 문명의 한복판까지 빠짐없이 포교되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마야 인디오와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많은 과테말라의 순박한 농부들 중 약 45%의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개종하여 개신교인이 되더니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훈련을 받고 거듭나서 주변 국가인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애난테일 노동시장에 오고 가는 약 400여 명의 라티노 중 과테말라 노동자들의 성품이 제일 온유한 편이다.

과테말라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쉼나 썬타를 경건하게 보낸다. 평소 낙천적인 성품을 가진 라티노라 할지라도 예수의 수난과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며 조용히 한주간을 보낸다. 쉼나 썬타 주간에는 즐겨 먹던 음식조차 철저히 구별한다. 농사와 축산업이 발달한 과테말라지만 이 기간만큼은 어떤 종류의 육식도 금한다.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어떤 종류의 육류와 가공품들은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않는다. 다만 모든 종류의 생선과 어패류는 먹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고난절 기간에는 고기 대신 생선 판매량이 부쩍 늘어난다.

그렇게 고난주간 성 금요일을 끝나면 과테말라 전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준비로 떠들썩하다. 과테말라 전역에서는 일요일 새벽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커다란 축제와 소동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진다.

새벽 3시 30분. 모든 사람들이 일찌감치 잠자리에서 일어나 깨끗이 준비한 흰옷을 갈아입는다. 30분간의 준비를 마치고 새벽 4시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듣도록 부활의 기쁜 소식을 크게 알린다. 과테말라 전통악기인 마림바는 물론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정없이 두드려댄다. 악



— 굿스폰 라티노교회 교우들은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

기가 없는 사람은 종, 방울, 양재기 그릇, 플라스틱, 금속으로 된 모든 통들을 두들기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축하한다. 속 시원하게 행사를 마친 후 그들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여 온 식구들이 정답게 함께 나눈다.

굿스폰 라티노교회 교우들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앞에서 있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를 준비한다. 과테말라에서처럼 온갖 종류의 악기를 두드리며 외칠 수는 없지만 다정한 한인 친구들 곁에서 부활의 증인 되려는 일에 마음이 공연히 설렌다.

콜라 서베이(KOLA Survey)를 마치며



2004년에 굿스폰이 처음 창립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과 우려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질문을 한다. “왜 라티노들만 돕는가?” 라고. 지난 7년 동안 굿스폰은 인종과 언어를 차별하지 않고, 라티노 도시 빈민 외에도 한인 동포, 탈북자, 흑인 홈리스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최선을 다해 섬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스폰은 일편단심 라티노만 돕고 있다는 오해를 여전히 받곤 한다. 굿스폰이 추구하는 구제와 선교방향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됐던 질문들일 것이다.

2007년, 애난테일, 켈모, 설링턴, 헨던 지역의 라티노 일일 노동자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분석하여 제1차 서베이(survey)를 발표했다. 이 서베이를 통해 굿스폰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라티노들은 누구인가를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2009년도 8월, 한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 상호 간에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2차 콜라 서베이(KOLA Survey,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Korean and Latino Immigrant Community Survey Report)를 시작했다. 양대 커뮤니티 간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한인 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은 혹서기(酷暑期)의 고단함을 마다하고, 두 달 동안 버지니아와 매릴랜드의 한인과 라티노 이민자들이 많이 방문하

는 식품점 입구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 작업이 지연되었지만, 최선을 다했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귀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반 자료 조사, 공공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민자 커뮤니티 협력 인식 조사 등 세 개 영역에 걸쳐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한인 216명, 라티노 156명 등 도합 372명의 양대 커뮤니티 이민자들이 응답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한인들이 라티노를 인식하는 것보다 라티노들이 한인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6.9%의 한인들이 라티노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75.6%의 라티노들이 한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또 41%의 라티노들은 한인들이 똑똑하다고 답했지만, 11%의 한인들만이 라티노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다고 답했다.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가 화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인들의 33.8%가 종교활동이라고 응답한 반면, 라티노들은 21.2%가 친목 행사를 꼽았다. 이민자 커뮤니티 간의 화합에 대해서는 67.6%의 한인과 69.9%의 라티노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공 서비스 분야 만족도 조사에서는 저렴한 보건 서비스가 제공되는가에 대해 3.2%의 한인과 0.1%의 라티노들만이 충분하다고 답하였으며, 저렴한 보육 서비스(child care)가 제공되는가에 대해서는 18.5%의 한인들과 25.6%의 라티노들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도서관 이용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한인 47.2%와 라티노 31.4%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한인 12.5%만이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라티노는 32.7%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콜라 서베이는 양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좋은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서로 더 많이 알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다양한 인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인과 라티노들이 유무상통하며 멋지게 교류하는 꿈을 그려본다.

레드카드를 받고 떠난 사람



굿스폰이 3년간 보살폈던 과테말떼꼬 바실리오(33세) 형제가 지난 연말 이민세관(ICE) 경찰에 연행되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모처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3개월 후에 과테말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도시빈민들을 초청해 성탄절 큰 잔치를 떠들썩하게 치른 다음날인 12월 26일 오후, 애난데일 236 도로변에 있는 CVS 근처에서 불심검문을 받았다. 지문 조회 결과, 그는 이미 지난해 10월 가르똥 아마릴요(Carton Amarillo, 노란색 경고 티켓)를 받은 요주의 인물이었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도심지 배회, 무단횡단, 은행 소유가 된 빈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거주하다 페어팩스 경찰에 몇 번인가 연행되기도 했다. 당시 페어팩스 경찰은 보석금 250달러를 징수한 후 방면하면서 엄중히 경고했다. “다시 또 연행될 경우 추방될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라.”

초췌한 모습으로 유치장에서 나와 고해성사처럼 했던 말이 컷전을 맴돈다. “술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진짜 개과천선하겠다. 아쉽지만 술과는 영원히 싸오(Chao, 결별)하겠다.”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며 흐느끼는 그가 애처로워 굿스폰 형제들의 집을 열어 다시 보금자리를 꾸미게 했다. 이번에는 진짜 심기일전하는 듯했다. 두 달 동안 베트남 건축업자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빌려 치렀던 보석금 원금과 이자도 모두 갚았다. 성탄절과 신년 새해에 식구들에게 보낼 설빔과 여섯 살배기 아들의 장난감을 쇼핑하면서 행복해 했다.

하지만 세밀의 심란함을 견디지 못해서일까? 술의 유혹은 또 다시 죽음보다 강하게 마수를 뻗어왔고, 끝내 가르똥 로호(Carton Rojo, 빨간색 추방 티켓)를 받고 퇴장 수속을 밟고 있다.

과테말라 썬 마르코스(San Marcos)가 고향인 바실리오 바스께스(Basilio Vasquez)가 굿스폰에 첫 발을 디딘 것은 2008년 3월 초다. 꽃샘추위가 남아 있던 초봄이라 아침 저녁으로 칼바람이 불고 서리발이 여전한 때였다. 165cm 정도의 중간 키, 45kg 정도 될 듯한 몸집을 가진 그는 영양실조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몽골계 마야 인디오의 피가 짙게 섞인 얼굴에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딱덩이처럼 큼직한 기미가 내려앉은 모습은 고단한 행로를 짐작케 했다. 그는 멕시코 마따모로스에서 리오 브라보(Rio Bravo) 강을 건너, 텍사스 휴스턴까지 나흘 동안 밤이면 으스스 달빛을 의지하여 황무지를 걸었다. 낮에는 바위 틈에 숨어 국경 수비대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피해야 했다. 햇볕에 까맣게 그슬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아무 연고 없는 애난데일에 도착해 낯선 굿스폰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애리조나 주를 필두로 전국 여러 주에서 반 이민법을 제정하여 “불체자 고우 홈”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동안 85만 명을 추방할 때도 페어팩스 카운티는 라티노 밀입국자에게 트랑길로(Tranquilo, 잠잠하다)했다. 프린스 윌리엄, 스테포드, 스왓실바니아, 메릴랜드 앤 아룬델 카운티와 달리 불체자에 대해 비교적 관용을 보였었다. 하지만 번번이 경고했음에도 매번 무시한 범법자에게는 추방이라는 레드카드를 꺼냈던 것이다.

그가 살았던 굿스폰 센터에는 옷가지 몇 벌과 지독한 난시를 교정하려고 한인 안경사가 정성껏 만들어 준 빨테 안경, 끼니 때마다 만들어 먹었던 포르펠라 옥수수가루 봉지가 반쯤 담긴 채 덩그러니 남아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귀향의 꿈에 젖어 있는 코털 호세



새 봄을 맞이한 애난데일 노동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쳐난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경기와 경제 침체는 불체자 라티노 도시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참에 라틴아메리카로 돌아갈까? 아니면 추위라도 피할 수 있게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옮겨볼까?’ 불황의 터널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따리를 꾸렸다 풀었다 갈팡질팡했던 그들이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봄을 맞이한 노동자들에게 모처럼 주어진 몇 시간짜리 일거리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철수’와 ‘영숙’이라는 호칭이 한국인에게 흔한 이름인 것처럼, ‘호세(Jose)’와 ‘마리아(Maria)’는 라티노에게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다. 열 명 중 두세 사람이 ‘호세’와 ‘마리아’이다 보니 구별하기 쉽게 별명을 붙여 부르곤 한다. 애난데일 노동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이색적인 별명들을 열거해 본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호세 알바레스(45세)의 별명은 ‘까베사 데 뽀요(ca-beza de pollo, 닭 대가리)’다. 건망증이 심해서라기보다는 심한 알코올중독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음하지 못하고, 가끔씩 필름이 끊기는 듯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뽀요’가 되었다. 역시 알코올중독자인 라파엘은 영어와 스페니시를 잘 말하는 이중언어자(bilingue)다. 그의 별명이 ‘까베유다(cabelluda, 털보)’인 것은 새까만 털로 얼굴 전체가 덮여 있기 때문이다.

마야 인디오 출신인 미겔은 200파운드가 넘는 건장한 체구를 가졌다. 배

가 남산만 해서 ‘고르도(gordo, 뚱보)’로 불린다. 지난 겨울 페어팩스 경찰에 연행되어 끝내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당한 시몬 알바레스는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 틀니를 끼고 있어 ‘라똥(raton, 쥐새끼)’으로 불린다. 터덜터덜 걷는 낡은 픽업을 타고 다니는 벤하민(58세)은 ‘쭈쭈(chucho, 인색한)’로 불린다.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욕심도 많아 남과 결코 나누지 않는 성품 때문이다. 옷브리지에 살면서 애난데일로 일거리를 찾아 올라오는 호세는 ‘아블라도르(hablador, 촉새)’다. 젊고 건장한 그는 한국인 주인 밑에서 일한 적이 있어 한국어와 영어도 곧잘 한다. 남의 이야기는 뒷전이고 끊임없이 주절거리며 촉새로 불려진다. 과테말라 후띠아빠(Jutiapa)가 고향인 호세 라모스(38세)의 별명은 ‘비고떼(bigote, 코털)’다. 작달막한 키, 까무잡잡한 얼굴색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짙은 콧수염을 달고 있어서이다. 윗입술을 덮다 못해 입 안으로까지 들어간 긴 코털이 지저분한 첫인상을 갖게 한다.

코털 호세가 미국 생활 8년만에 과테말라로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다. 고향에 남겨진 삼 남매와 그들을 양육하는 초로의 부모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호세가 미국에 밀입국하기 직전 갓 태어난 막내가 벌써 여덟 살 소년으로 컸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열 살 연하의 젊은 아내는 아이들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철부지 아내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부부 언약, 분노와 배신감, 부모 없이 방치된 세 아이 걱정에서 호세는 한동안 술독에 빠져 방황하다 페어팩스 유치장에 네 번이나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마지막 수감될 때는 46일간 수형생활을 해야 했다. 출감 이후, 6개월간 재활 프로그램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했다.

은행 소유의 빈 집에 몰래 살던 끝에 굿스푼 형제들의 집에 입주해 새 삶을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단다. 오늘도 호세는 고향집에서 세 아이를 돌보며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사는 귀향의 꿈에 젖는다.

어느 도시빈민의 비참한 말로



지난 주말, 애난데일 포플라 스트리트 초입에 위치한 낡은 주택 지하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문제의 주택은 허름한 개인주택으로 여러 해 동안 폐허처럼 닫혀 있었다. 출입문과 크고 작은 안팎의 모든 창문들에는 든든한 널판지가 덧대어 있다. 아마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 건물의 퇴락을 방지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주인 없는 집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여름이면 폐가를 삼킬듯이 장대하게 둘러싸곤 한다.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엘살바돌 출신 윌리엄 마르틴(32세)이다. 평소 그곳은 라티노 도시빈민들의 비밀 아지트처럼 사용되었던 곳이다. 밤이면 대여섯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몰래 모여 밤새 술추렴을 벌였고, 취기가 오르면 쓰러져 잠을 청하던 은밀한 거주지였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모든 것이 차단된 집 내부는 대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으시시하다.

지난 주말, 마르틴이 발견한 시신은 너무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이었다. 평소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 여럿이 널부러져 있을 때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다가 발에 무엇인가 걸려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심스레 휴대폰을 열어 불빛에 비추어 보니 그 물체는 온몸이 처참하게 훼손된 남자의 시신이었다. 흰칠한 키, 목 언저리까지 길게 형클어진 장발머리, 그러나 얼굴과 온몸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 도시빈민들을 위한 기도와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

빈 집에는 라티노 홈리스뿐만 아니라 사납고 공격적인 짐승들이 함께 동지를 틀고 있었다. 토니가 술에 취해 비몽사몽 간에 잠에 빠져들자 대담해진 짐승들이 집단으로 공격한 것이다. 어둠의 포식자들이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양쪽 광대뼈가 하얗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얼굴이 훼손되고, 신체 여러 부분이 손상된 채 처참한 몰골로 유기되었다. 엽기적인 모습에 기겁을 한 마르틴의 정강이 사이로 짐승들이 도망쳤다. 마르틴이 토니의 주검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토니가 평소 검고 긴 머리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살바돌이 고향인 토니(26세)가 굿스폰에 오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초 여름부터다. 구부정하게 큰 키, 길게 기른 검은 머리는 곱슬거린 채 엉겨 있었다. 얼굴은 심각한 주독 때문에 홍시처럼 빨갱게 달아 있었다. 함께 동행한 그의 술 친구들도 행색이 똑같았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주린 배를

채우려고 굿스푼 선교회를 찾았던 것이다. 술독에 빠졌다 나온 듯한 그들에게서는 말할 때마다 역한 술냄새가 코를 찔렀다. 험령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토니는 큼직한 운동화 위로 두툼하고 투박하게 생긴 검정 플라 스틱 발찌를 차고 있었다. 이미 여러 차례 페어팩스 경찰소 유치장을 전전 하던 그는 보호감찰 대상자로 전자 GPS를 차고 다녔던 것이다. 매일 거리 급식을 받기 위해 굿스푼에 오는 토니와 주정뱅이 동료들, 예배시간이 따분한지 한쪽 곁에 장승처럼 서서 무료해 한다. 점심 배식을 마치고 나면 뒷정리를 해준다고 떠들썩하다. 순서대로 용변을 보고 샤워를 말끔히 한 후 기 나긴 밤에 요기할 음식을 조리하여 이지트로 향하곤 했다.

토니가 굿스푼에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이 3월 5일 토요일이다. 예배가 끝난 후 토니에게 식사기도를 부탁했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 베시시 웃던 그가 짙막하게 기도를 마치고 급식을 받았다. 그가 굿스푼과 동료들 에게 남긴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카메라에 담은 음식을 받아든 토니의 모습 이 그의 영정 사진이 되고 말았다. 사회 부적응자, 알코올 중독자, 거주지 무단 침입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괴심이 마 음을 후벼판다.

라 그란데와 만두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라티노들에게 굿스푼은 가끔 신문고처럼 사용 될 때가 있다. 한인 업주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굿스푼을 찾아와 마음에 맺혔던 하소연을 풀어놓는다. 부끄 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대신 사과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분함을 가라 앉히지 못하는 당사자 앞에서, 그가 내민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설명할라고 하면 상대방은 '너나 잘 하세요.' 식으로 통명스럽게 말한 뒤 전화를 끊는다.

신문고를 울릴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

한인 동포들 중 몇몇은 타인종을 홀대한다. 몇 개월치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하거나 부도 수표를 쥐어 주고 얼렁뚱땅 무마시키려 한다. 낮을 불히게 하는 성희롱에다가 말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성격을 주체하지 못해 욕을 퍼붓고, 끝내는 손찌검까지 하는 한인도 있다. 한인에 대한 혐오스런 기억을 주홍글씨처럼 간직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반면, 타인종 종업원을 친가족처럼 보살피며 후생복지에도 최선을 다 하는 모범적인 한인이 있어 흐뭇하다. 지난 주 토요일 저녁, 다섯 명의 심사위원이 두 시간여에 걸쳐 '2011년 굿스푼 인종 화합 어워드(The 7th Annual Good Spoon Awards for Advancing Racial Harmony)'를 심사했다. 대상(the Grand Prize)에는 메릴랜드 리버데일에서 인터내셔널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La Grande(라 그란데, 이수영 사장)’이 차지했다. 특별상(the Special Prize)에는 워싱턴 DC 듀폰서클과 의사당 옆에 위치한 ‘만두(Mandu)’ 레스토랑 이예순 사장이 차지했다.

‘라 그란데’ 이수영 사장은 리버데일 라티노 밀집 지역에서 인터내셔널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중남미 출신 28명의 라티노 직원들을 친가족처럼 직업훈련을 시켜 함께 사업을 키웠다. 타인종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봉급과 승진 기회를 주었으며, 5,000명 이상의 주변의 도시빈민 라티노 이웃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점심 구제사역(무료 사랑의 도시락)을 펼치므로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선구자적인 사랑을 실천했다. ‘만두’ 레스토랑 이예순 사장은 14년간 함께 일하는 썬타 마리아 씨를 비롯한 다섯 명의 라티노 직원들을 한인 어머니 특유의 모성애와 사랑으로 돌보았다. 자상하게 한식 조리 기술을 가르쳤다. 그 결과로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고추장, 찌개류를 직접 담그고 만들 줄 아는 일류 한식 주방장으로 키워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류 음식 전도사로 기여하게 했다.

2005년에 제정된 굿스푼 인종 화합 어워드는 다양한 인종, 다민족 구성원을 포용하여 서로 돕고 존중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경영의 모범을 보이는 기업 및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이들 단체를 널리 알림으로써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는 데 기여하려고 제정됐는데 2011년에 벌써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훈훈하게 미소짓게 하는 ‘라 그란데’와 ‘만두’와 같은 기업이 한인 동포 사회에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아반도나도(Abandonado)



지난 11월 중순, 애난데일 중심가에 위치한 페어몬트 가든(Fairmonte Garden) 아파트 공터에서 엽기적으로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겹겹이 쌓여진 검정 쓰레기 봉지에 담겨 있었던 시신은 신체 일부가 잘려 있었고,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살해된 지 10여 일이 지나 발견된 터라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아파트와 웬디스 햄버거 사이에 담장이 둘러져 있는데 잡목, 잡풀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일반인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라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으스스한 골목에 슬그머니 버려진 시체, 완전 범죄를 목표로 했을 시신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들은 라티노 아반도나도(Abandonado, 흠리스)들이었다. 평소 그 골목은 리틀 리버 턴파이크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던 라티노들이 급히 달려가 대소변을 보던 곳이고, 월세를 내지 못해 아파트에서 쫓겨나 당장 오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비바람을 피해 노숙하는 공간이다. 노동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떠들썩하게 술추렴을 하는 해방구처럼 사용되는 곳이다.

목격자들의 진술이 섬뜩하다. 11월 어느 날, 아파트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쓰레기더미가 던져졌다. 여러 겹으로 쌓여진 검정 쓰레기 봉지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다. 얼마 후 건장한 라티노 한사람이 경계하면서 다가와 잡풀이 가장 무성한 곳으로 끌어갔고, 잡풀과 낙엽으로 덮어

불체자 라티노의 가슴 시린 고백



위장시킨 채 유유히 사라졌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 까뜨라초(온두라스 출신 라티노)와 그의 내연녀 그리고 과테말라 출신의 루이스 리도(31세)가 함께 술을 마시다 격분하여 싸움이 붙었다. 까뜨라초가 루이스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꾸칠료(Cuchillo, 칼)로 찔렀다. 심각한 자상을 입은 루이스의 상처에서 출혈이 계속됐고, 끝내 절명한 것이다.

키가 크고 성품이 온화했던 루이스는 사이딩 헬퍼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었다. 신규 건축이 뜸하자 애난데일 굿스푼 거리 급식 현장에 여러 번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급식을 받았던 친숙한 라티노였다. 술기운이 거나해지면서 까뜨라초의 내연녀와 몰래 정을 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비밀스런 에나모라도(enamorado, 연정)는 끝내 비극적 싸움으로 번졌고, 이글거리는 시기심은 결국 친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야 말았다. 사체를 토막을 낸 후 쓰레기 봉지에 담아 창문 너머로 투기한 까뜨라초는 야반도주하고 말았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후 이상한 악취에 코를 쥐던 라티노 야반도주나도들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다. 라티노 주요 방송국, 신문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취재 경쟁을 벌였다.

불체자로, 도시빈민으로 떠돌다 객사한 라티노들의 장례는 너무 서글프다. 경찰의 부검을 마치면, 연고자에게 시신을 인계한다. 중남미 가족에게 기별을 넣는다. 청천벽력 같은 부음 소식을 듣는 가족들은 마지막 볼 수 있도록 운구를 요청한다. 시신을 방부처리 한 후 냉동관에 넣어 고향으로 운구하는데 최소 6천 달러 정도가 든다. 작은 모금함에 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운구비 모금을 한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보지만 불과 몇 백 불도 안 된다. 저들이 다시 알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적 돌봄과 따뜻한 복음 제시, 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때다.

과테말라 아마띠플란이 고향인 썬띠아고 투치(Santiago Tuch, 39세)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둔 순박한 캄페시노(campecino, 농부)였다. 그는 얇은 산자락에 커피나무 50그루를 심었다. 열심히 경작하면 일 년 내내 일가친척들이 구수하게 마실 수 있는 과테말라 특산품 커피가 주렁주렁 열린다. 어미 닭 체온이 아직 남아 있는 계란을 매일 닭장에서 20여 개씩 꺼내 올망졸망한 새 남매 영양거리로 삼았다. 실한 두 마리 젖소에서 젖을 내어 자녀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주었고, 먹고 남은 것은 손수 치즈를 만들어 식구들의 군것질거리로 삼던 전형적인 과테말라 농부 출신이다.

2002년 7월. 썬띠아고는 라디오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듣는다. 밀입국을 알선하는 코요테 마피아가 라디오에서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안전하고 빠르게 미국행을 안내한다. 친절하고 경험 많은 에이전트가 보름만에 미국 원하는 도시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돕고, 시간당 25달러를 벌 수 있는 닭공장에 취직이 보장된다. 4개월이면 밀입국 수수비를 변제하고 버는 대로 가져올 수 있다.”

썬띠아고를 포함한 마음이 동한 140여 명의 희망자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모이지자 두 명의 코요테 마피아들이 따라 붙으며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까지 안내한다. 노예상인이 인신매매 하듯 한 사람당 1,500달러를 쥐어 주고서야 멕시코 국경 안으로 들어설 수 있다.

멕시코 코요테가 준비한 커다란 트레일러에 짐짝처럼 밀입국 희망자들이 실린다. 밤낮없이 멕시코를 종단하여 텍사스 주경계까지 60시간을 논스톱으로 달린다. 개인 용무에 따라 달리는 차가 서는 법은 없다. 여자 밀입국 희망자 40여 명을 포함한 모두는 트레일러에서 대소변을 봐야 한다. 국경으로 질주하는 차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불안에 떠는 각 사람에게 배당되는 것은 1리터짜리 물병 하나와 샌드위치 한 개가 전부이다.

이윽고 텍사스와 멕시코 경계인 마따모로스(matamoros)에 도착하면 다시 미 국경을 넘겨 주는 미국 코요테에게 한 사람당 3,000달러를 건네야 한다.

싼띠아고와 일행은 아리조나에서부터 발원하여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심이 깊고 강폭이 넓은 리오 그란데(rio grande) 강을 건너야 한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여자와 청소년들은 별도로 300달러를 더 주고 코요테가 미리 마련한 자동차 타이어 튜브에 몸을 맡기고 일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싘띠아고 옆에서 3시간여 도강을 하던 엘살바돌 아가씨와 과테말라 청소년 하나가 리오 그란데 강에 빠져 순식간에 사라졌다. 낙오하여 죽은 자를 돌아볼 여유는 코요테나 밀입국 라티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를 물리며 흐르는 가난의 족쇄를 끊어보고자 과테말라 시골집 땅과 집을 은행에 저당잡히고 빌린 천문학적인 돈이 이미 건네졌고, 생명을 걸고 넘는 고난의 긴 여정에 오로지 자기 몸 하나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가까스로 물에 오르고 나면 숨 고를 새 없이 휴스턴까지 26시간 동안의 황량한 사막길을 밤에만 행군해야 한다. 국경을 단속하기 위해 동원된 수비대의 헬리콥터와 지프차가 수시로 왕래하는 살벌한 곳에서 밀입국자의 간담이 녹는다. 뿐만 아니다. 은근슬쩍 일행의 후미를 쫓는 배고픈 코요테와

여우가 주변을 돌며 으르렁거리면 머리털이 선다.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행인의 발목을 겨냥하여 고개를 쳐드는 불뱀과 어린아이 주먹만한 검은 전갈이 들끓는 사막에서 매 해 약 3,000명 이상이 물려 죽는다. 오지에서 서바이벌 훈련받는 특공대처럼 한순간도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휴스턴에 도착하면 다시 1,000달러를 주고 15인승 카고벤에 40명씩 실려 미 전국을 향해 뿔뿔히 흩어진다. 버지니아, 뉴욕 등 동부지역을 선택한 싘띠아고는 과테말라에서부터 동행한 일행과 함께 애난 데일로 스며든다.

브로커의 감언이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는 도착한지 한 달만에 알게 된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엄동설한을 지나는 동안 거리를 배회하지만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다. 모처럼 얻은 일자리는 불체자란 이유로 노임을 떼이거나 처음 약속과 달리 깎고 주는 속상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옷을 닦는지 전신에 돌아난 붉은 반점 때문에 고생도 했다. 돈 때문에 생이별한 가족이 그리워서 가끔씩 눈물을 짓는 그는 네 살배기 막내딸이 약하게 태어나 사경을 헤멜 때 곁에서 돌봐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아직 갚지 못한 돈의 이자가 눈덩이 같다. 돈 걱정에, 생이별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떳떳하지 못한 신분 때문에, 인간미 없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왜 그리 섭섭한지 서러움의 눈물이 고인다.

한 달 노임이 만 원짜리 한 장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 멕시코의 5월 5일은 전승기념일이다. 1862년 4,500명의 멕시코인들은 6,000명의 프랑스 군대에 맞서 4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승리한다. 이후 9월 16일 독립기념일과 ‘썩꼬 데 마요(5월 5일)’는 멕시코 역사와 문화의 주요 축제의 날이 되었다. 멕시코인들이 대체를 이루는 LA에서 이날은 대규모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 한마당이 된다. 소매 매출도 연말 대목 못지 않은 날이다.

1991년 5월 5일 워싱턴 DC 노스웨스트 지역 16가에 위치한 마운트 플레즌트(Mount Pleasant)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0여 명의 엘살바돌 청년들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술에 취해 거리를 활보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진압 과정 중 안젤라 제웰 경찰이 다니엘 고메스(Daniel Gomez)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격분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수십 명의 라티노들이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싸게오(saqueo, 폭동, 약탈)는 3일간 이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230여 명이 체포·구금되었다. 50명이 부상당했고, 60대의 경찰 순찰 차량과 거리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이 불태워졌다. 거리 양 옆의 점포 30개는 약탈당하고 전소되었다.

일 년 뒤인 1992년 4월 29일, LA 사우스센트럴 흑인 지역에서 참혹한 폭동이 일어났다. 도망치는 로드니 킹을 백인 경찰들이 무참하게 구타하는 장면을 한 시민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 미국

에 방영한 것이다. 당시 로드니 킹은 캔 푸드로 안면을 구타당해 함몰되었고, 쓰러진 그의 발은 경찰봉에 으스러졌다. 미국은 물론 온 세상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 년 동안의 심리가 드디어 마쳐지고 재판이 있던 날, 시미벨리 순회법원에 피고로 나온 세 명의 백인 경찰관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도화선에 불을 붙힌 것처럼 불공정 재판소식은 빠른 속도로 흑인 밀집지역 전체로 퍼지면서 폭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흑인 폭도들에 라티노 도시빈민들이 가세하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했고, 불을 지르며 한인타운까지 이르렀다. 당시 경찰은 베버리힐스 고급 주택가 외곽을 장승처럼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폭동 나흘째인 5월 2일, 6,0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되면서 폭동은 가가스로 진압되었다. 58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당했다. 1만 2,111명이 구속되었고, 크고 작은 방화가 7,000건에 달했다. 7억 5,000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두 백인 경찰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로드니 킹은 38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폭동에 쫓발이 된 지역에는 150억 달러의 연방정부 투자가 이뤄졌다. 피땀으로 일군 한인들의 점포 3,000여 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한인타운의 재산 피해액만 3억 달러가 넘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속출했다.

“도대체 이 돈의 값어치는 얼마나 됩니까?”

3월 초 컬모 거리 급식 현장에서 만난 과테말라 출신의 에두아르도(18세)는 씹깃돈처럼 고이 간직했던 만 원짜리 신권 화폐를 펼쳐 보였다. 아직 꽃샘 추위가 날카롭던 날, 두툼한 외투를 입은 채 점심을 서둘러 먹고 다가온 그의 질문이 충격적이었다. 그가 내민 만 원은 여러 번 접어 꼬깃꼬깃했지만 비교적 깨끗했다. 어디서 났는지 물었더니 작년 12월까지 플로리다

돌잔치를 라티노 노동자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짓는 한 라티노 노동자,
이들의 웃음이
언제나 환하기를 기도한다.

마이애미 한국 식당에서 일했다. 주방 설거지, 바닥 청소 등 매주 70시간 씩 총 490시간을 넘게 일하고 한 달 임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한국 식당의 주인은 갓 밀입국하여 물정 모르는 어린 라티노에게 만 원을 쥐어 주면서 미화 1,500달러 값어치가 된다고 여러 번 다독거렸다.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했던 돈이 고작 10달러도 안 된다는 설명을 듣자 에두아르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분노로 일그러진다. 측은히 바라보는 내 목언저리가 빨갛게 타올라온다.

“꼬레아노 무이 말로(Coreano Muy Malo, 한국인 너무 나빴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찬 그의 하소연이 워싱턴 한인사회에 폭동이라는 불씨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몇 달째 마음이 아려온다.

굿스폰 선교회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에 애난데일 메시아장로교회 주차장에서 라티노 노동자들을 위해 거리 급식을 나누고 있다. 일주일째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삼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던 7월 25일은 이예지 아기의 첫돌이기도 하다.

애쉬번에 거주하는 마취 전문의 이승규 씨 셋째 딸 예지는 세 살배기 언니 은지와 함께 유모차에 나란히 앉은 채 첫 번째 생일상을 거리에서 맞이했다. 초대된 손님은 말끔히 옷을 입은 한인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배고픔과 무더위에 지쳐 거리 급식을 받기 위해 찾아온 중남미 출신의 라티노 노동자들이었다. 덥수룩한 수염, 질끈 눌러 쓴 모자, 땀에 젖어 움직일 때마다 시큼털털한 체취가 강하게 풍기는 이방 손님들은 고사리같이 어여쁜 예지의 첫돌 잔치에 깜짝 놀랐고, 이윽고 환하게 웃음지으며 진심어린 축하를 마다하지 않았다. 예지의 친할머니 원용춘 씨와 여러 동료들이 함께 만든 돌잔치 음식은 풍성했고 정성이 가득 깃들었다. 따뜻하게 지은 밥, 갈비, 불고기와 야채 볶음, 달큰한 잡채, 샐러드, 걸절이와 생일케이크를 후식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푸짐한 음식들은 도시락에 담겨져 때마침 거리 급식 현장을 찾은 라티노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다.

한인 청소년들의 밴드 반주에 맞춰 스페니쉬와 영어로 불려진 생일축하 노래는 무더위를 식혀 주는 산들바람 같았고, 왁자지껄한 환영과 노래에도



- 이승규 씨의 삼 남매는 매번 첫 돌잔치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눈 특별한 어린이들이다.

전혀 놀라지 않았던 예지는 할머니 원용춘 씨의 품에 안겨 생긋히 웃으며 첫돌의 감격을 만끽하는 듯했다.

이승규 씨의 은수(5세), 은지(3세), 예지(1세) 삼 남매는 매번 첫 돌잔치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눈 특별한 어린이들이 되었다. 가정의 경사가 있는 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가난한 이웃과 함께한 돌잔치는 벌써 세 번째다. 첫째 아들 은수는 다섯 살 꼬마다. 2007년 당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던 할아버지 이재영 씨와 식구들이 설렁탕 도시빈민 지역에서 거행한 바 있었다. 둘째 은지 역시 2009년 애난데일 라티노 노동자들과 함께 돌잔치를 거행한 바 있다. 그리고 셋째 예지의 돌잔치도 애난데일에서 조출하게 빈민들과 함께 드러졌던 것이다.

이날 돌잔치를 준비한 예지의 조모 원용춘 씨는 “셋째 손녀의 돌잔치에 라티노 노동자들이 함께해서 자리가 더욱 빛났다.”며 돌잔치 상을 함께 받은 이방인 손님들에게 도리어 감사를 전했다.

|| 읽을 거리 ② ||

살인을 일삼는 마약 운반 마피아

고대 그리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아편(Opium)을 ‘고통의 구원자’로 묘사했다. 하늘거리는 몸매에 청초한 꽃을 피우는 양귀비, 꽃이 지면 동그랗게 씨방을 맺는다. 씨방에 면도날로 칼집을 주면 서럽도록 하얀 눈물을 쏟아낸다. 진액은 매우 쓴맛을 내는 ‘아편’이 된다.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인들은 진정제, 수면제로, 종교적 황홀경을 위해 아편을 사용했다.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AD 7세기경 인도에 전해졌고, 17세기에는 포르투갈 무역상들을 통해 중국에도 소개됐다. 독일 화학자 프리드리히 세르튀르너(Friedrich W. Serturmer)는 아편 알칼로이드(C₁₇H₁₉NO₃)를 추출하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과 음악의 신인 ‘모르페우스(Morpheus)’를 본떠 모르핀(Morphine)이라고 명명했다. 드레서(Dresser)는 모르핀에서 순도 90%의 헤로인(Heroin)을 추출했다. 바이엘 제약회사가 시판용 헤로인을 생산했다. 모르핀에서 순도 약 0.7~2.5%로 만든 코데인(Codeine)은 타이레놀 감기약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 코까(Coca) 잎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안데스 지역의 잉카 제국에서 유래한다.

15세기 신대륙 발견 후, 19세기 독립할 때까지 중남미 원주민들은 약 300여 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황금과 향료를 수탈

하기 위해 원주민을 혹독하게 착취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원주민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사망하였다. 수탈자들은 노동 품삯을 코카 잎으로 지불했다. 코카 잎에는 허기, 피로,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마약 성분이 있어 원주민들은 코카 잎에 중독돼 갔고,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력 착취에 길들여져 갔다. 1860년 독일 화학자 니에만(Nieman)이 코카 잎에서 코카인 알칼로이드(C₁₇H₂₁NO₄)를 추출하였는데 유럽 사회에 만연된 모르핀 중독 치료약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정신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는 “위장장애와 천식에 특효약”이라고 격찬하였다. 예전의 코카콜라에는 미량의 코카인이 담겨 있었다. 학명이 칸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로 불리는 마리화나의 원산지는 아시아다. 라틴아메리카의 습하고 무더운 곳에서 자라는 THC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마리화나는 해시시(Hashish), 혹은 해시시 오일로 주로 이용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마약과 관련되어 거래되는 검은 돈은 5,000억 달러 규모다. 라틴아메리카 최대 마약 생산국은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로, 마리화나, 코카인, 히로뽕 수출 국가다. 세계 최대 마약 소비시장이 미국이다 보니 멕시코 국경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못지 않은 전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밀입국을 시도하는 수백만 명의 라티노들, 밀반입이 성공하기만

하면 지상 최고의 수익성을 보장받는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코요테 마피아는 밀입국자를 넘겨 주며 수천 달러를 벌어들인다. 나르코트라히칸떼(마약 운반 마피아)는 이권과 관련되면 살벌한 폭력과 살인을 불사한다. 그들 중 일부는 테러, 게릴라 조직들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마약을 생산, 운반하는 조직으로 부패한 정치권력이 뒤를 받쳐 주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불체자 밀입국, 마약 밀반입을 위해 동원되는 기상천외한 방법은 허를 내두를 정도로 다양하다.

국경도시에서 마약과 돈을 거머쥔 채 살인적 폭력을 휘두르는 나르코트라히칸떼는 파우스트의 마녀임에 틀림없다.

굿스푼 임시 쉼터에 살고 있는 마라 바르가스(33세)의 나모라도(namorado, 애인)이자 마라의 외동딸 벨렌(belen, 베들레헴)의 아버지인 까를로스(34세)는 멕시코 마약 운반 마피아 하부 조직원이다. 페루 두번째 도시 삐우라(Piura) 출신 마라가 미 국경을 넘으려고 멕시코 국경도시 쏘노라(Sonora)에 잠시 머물 때 운명적인 위험한 만남을 가졌었다. 이미 굿스푼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 그의 부친 길레르모 바르가스(54세) 곁으로 왔을 때는 까를로스의 아기를 갖고 있었다. 작은 앙헬(angel, 천사) 벨렌이 태어나 이유식을 마치고 아장아장 걸던 어느날, 까를로스가 홀연히 마라 숙소에 나타났다. 반가움도

잠시, 둘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다. 주먹다짐이 오갔고, 점점 살기 가득한 폭력이 빈번하자 마리는 페어팩스 경찰에 신고했고, 둘은 으르렁거리며 위험한 연정을 이어가야 했다.

까를로스의 미국에서의 호구지책은 마약 밀매였다. 불법 변호판을 단 미니 벤을 끌고 다니며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팔았다. 엄지 손톱만한 지퍼 백에 마리화나를 담으면 20달러이고, 같은 지퍼 백에 코카인을 담으면 50달러에 팔린다. 마약 밀래로 벌은 돈이 물처럼 흔하게 되자 까를로스의 면모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져 갔다. 차려입은 명품 옷에 귀티가 자르르 흘렀고, 새까만 레이 벤을 끼고 한껏 멋을 낸 그는 길거리 라티노 일일 노동자와는 전혀 격이 다른 모습이었다. 찰라적인 몽롱한 환각이 끝나고 나면 이내 죽음의 공포처럼 덮쳐오는 불안한 떨림, 가학적인 의심과 두려움. 불안을 견디지 못해 동물처럼 절규하는 마약 중독자의 더러운 돈으로 잠시 꿀을 빨던 시간이 덧 없이 흘러가버린 어느날, 은밀히 그를 지켜보던 페어팩스 마약 수사대의 포위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물에 걸린 새처럼 체포되었고 한동안 실형을 받아 감옥 살이를 한 후 멕시코로 추방되고 말았다.

가난한 도시빈민들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마약(麻藥, narcotic) 밀매상들의 검은 손이 점점 더 농후해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3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라틴 아메리카의 명소

볼리비아의 소금호수



볼리비아 수도 라 빠스 남서쪽 300km 지점에 세계 최대 소금호수 찰라르 데 우유니(Salar de Uyuni)가 있다. 볼리비아 뽀또시(potoci)와 오루로 주에 속하며 칠레와는 안데스 산맥으로 국경을 이룬다. 건기에는 소금사막으로, 우기에는 소금호수로 불리는 우유니는 구글 어스를 통해 그 장대한 넓이와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유니는 1만 582km² 너비로 남한 땅 면적의 1/9에 해당한다. 해발 3,656m 고원에 위치한 세계 최 고지대에 있는 소금호수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호수는 새파란 코발트 빛을 발한다. 그 옛날 지각 변동 때 바다가 솟아 올랐고,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오랜 세월 호수의 물이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아 형성되었다. 우기인 12-3월에는 20-30cm의 물이 고여 얇은 호수가 된다. 물이 찰랑찰랑한 소금 호수는 강렬한 햇살과 푸른 하늘과 하얀 몽개 구름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하늘과 땅을 고스란히 호수에 가둬두는 절경을 연출한다. 별빛을 굴절시킬 공해물질이 전혀 없는 청정지역 호수의 밤은 도심지 하늘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과 울긋불긋한 은하수까지 초대하여 놀랄 만한 천체 쇼를 벌인다.

우유니의 소금은 총 100억 톤 정도로, 90%가 식용이고 나머지는 가축용이다. 두께는 1m에서 120m로 층이 다양하다. 각종 미네랄이 골고루 담겨



— 볼리비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소금호수 쉘라르 데 우유니

있는 순도 높은 우유니 소금은 볼리비아 전 국민이 수천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천일염을 구하기 위해 고단하게 염전을 만들고,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허리가 끊어져라 고무래질로 소금 결정을 모으는 고단한 수고가 필요치 않다. 우유니에서는 바닥에서 긁어낸 소금 결정을 이글루처럼 수북히 쌓아놓은 후 불에 굽고 포장하여 천일염으로 시장에 낸다.

안데스 설산과 연결된 거대한 빙하 호수처럼 보이는 순백의 우유니 평원에 핑크색 플라밍고(flamingo, 홍학)가 군무를 이루면 한 폭의 멋진 수채화가 된다. 꽃 속의 꿀을 찾아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뼈까플로레스(picaflores, 벌새), 그리고 잉카 인디오들이 심어놓은 천 년이 넘은 5m 높이의 거대한 선인장이 호수지기로 고고히 서 있다. 선인장은 일 년에 고작 1cm밖에 자라지 못한다. 염기서린 호수의 잔물, 안데스 고산지의 혹한의 추위에도

묵묵히 인고의 덕을 쌓는 선인장은 외형의 성장보다는 내면의 성숙으로 소금호수지기로 남아 있다.

쉘라르 데 우유니가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호수 소금 밑에 휴대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리튬(lithium)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백색의 경금속, 물과 공기를 만나면 급속히 산화되면서 열전도체용 합금으로 사용되는 리튬은 가볍고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재료이다. 우유니의 리튬 매장량은 540만 톤으로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70%를 차지하고 있다. 양질의 리튬의 양을 현 시세로 환산하면 5,150억 달러 정도이다.

남미 대륙에서도 손꼽히는 소금호수를 방문하는 나그네를 위해 지어진 우유니 공항 청사는 소금 멧장을 잘라서 지었다. 고단한 심신을 쉬어 갈 호텔도 소금 널판지로 지었다. 우유니 최고의 호텔은 루나 쉘라다(Luna salada)다. 눈길을 걸을 때 뾰드득 나는 소리처럼 고운 소금을 바닥에 깔고, 소금 기둥으로 호텔 뼈대를 세웠다. 침대, 식탁, 의자 모든 가구가 소금으로 만들어졌다. 심지어 인테리어 아름다운 소품들도 갖가지 모양의 천연 소금덩이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다.

볼리비아의 노새 알파카(alpaca)를 타고 관광한 다음, 미네랄이 녹아서 흐르는 노천 온천에서 고단한 몸을 적실 수 있다. 숨겨진 비경을 찾는 순례자의 발길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무궁무진한 리튬을 선점하려는 호사가의 쟁 걸음으로 우유니는 이래저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항구 리오 데 자네이로



남미 대륙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 국가다.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브라질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가, 지상 최대 규모의 삼바 카르나발, FIFA 랭킹 최정상의 축구... 브라질은 일일이 다 수식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제국이다.

포르투갈의 항해사이면서 군인인 페드로 알바레스 까브랄(Pedro Alvarez Cabral)은 함선 13척, 선원 1,500명, 항해를 돕는 디아스와 함께 아프리카를 거쳐 인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더 많은 향료를 확보하라는 황제의 명에 무역거점을 만들려는 의도에서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앞 바다에서 강력하게 부는 무역풍과 적도 해류에 밀려 브라질 바이아주의 포르토 세구로(Porto Seguro)에 도착한 것이 1500년 4월이다. 까브랄은 신대륙을 베라 꾸르스(Vera cruz, 십자가를 보라)라고 명명했다가 질 좋은 염료를 무한정 공급하는 ‘빠우 브라질(pau brasil)’ 나무가 지천인 것을 보고 브라질로 이름을 바꿨다.

1494년 당시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왕을 초대하여 신대륙 발견 시 서로 분쟁이 없도록 ‘빠르또나또’ 조약을 체결하고 중재한다. 서경 46도 동쪽은 포르투갈, 그 서쪽은 스페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점령한 땅에 자비를 들여 가톨릭 성당을 짓고, 신부를 파송하여 기독교 신

앙을 포교하도록 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하자 포르투갈 왕실은 1808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로 천도했고, 리오 북쪽 해발 800m에 위치한 빼뜨로폴리스에 왕궁을 세웠다. 지금의 행정 수도 브라질리아로 옮긴 것은 1960년이다. ‘일월의 강’이란 뜻의 리오 데 자네이로는 1501년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발견됐다. 파도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모습에 거대한 강으로 착각하여 부른 것이 시의 이름이 되었다. 세계 3대 미항 중 백미로 꼽히는 리오는 인공미를 거부한다. 대서양을 끼고 아름답게 펼쳐진 하얀 밀가루 백사장 꼬까까바나, 이빠네마, 레블론은 눈이 부시다. 과나바라만에 점점히 떠 있는 요트, 해발 395m에 흡사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는 ‘뺑지 아수가르(sugar loaf)’에 외줄처럼 드리진 케이블카, 아름다운 미항과 그곳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두 팔을 힘있게 펼친 꼬르꼬바도(곱추) 예수의 동상이 해발 704m에 우람하게 서 있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직전 5일 동안 삼바 두르모(경연장)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르나발이 벌어진다. 5일간의 축제를 위해 1년을 준비하는 리오에는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5억 달러가 넘는 관광 매출을 이룬다.

리오의 또 다른 걸작품은 18만 4,000명 수용 가능한 마라카낭(파랑새) 축구장이다. 1950년 6월에 완성된 마라카낭에서 월드컵 결승전을 치렀다. 8강전에서 스웨덴을 7대 1로, 4강전에서 스페인을 6대 1로 제압한 브라질이 남미 국가 중 가장 작은 우루과이를 제물 삼아 줄리메컵을 거머쥐려는 최대 이벤트였다. 22만 명이 넘는 까리오까들의 함성과 간절한 염원이 마라카낭에 차고 넘쳤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났다. 축구의 지존인 펠레가 첫 번째 골

을 넣은 곳, 천 번째 꿀을 넣은 곳도 마라카냥이었다. 2014년 월드컵이 리오에서 개최된다. 2016년에는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시작된 지 122년만에 남미 대륙에서 첫 번째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국가적인 경사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를 붉은 여단 마피아의 암약을 최대 걸림돌로 고심하는 룰라 데 실바 대통령의 수심이 깊다. 수백 개의 화벨라(할렘)를 거점으로 하나님의 정원 같은 미향을 피로 물들이는 저들은 분명 공공의 책임에 틀림없다.

세계적인 미향 ‘히우 지 자네이로(포르투갈식 발음, 스페인어로는 리오 데 하네이로)’의 꼬빠까바나 명사십리 해변을 산책하면서 마시는 후고 데 꼬꼬(코코넛 주스)는 멋진 낭만을 선사한다. 까리오까(리오 시민) 꼬꼬 벤데들(코코넛 장사)은 관광객들을 위해 축구공만한 묵직한 꼬꼬를 며칠씩 얼음덩이가 가득한 쿨러에 넣어 냉장한다. 커다란 마썰페(정글 칼)로 단단한 표피를 잘라내어 빨대를 쉽게 꽂아 주스를 마실 수 있도록 다듬어 주는 그들은 분명 꼬꼬 자르기 생활의 달인이 맞다. 주스를 다 마시고 나면, 절반을 짝둑 잘라 하얀 앙금을 고소하게 먹도록 배려하는 까리오까 브라질레로는 다정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다. 식염수, 포도당 링거 한병과 맛먹는다는 달큰하고 시원한 꼬꼬넛 주스에 남국의 향취와 멋이 담겨 있다.

이뤄지지 못한 사랑을 간직한 이과수 폭포



남미 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은 리오 빠라나(Rio Parana)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고이아스 주에서 시작하여 남회귀선 주변의 평원을 홍건히 적시며 흐른다. 볼리비아, 파라과이에서 발원한 크고 작은 강들까지 합류하여 2,570km를 굽이치는 대하 같은 장(長)강이 된다. 거대한 강 줄기는 마치 아나콘다가 꿈틀거리며 먹이를 찾는 것처럼 위압적이다. 넉넉히 흐르는 강물은 커피, 쌀, 목화, 사탕수수 등을 키우는 훌륭한 젖줄기로 사용된다.

빠라나가 종착지 대서양과 만나기 위해 마지막 용트림을 하며 거대한 물쇼를 보여 주는 곳이 이과수(Iguacu)다. 이과수와 빠라나 강을 경계로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파라과이 씨우다 델 에스페, 브라질 포스도 이과수가 국경을 이룬다. 빠라나에 있는 여러 개의 폭포 중 가장 웅장한 이과수는 세계 다섯 번째로 꼽히는 비경 중 하나이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폭포이다. ‘이과수’라는 말은 파라니 인디오 언어로 ‘장엄한 물들’이라는 뜻을 갖는다. 275개의 크고 작은 폭포들이 2.7km 넓이에, 커튼처럼 연결되어 검붉은 물을 82m 아래로 지축을 흔드는 굉음을 퍼부으며 쏟아진다. 주변 정글에 자욱한 연기처럼 번지는 물안개가 남국의 강렬한 햇볕과 만나면 계곡 주변에 영롱한 쌍무지개가 걸린다. 이과수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강 주변에 살고 있던 까인강게스(Kaingangues) 인디오족은 ‘웅 보이(M Boy)’라고 불리는 뱀을 신으로 섬겼다. 흉측한 이무기 ‘웅 보이’는 잔인하게

남미의 알프스 바릴로체



사우스아메리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는 썬 까를로스 데 바릴로체(San Carlos de Bariloche)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남서쪽 1,700km 아래에 위치한 남미의 알프스로 불려진다. 바릴로체까지는 소형 제트기로 2시간 30분, 침대 버스로는 24시간 죽히 걸리는 먼 곳이다. 칠리 고추처럼 길게 형성된 칠레와는 안데스 산맥과 만년설이 녹아 호수가 된 나우엘 우아빠(Nahuel Huapi)로 경계를 이룬다. 지구촌에 마지막 남아 있는 파타고니아 청정지역에 위치한 바릴로체는 리오 네그로 주에 속해 있고, 동토의 땅 남극이 과히 멀지 않다.

‘바릴로체’란 그곳에 살던 아라우카 인디오 언어로 ‘산 뒤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바릴로체를 처음 발견한 스페인 사람은 예수이트 선교회 디에고 데 로살레스(Diego de Rosales) 신부다. 1650년에 태평양을 횡단하여 칠레에 도착했고, 뿌에르토 몬트를 통해 안데스를 넘어 그림 같은 바릴로체에 닿았다. 이후 독일계, 오스트리아계, 슬로바키아계, 스위스 계통의 유럽 사람들이 몰려왔고, 1955년에는 독일 나찌의 SS 창설자가 전범 재판을 피해 몰래 숨어들어 말년을 보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센트로 시비코에서 바라다 보이는 호수가 7,050km² 넓이의 나우엘 우아빠다. 그 호수 안에 측백나무가 가득한 빅토리아 섬이 앞전하게 놓였다. 호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안데스 산자락과 파타고니아 산야를 생크림같이

도 매년 한 차례 아리따운 처녀를 제물로 받아야 잠잠하다. ‘웅 보이’는 강의 신, 세상의 신이고, 사나운 조폭 같은 지역신이다.

추장 이그노비(Ignobi)에게는 나이빠(Naipi)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녀는 부족들의 부귀와 안녕을 위해 ‘웅 보이’에게 바쳐질 인신제물이다. 어여쁜 나이빠와 부족의 용맹스런 전사 따로바(Taroba)는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다. 드디어 나이빠가 ‘웅 보이’에게 바쳐지기로 한 날, 비운의 남녀는 카누를 타고 몰래 도망친다.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지만 ‘웅 보이’가 모를 리 없다. 분노한 ‘웅 보이’는 자신의 꼬리로 강바닥을 쳐서 강을 갈라놓는다. 악마의 무시무시한 목구멍 같은 폭포 아래로 떨어진 따로바는 폭포 주변에 무성한 야자수가 되었다. 나이빠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에 온몸을 강타당하는 슬픈 바위가 되었다. ‘웅 보이’의 휘방으로 차마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안타까워하는 연인의 눈물이 이슬되어 떨어지는 곳이 이과수라고 한다.

스페인 사람 까베사 데 바까(소 대가리)가 이과수를 처음 발견했던 때가 1541년이다. 한동안 잊혀졌다가 19세기 말, 보셀리(Boselli)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이과수의 압권은 U자형으로 떨어지는 ‘악마의 목구멍(Gargante de Diablo)’ 구간이다. 폭 150m의 검붉은 물 기둥이 가차없이 떨어질 때 들리는 굉음은 지옥의 비명 같고, 음습한 물보라는 비린내처럼 코 끝에 남아 미식거리는 구토를 유발한다.

이과수 관광의 백미는 모터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악마의 목구멍 근처까지 나가 흠뻑 물줄기를 맞아가며 따로바와 나이빠의 슬픈 사랑의 연가를 체험하는 데 있다. 영롱한 쌍무지개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드리워지는 곳, 보는 각도에 따라 팔색조처럼 색이 바뀌는 청나비 유혹에 고단한 영혼을 한 번쯤 맡겨봄도 좋을 듯하다.

나스카 평원의 비밀스런 기호들



덮었던 눈들이 녹아 모여진 호수는 깊고 파랗다. 일급수에서만 사는 무지개 송어들이 호수 구석구석을 헤엄치며 씨알이 굵어져 간다. 나우엘 우아빠 주변에는 구뮈에레스, 모레노, 마스까르디 호수가 있어 단조롭지 않은 아기가 기한 멋도 갖췄다. 꽃샘 추위가 가실 때부터 루피나스 꽃이 흐드러지게 피기 시작하고, 한여름에는 연보라색 라벤더가 침묵 같은 향기를 발하며 수줍게 고개를 숙인다. 스위스식 로지, 거대한 메토세코이아, 사이프러스가 빼곡한 아름다운 숲속 사잇길에는 평화로이 풀을 뜯는 흰 얼룩 엑시스들, 빨간 사슴들이 떼를 지어 한적한 호숫가를 산책하듯 노닌다.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트로나도르 산, 쉼로 까페드랄, 쉼로 로베스 산들은 해발 3,000m의 고산들로, 고개를 젓혀야 도도한 만년설을 보여 준다. 북반부에 한참 여름일 때, 바릴로체는 스키 시즌이다. 전 남미 대륙에서, 유럽에서 스키 매니아들이 찾아와 자연을 미끄러뜨리는 유명한 명소이다. 카지노, 승마, 연어낚시, 송어낚시, 요트, 위락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내추럴 여행지를 찾는 호사가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곳이다.

바릴로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나우엘 우아빠 주변에 산채처럼 지어진 야오 야오(Llao Llao) 호텔이다. 완만한 구릉에 자연과 동화되도록 지어진 호텔은 동화책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와 같다. 야오 야오의 뒷 배경은 설산이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사이프러스 숲을 이룬 야오 야오는 아련한 빠라이소(paraiso, 천국) 같다. 바릴로체의 중심거리 미플레는 쇼핑타운이다. 빼어난 미모의 광대들이 하얗게 분장하고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쇼와 낭만이 있는 곳이다. 알싸한 추위에 몸을 움츠린 여행객들을 달콤하게 녹여 주는 핫 초콜릿은 진하고 고소하다. 안데스 약초를 곱게 찌서 맑은 물에 담아 봄비또로 빨아 마시는 마떼차의 중독적인 맛이 있는 바릴로체에는 여인의 향기 같은 이국의 멋이 담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틀란티스 대륙,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 섬 등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페루 나스카(Nazca)에 얽힌 미스터리는 흥미진진하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스카 라인의 희안한 도형들은 안데스 고원 황량한 황무지를 캔버스 삼아 그려진 지상 최대 그림으로 유명하다. 작게는 수십 미터에서 크게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9,000개 가까운 그림과 도형들은 감히 땅에 발을 딛고는 전체를 볼 수 없다. 비행기를 타고 300m 이상 겸손히 오르면 1,500년 넘게 감춰졌던 그림과 도형을 수줍게 들춰 보여 주는데 신비하다 못해 비밀스럽기까지 하다. 삼각형, 나선형, 화살표, 활주로 같은 직선은 오차범위 5m를 넘지 않는다.

꼬리가 뱅뱅 꼬인 원숭이와 사람 손가락은 왜 아홉 개뿐일까. 꼬리를 하늘로 치켜 올린 다리 다섯 개의 개, 앵무새, 고래, 지그재그로 커다란 부리를 교차한 해오라기, 잉카의 상징이며 신앙인 끈도르, 한쪽 발이 유난히 긴 타란툴라 왕거미, 꿀을 빠는 빼까플로레스(벌새), 비스듬한 거대 바위에 새겨진 ET 모양의 외계인과 다수의 그림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지상에서는 감히 품평을 불허할 정도다. 언제,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저토록 거대하며 정교한 그림을 황무지에 그렸을까? BC 300-AD 800년 사이에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비밀스런 그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UFO를 타고 내려온 외계인들의 활주호가 맞을까? 고대 문명세계의 천문지리와 연관을 갖고 있

고원에 떠 있는 바다 같은 호수 띠띠까까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는 티베트의 락바 연못으로(Lhagba Pool) 해발 6,368m의 아찔한 고지에 있다. 안데스 만년 설산의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호수도 여럿 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으면서 관광객을 태운 기선이 손님들을 모시느라 부산한 대형 호수는 별로 많지 않다. 페루 남단 뿌노(Puno) 지역과 볼리비아 북부 라파스(La Paz) 지역에 위치한 띠띠까까(Lago TITiCaCa) 호수는 구글 어스로 살펴보아도 규모와 위용에 있어서 단연 최고다.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로 해발 3,812m 고지에 있는 띠띠까까는 육지 속의 바다 같은 호수다. 장승처럼 둘러선 4,000-6,000m 급 안데스 산맥에서 흐르는 다섯 개의 주요 강과 20여 개의 작은 개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띠띠까까다. 눈 녹은 물들이 호수로 흘러 들어와 산천어를 먹이고, 가난하고 힘든 인디오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

잉카의 옛 수도 꾸스꼬(Cuzco)를 떠나 해발 3,800m에 위치한 뿌노(Puno)에 다다르면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을 이룬 띠띠까까에 도착하게 된다. 본래 이 지역에 살던 케추아(Quechua) 인디오 말로 띠띠(TITi)는 ‘검은 푸마’를 뜻하고, 까까(CaCa)는 ‘거대하다(great)’는 뜻이다.

잉카 문명의 가장 중요한 신이 태어난 성스러운 호수로 숭상되는 띠띠까까는 최고 수심이 284m이다. 평균 수심은 107m로 깊지만 물이 맑아 유리알처럼 투영되어 보인다. 고도가 높고 기온이 찬 이유로 물의 증발이 적

지는 않을까? 혹 나스카인들의 종교와 신앙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학자들의 혼란스런 설들만 무성할 뿐 아직도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

1,500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었던 자연의 신비도 놀랍다. 페루 리마 남쪽으로 440km 아래, 남부 버금도시 아레끼빠 사이에 위치한 나스카 계곡은 불모지다. 그곳 평방 500km에 빼곡히 그려진 그림들이 여태껏 보존될 수 있었던 까닭은 훔볼트 해류(Humboldt Current) 덕분이다. 적도 주변국가 페루 태평양 연안에 남동 무역풍과 얼음 녹은 설빙수가 남극에서부터 거슬러 오르며 풍성한 어장을 형성한다. 훔볼트 해류의 강한 기운이 안데스 고원에서 불어오는 차고 습한 바람과 싸움을 벌여 비구름을 걷어내기 때문에 나스카 라인은 일 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사막을 형성한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비 바람에 씻겨가지 않았고 여태껏 보존될 수 있었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산성 토양은 그 땅을 산화철로 뒤덮이게 했다. 그 땅에 거주하는 나스카 인디오들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연이나 열기구에 측량사를 매달아 평원을 측량했을 것이다. 검붉은 표토를 걷어내고 하얀 박속 같은 석고 흙을 30cm 정도의 높이로 쌓는 단순한 방법으로 미스터리한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

16세기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 시에사 데 레온이 나스카 부근 사막에 있는 이상한 부호들에 흥미를 느꼈지만 과학자들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41년부터다.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 폴 코삭(Paul Kosok) 박사는 공중에서 전체를 살펴본 처음 사람이었다. 이후 독일의 수학자, 천문학자인 마리아 라이헤(Maria Reiche) 박사를 통해 폭넓게 연구되었다. 1932년 나스카를 알게 된 그녀는 50년 넘는 세월을 그곳에 살면서 연구와 보호에 몰두했다. 사막의 열기와 눈부신 햇볕 때문에 시력을 빼앗겼던 그녀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 지상 그림을 내려다 보세요.”라고 하며 전체 비경을 보는 해안을 선사한다.

잃어버린 하늘정원 마추 픽추



어 더 깨끗하고 맑게 보이는 호수에는 아만타니(Amantani) 섬, 따킬레(Taquile) 섬, 해뜨는 섬(Isla de Sol), 달뜨는 섬(Isla de Luna)이 있다. 이외에도 41개의 움직이는 인공섬 우로스(Uros)가 물결을 따라 떠다니는데 근친결혼 풍습으로 여태껏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인디오 혈족들이 살고 있다. 호수의 물결을 따라 한세상을 두둥실 떠다니는 우로스 섬은 대여섯 가구의 인디오들이 홍꼬(Junco, 갈대)를 잘라 3m 이상 쌓아서 만든 섬이다.

우로스 섬의 생성에는 낭만보다는 슬픈 역사의 상흔이 더 많이 깃들여 있다. 금과 향료의 땅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에 온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는 잉카의 아타우알파 왕을 처형시키고 꾸스꼬를 짓밟아 찬란했던 잉카 문명을 허물고 만다. 약탈자의 추격을 피해 검은 푸마 호수까지 도망쳐온 잉카 인디오들은 살기 위해 호수에 떠다니는 갈대 섬 우로스를 만들고 파수대까지 설치해야 했다. 소박한 집과 화장실, 헛간과 짐승 우리, 심지어 수중 정원과 알빠까(Alpaca, 동물) 형상으로 만든 자가용 배까지 온통 자연친화적인 갈대로 만들었다.

안데스 산자락에 뭉게구름이 높게 드리우면 유영하는 갈대 섬 우로스에 사람들이 오른다. 기상천외한 갈대 섬의 첫 느낌은 물경하는 쿠션이다. 거대한 물침대 같은 우로스에서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린 인디오 부부가 만들어 내미는 아르메사니아(전통 민예품)는 생경스럽다. 코홀리개 어린이들이 잡아온 수염 여섯 개짜리 미꾸라지(Maus)들이 바글거리고, 송어, 주둥이까지 온통 비늘로 뒤덮힌 산천어를 손짓으로 흥정하며 살갑게 내미는 정다운 현장이다. 에스페리투 안디노(Espiritu Andino)들이 심금을 다해 연주하는 게 나와 짹나 소리는 오카리나(ocarina) 소리처럼 날카롭다. 안데스 깊은 산골짜기의 신비와 서럽도록 시린 호수, 덧없이 흐르는 세월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인디오들의 숙명 같은 삶이 녹아 있는 띠띠까까에 가고 싶다.

태양의 제국 잉카를 건립한 인디오들은 안데스 산맥을 주축으로 페루 영토 대부분과 에콰도르, 볼리비아, 북서 아르헨티나, 칠레 북부, 콜롬비아 남부 등 남미 서부 주요 영토를 정복과 평화적인 합병을 통해 거대 제국을 이뤘다. 잉카 인디오들은 하늘은 독수리, 땅은 푸마, 땅 속은 뱀이 지배한다는 신앙을 갖고 있어서 잉카의 도시들은 푸마 모양으로 조성됐고, 푸마의 머리 부분에는 종교의 중심이자 군사 요새였던 삭사이와만(Sacsahuaman)을 건축했고, 푸마의 허리 부분에는 태양의 신전 꼬리칸차(Qorikancha)를 두었다.

잉카의 수도 꾸스꼬(Cuzco)는 푸마의 배꼽 부분인 해발 3,400m의 안데스 평원에 세웠다. 잉카의 왕은 태양의 아들 사파 잉카(Sapa Inka, 유일한 왕)로 불렸다. 아따 왈빠(Ataw Wallpa)는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에게 황금을 집채만큼 바쳤음에도 농락당했고, 끝내는 재위 1년 만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태양 제국의 찬란했던 문명은 한때 인구 100만이 넘었던 수도 꾸스꼬, 삐작, 친체로, 우루밤바, 올란다이따보, 삭사이와망에 남아 있는 고색창연한 거석 기념물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인디오들은 수십 톤이 넘는 거대 암석을 흡사 인절미 주무르듯이 자유자재로 다루었고, 돌을 잘라서 태양신전과 왕궁, 각종 기념물을 세웠다. 꼬리칸차를 허물고 그 폐허 위에 건축한 싘또 도밍고 성당은 두 차례의 지진에 폭삭 가라앉았지만, 플라사 싘블라스에 쌓여진 12면 돌담은 바늘 끝 하나 침범을 허용치 않는 치밀한 모습으로

지진과 풍상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다.

잉카의 배꼽에서 112km 떨어진 마추 픽추(Machu Picchu)는 해발 2,280m에 위치한 잉카 유적지로, '늪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우르밤바(Urubamba) 계곡, 산 정상에 비밀스럽게 지어진 공중누각, 잃어버린 잉카의 하늘도시가 마추 픽추다. 16세기 후반,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나 잉카 인디오들은 성스런 하늘정원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1911년 예일 대학의 라틴아메리카 역사 교수였던 하이렘 빙엄(Hiram Bingam)이 발견할 때까지 400년간 세상에 잊혀진 채 숨겨 있었던 남미 최고의 비경이다. 마추 픽추는 잉카의 귀족, 사제들에게만 허락된 성역으로 여겨진다. 잉카의 여덟 지역에서 마추 픽추를 향해 나 있는 여덟 개의 길이 확인된 것으로 보면, 마추 픽추는 잉카의 종교적 의례를 거행하던 곳으로 추측된다.

쁘소세코(Pozo seco, 마른 우물)라 불리는 배수로를 따라 크게 두 지역으로 갈라진다. 유적의 북쪽은 종교와 의례시설 및 주거지역으로 이뤄졌다. 서쪽 '아난'에는 왕궁, 탑, 신전 등 종교적인 건물이 있고, 동쪽 '우린'에는 대중들을 위한 주거와 작업공간이 차지한다. 남쪽에는 층층이 조성한 계단식 밭인 안데네스(둔전)가 배치돼 있다. 3m씩 오르는 계단식 밭이 40단이 있고, 200호 넘는 돌로 지어진 각종 건물이 잉카의 번영을 가름케 한다. 마추픽추 정상에는 태양을 묶는 인티와나타가 있다. 높이 1.8m, 너비 36cm의 돌기둥은 태양을 숭배했던 잉카인들이 매년 동지에 지냈던 의례를 위한 것이다. 태양의 신전, 달의 신전, 왕의 무덤이 있는 콘도르의 신전도 있다.

“안데스 하늘을 나는 큰 새야, 나를 안데스로 데려다 주렴, 그곳에서 형제들과 살고 싶단다. 먼 옛날 잉카의 시간 속 풍경도 저랬으리라.”

로스 차꼬스의 '엘 폰도르 빠사' 연주를 들으며 잉카 트레일을 따라 걸노라면 수목향이 편안한 에우칼립토 나무들과 느긋하게 안데스 상공을 활강하는 독수리의 도도한 날개짓을 볼 수 있다.

거북이들이 사는 섬 갈라파고스



남미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Ecuador)가 1832년 자국 영토로 삼은 갈라파고스 제도는 본토로부터 태평양쪽으로 965km 떨어진 절해 고도의 신비한 섬으로, 비행기로 꼬박 세 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곳이다. 화산 분출로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오른 섬에는 활화산이 용트림하고 있고, 바위 틈바구니에 꿰어오르는 용암과 철썩이는 쪽빛 포말이 만나면 눈꽃처럼 아름다운 입김을 섬 가득히 흩뿌린다.

1535년, 파나마의 토마스 데 벨랑가 주교가 페루로 가다가 풍랑에 밀려 발견했으며,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은 '큰 거북'이라는 뜻이다. 16세기 스페인 항해자들은 그 섬에 들렀다가 크기 1.4m에 무게가 250kg이 족히 넘는 자이언트 거북을 20만 마리 넘게 남획하여 떠나면 항해길에 식량으로 삼았다. 살아 있는 거북은 선실 바닥에 뒤집어 놓기만하면 1년간 먹이 공급 없이도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었던 당시에 신선한 먹거리로 각광을 받았기 때문이다. 1835년에 갈라파고스에 온 찰스 다윈은 이곳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1859년에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을 1859년 완성했다.

갈라파고스는 19개의 큰 섬과 작은 암초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이 사벨라 섬에는 해발 1,689m의 파란 봉우리도 있고, 산타 쿠르즈, 산 크리스토폴 등 네 개의 큰 섬에 약 만 명의 에쿠아도리안들이 살고 있다. 섬들은 약

지구 종말을 예언한 마야 문명의 중심지 띠갈



6만km² 바다에 분포되어 있고, 섬들을 합한 넓이가 약 8,000km²이다. 고립된 환경, 해류와 바람이 대륙으로부터 동식물의 유입을 장벽처럼 막았던 곳이다. 그런 갈라파고스에는 해류의 영향으로 물고기가 풍부하여 300여 종의 어류가 살고 있고, 물고기를 좋아하는 89종의 조류가 살고 있다. 20여 종의 파충류,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 이구아나, 도롱뇽, 매, 부엉이, 박쥐와 쥐 등 약간의 포유류가 살고 있다. 식물 또한 600여 종이 살고 있다.

암컷 30마리에 둘러싸여 멋드러지게 호사를 누리는 바다사자, 가냘픈 귀족 연분홍 플라밍고, 부리 모양새가 각기 다른 13종의 핀치새(뱀새), 500파운드를 넘는 자이언트 거북이, U2-R 스파이 비행기처럼 날개길이 7피트나 되는 에스파놀라 새, 파란 장화를 앙증맞게 신고 있는 물총새, 물개처럼 바다 속을 유영하며 물고기를 잡는 사파이어 눈의 가마우지, 바다 속 해초를 따 먹고 물을 연신 뱉어내는 코 짹짹이 바다 이구아나, 짝 지을 암컷을 불러들이기 위해 피빛 농구공을 가슴에 팽팽하게 붙여놓고 방울소리를 내는 새... 작은 부리 핀치새가 썩은 나뭇가지 틈바구니에 숨어 있는 애벌레를 잡기 위해 이쑤시개 같은 작은 도구를 이용할 줄 안다. 뽀족한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애벌레 아지트를 두드려 빼꼼하게 고개를 내민 애벌레를 소라 빼먹듯 한다. 다양한 동식물이 독자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섬에서 발견된 잉카 문명의 그릇은 갈라파고스에 스페인 항해자보다 잉카 인디오가 먼저 발을 딛고 살았던 것을 입증한다. 후에 영국 해적들이 갈라파고스 섬을 은신처로 사용하면서 영국식 이름을 붙였다. 19세기에는 고래잡이와 물개잡이들이 찾아와 장사진을 이뤘다.

절해고도 갈라파고스 제도를 휘감고 흐르는 차가운 옥색 바다는 그곳에 사람과 생물을 더욱 외롭게 격리시킨다. 일상의 번거로움에서 훌쩍 떠나 해초를 베어 무는 바다 이구아나처럼 원초적 본능에 젖어봄직하다.

2009년에 2,600억 원을 들여 만든 영화 “2012년”은 공상과학을 총망라하여 지구의 종말을 주제로 만든 의미심장한 영화다. 우리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섬짓한 경고를 대하게 된다.

“지구상 현존하는 나라 190여 개, 지구상 살고 있는 인구 60억,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지구가 멸망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에 대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마천루처럼 세워진 건물들이 종이처럼 구겨져 쪼개진 땅속으로 함몰되고, 흉흉한 바다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땅과 그 위에 남은 사람들을 삼켜버린다. 옐로스톤에는 활화산이 폭발하여 뜨거운 용암을 불처럼 쏟아낸다. 모든 산과 들이 성난 파도에 다 수장되고 나면 히말라야 최고봉 주변에 이미 건립해 놓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는 마지막 종말의 날에 홀로 두둥실 떠오른다. 무쇠로 지어진 유일한 생명선에는 여전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이 수천만 달러를 승선비로 납부하고 아비규환의 지옥문 앞에서 구사일생의 행운을 찾는다는 내용이다.

서구 문명 사회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은 기원 후 1582년까지 사용해 오던 율리우스력의 역법상 오류를 수정하여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년을 365일로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반면 고대 마야인들은 5128년을 한 주기로 지구가

소멸 생성을 반복한다고 믿었다. 마야 달력은 기원전 3114년 8월 13일을 원년으로 187만 2,000일이 되는 2012년 12월 21일 자정까지만 기록되었다.

마야력은 지구를 비추고 있는 태양의 탄생과 소멸을 천체와 태양의 궤도를 관측하는 나침반인 동시에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도나 다름없다. 은하계의 중심에는 태양 중력 크기의 250만 배 이상 달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마야력의 마지막 날인 그날은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중심점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어 전무후무한 홍수와 폭우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한다. 본래 마야인은 천문학, 수학, 건축분야에 찬란한 문명을 이뤘다. 베일에 쌓여 있던 수수께끼들은 불과 40년 전 슈퍼 컴퓨터를 동원해서 해독할 수 있었다. 마야는 '20진법'을 사용했다. 마야력은 날과 달, 해의 단위를 '킨', '위날', '툰', '카툰', '박툰'이라고 하는 장주기 역법을 따랐다. 1킨은 1일, 킨(kin)은 마야어로 '태양'이라는 뜻이다. 20킨은 한 달, 1개월을 1위날(uinal, 달)로 불렀다. 1년은 20킨(20일), 18위날(18개월)과 5킨(5일)을 더한 365일로 계수된 태양력이다. 1년의 단위는 툰(tun)이라고 부른다. 20툰은 1카툰(katun)으로, 20카툰을 또 다시 1박툰(baktun)이라고 정해 놓았다. 목 1, 어깨 2, 팔꿈치 2, 손목 2, 골반 2, 무릎 2, 발목 2 등 인간의 주요 신체부위를 13개로 나누고, 이 '13'이라는 숫자가 신체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가 통하는 교점이라고 여겨 신성시했다. 그리고 이 13박툰에서 모든 날짜와 시간이 종료된다.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는 고대 마야 문명의 심장부로 불린다. 설설 끓는 용암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빠까야 화산과 38개의 화산이 존재하는 불구덩이 땅이다. 화산작용으로 생긴 칼데라 호수 아띠플란(Atitlan)은 라틴아메리카 공산 혁명가 '체 게바라'가 말년에 정착하고 싶어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비취색 호수다. 그곳 푸른 정글 속에 신비스런 마야 인디오 문명이



— 마야 문명의 중심지 띠칼, 임박한 지구 종말을 예시하던 문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고스란히 숨어 있다. 마야 문명의 정수리 띠칼(Tikal)에는 1,000여 개의 마야 피라미드가 푸른 숲속에 얼굴을 묻은 채 발견된다. 임박한 지구 종말을 예시한 찬란한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쩌면 환란을 피해 하늘로 올라 금성으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

땅고 춤의 본 고장 아르헨티나 라 보카



남미 대륙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크고, 한반도의 13배 넓은 영토를 갖고 있다. 아르헨티나라는 뜻은 ‘은’을 뜻하는 라틴어 아르겐툼(Argentum)에서 왔다. 북쪽으로 볼리비아, 동쪽으로 파라과이, 브라질과 국경을 이룬다. 남쪽으로는 우루과이와 국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칠레와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못지 않은 안데스의 고봉들이 즐비한 아르헨티나에는 아콩카구아(Aconcagua, 6,959m), 뽀시스(Monte Pissis, 6,882m), 오호스 델 살라도(Ojos del salado, 6,879m), 보네체 치꼬(Bonete chico, 6,759m), 줄라이자꼬(Illullaillo, 6,739m)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중부와 동부에는 대평원 팼빠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전체 인구 중 95%가 백인, 메스티조 4.5%, 나머지는 마뿌체스, 꼬야스, 토바스, 마따꼬스, 치리과누스 등 인디오들이 있다. 비옥한 팼빠스의 땅 아르헨티나는 2,250만 헥타르 농지에서 매년 6,200만 톤의 콩, 밀, 옥수수, 사탕수수가 출하된다. 4,850만 두의 소, 1,350만 마리의 양 축산, 육류, 모피 가공, 석유와 가스 등이 풍성하여 한때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였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식은 송아지 갈빗살에 암염을 발라 참나무 숯불에 기름기를 쫓 빼고 구운 ‘아사도’ 바베큐다. 속이 더부룩하면, 대초원에 서 자란 약초를 으깨어 물에 타서 마시는 ‘마떼’를 선호한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좋은 공기들)에 뿌에르토 마테로 노르떼(Puerto madero norte) 항구가 생기기 전에는 ‘라 보카(La boca, 입술)’ 향이 유일했다.

라 보카에서 ‘땅고’ 춤이 시작됐다. 한국의 인사동 골목처럼 다양한 골동품과 토산품이 판매되는 까미니또(작은 골목)는 파스텔풍의 알록달록한 채색으로 집과 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까미니또에 남국의 폭염이 한풀 꺾이고 선선한 저녁바람이 불 때면, 애수 짙은 음악에 맞춰 멋진 남녀 무희들의 환상적인 땅고의 몸짓을 볼 수 있다.

본래 ‘라 보카’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조선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장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다. ‘까미니또’에는 깐띠나(선술집)가 곳곳에 있었고, 육모초보다 쓴 인생의 슬픔을 맛본 거친 선원들이 모여들었다. 살아갈 용기를 잃고 방황하던 바기분도(방랑자)들의 안식처였고, 에스빠란사(소망)를 회복하는 피난처였다. 그곳에는 이민자들의 향수, 낭만, 정열, 사랑, 애수, 설움과 외로움, 희망과 절망이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아, 남녀가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몸을 밀착시킨 채 아슬아슬하게 춤추던 땅고(tango) 춤이 있었다. 땅고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를 흐르는 라플라타 강 유역, 몬테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 두 도시의 주변에서 짝이 트고 자란 독특한 음악이다. 외로운 선원들이 라 보카 선착장에 19세기 쿠바에서 유행하던 2/4박자의 가요조의 하바네라를 전하였고, 여기에 라 보카와 몬테비데오 거리에서 연주되고 춤추던 칸돔베(candombe)가 섞여서 밀롱가가 파생됐다. 밀롱가(milonga)의 변형이 땅고 음악이 되었다.

피아노, 더블베이스, 바이올린, 독일의 하인리히 반드가 만든 손풍금 반도네온(bandoneon)에 의해 땅고가 연주되면, 무표정한 남녀무희의 쓸쓸하게 절제된 관능미와 애수 깊게 서린 땅고의 멋진 춤사위가 펼쳐진다. 땅고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는 스페인 출신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고, 슈크림처럼 달콤한 그의 노래 ‘에레스 또도 엔 미(Eres todo en mi, 너는 나의 모든 것)’에 맞춰 가장 멋지게 스테이지를 누빌 무희는 관능미의 화신 ‘안토니오 반데라스’ 일 것이다.

피의 제단 멕시코 테오티우아칸



세계 3대 피라미드 중 하나인 멕시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는 신들의 땅에 우뚝 세워진 거대한 방공호 같다. 초강력 핵폭탄 투하에도 끄떡하지 않을 위용은 멕시코시티 북동쪽 40km에 위치하고 있고, 아스떼카 문명의 찬란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독수리가 독사를 물고 선인장 위에 앉아 있는 국기 문양은 메시카(Mexica)족의 건국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설 한 토막을 담고 있다.

어느 날, 우이찌로뽀찌틀리(Huitzilopochtli)라고 하는 최고 신이 호수에 둘러싸인 섬 아스틀란(Aztlán)에 사는 아스떼카족들에게 계시한다. 살고 있는 섬을 버리고 새로운 빠라이소(천국)를 찾아 나서라.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은 곳에 정착하라.” 아스떼카족은 우여곡절 끝에 플라와 차뿔떼(Chapultepec)라 불리는 지금의 멕시코시티 중앙광장에 해당하는 소갈로(Zocalo)에 수도를 정하고 정착하게 되었다.

중남미 대륙의 최초 문명은 멕시코 아스떼카(Azteca)이다. ‘아스텍’이란 ‘아스뜨란(Aztlán)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1325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스텍을 정복하기 200년 전에 멕시코 중앙고원에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다. 도읍지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과 거대한 피라미드의 도시 테오티우아칸(Theotihuacan)은 20만 명의 사람들이 활동하였던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다.

테오티우아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제도시로 중남미

의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규모 국제 무역을 주도했는데, 북쪽으로는 미국 남부 지역,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연결하는 중미 지역 일원과 밀접한 교역을 이뤘다. 테오티우아칸의 오랜 지색 도자기와 흑요석은 최고 인기 무역품물이었고, 그 외에도 의류, 무기, 노예, 카카오, 담요, 목화, 살아 있는 조류, 야생동물, 진주, 호박, 화강암, 화분, 목탄, 석탄, 꽃 등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되었다.

테오티우아칸의 원주민 오토미(Otomi)와 나우아(Nahua) 부족은 아스떼카 문명을 화려하게 꽃피운 주역들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도시를 설계하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립했다. 도시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은 정북 방향을 향하게 했고, 중심 도로망은 배수나 편의시설들을 아주 잘 갖추게 했다.

아스떼카 인디오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갈뿔리(calpulli)라는 대가족 집단을 이뤘다. 떼꾸틀리(Tecuti, 최고 연장자)를 선출하였고, 각 갈뿔리를 대표하는 통괄 지도자 트라또아니(Tlatoani)를 중앙정부의 수반으로 세워 부족국가의 동맹체인 연방 정부를 구성하였다.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협동 생산하여 부를 균등하게 나누는 품앗이 공동체 ‘에히도(Ejido)’ 제도를 세워, 면화, 바닐라, 토마토, 옥수수, 고추, 호박, 고구마, 꽃과 같은 종교,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특용작물을 재배했다. 바둑판처럼 구획을 이룬 땅 사이로 수로를 만들어 물 속에 있는 많은 영양분이 땅으로 쉽게 스며들게 하는 수경농법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였고, 삼모작, 사모작까지 가능하게 했다.

테오티우아칸의 쏘(해) 피라미드는 거대한 마초처럼 위압적이다. 루나(달) 피라미드는 여성스럽지만 거대 규모다. 중앙광장의 뽀뽀로 마요르 피라미드 정상에서는 수천 명의 심장을 꺼내 신에게 드리는 인신공양과 피의 제사가 성행했다. 박동하는 심장과 섬짓한 피는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 농작물의 풍요와 신민과 가축들의 다산을 기원하는 제물로 사용되었다. 피의 제단에서 당장이라도 절규가 들릴 것만 같다.

세계 최고층 폭포 베네수엘라 앙헬 폭포



제주도에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도로 불린 것처럼, 남미 베네수엘라(Venezuela)도 석유, 미녀, 야구 인구가 많은 삼다 국가이다. 콜롬비아와 접경을 이룬 마라카이보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5대 산유국가로 꼽힐 만큼 무궁무진하다. 미녀 사관대학 출신의 베네솔라나는 매년 세계 미스 월드, 유니버스, 인터내셔널, 인터콘티넨탈에서 최고의 미녀로 선출되어 출중한 미모와 각선미를 자랑한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기라성 같은 야구선수 중 베네수엘라 출신 거포가 즐비하다. 세계 클래식 베이스볼에서 한국과 4강에서 격돌했던 전통적인 야구 강국에는 대단한 강타자들이 득실거린다.

세계 3대 폭포, 아프리카 잠비아와 짐바브웨 경계를 흐르는 잠베지 강의 빅토리아 폭포는 높이 108m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내려 붓는다.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을 흐르는 리오 빠라나 강의 이과수 폭포는 높이가 82m이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놓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51m 높다. 남미 가이아나 카이에투 국립공원에 있는 카이에투 폭포는 250m로 남산의 높이(262m)와 비슷하다.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세계 50대 절경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 까라이마(Caraima) 국립공원 엔젤 폭포는 979m 고공에서 하얀 물보라를 뿌리며 줄기차게 거대 물줄기를 쏟아 붓는 세계 최고층 폭포로 장관을 이룬다. 엔젤

폭포 동쪽 멀지 않은 곳에 가이아나(Guyana)와 국경을 이루고, 남쪽으로는 브라질 호라이마주에 가까운 그란 사바나(Gran Sabana) 정글에 위치한 까라이마(Caraima) 국립공원은 볼리바르 주에 속한다. 적도 8도 주변에 위치한 그곳은 일 년 내내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곳으로, 묵직하게 내리는 남자비와 가끔씩 살갑게 내리는 여자비가 교차하는 열대지역이다.

엔젤 폭포는 1937년 미국의 항공 탐험가 제임스 지미 크로포드 엔젤이 그의 동료들과 소형 비행기로 여행하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불시착한 후 11일간 사투를 벌일 때 정글에서 발견한 곳이다. 그의 이름을 붙여 엔젤 폭포로 불리고 있으나 스페니쉬로는 쌀또 앙헬(Salto angel)이다.

뉴욕 맨하튼에 1931년 건립된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381m)의 2.5배, 높이 979m에서 거대 물줄기를 가차없이 낙하하는 엔젤 폭포의 위용은 가히 압도적이다. “인디애나 존스 3탄”을 촬영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탄 곳이다. 폭포의 원주민 이름은 ‘아우얀 떼뿌이 쌀또 앙헬(Auyan Tepui Salto Angel)’이다. 본래 ‘떼뿌이(tepui)’란 ‘평평한 책상’이란 뜻으로, 테이블 마운틴 1km 정상에서 수직으로 물을 쏟아 붓는 경이로운 모습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폭포로 바라보는 이의 넋을 유린할 정도로 알싸한 곳이다.

검은 돌산 중간중간에 찬란한 황금빛 벼랑이 드리워지고, 그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좌우 암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유낙하하는 높이만 807m가 된다. 진한 물보라를 먹고 사는 초록의 바다가 폭포 주변에 빼곡히 그란 사바나 정글을 이루고, 아름다운 반달처럼 드리운 아르꼬 이리스(무지개)의 수줍은 모습이 정겹다. 폭포 아래로 흐르는 까라오(Carrao) 강의 한복판은 짙은 콜라 색을 띠고 있다. 강가 기슭으로 갈수록 강물은 치자를 담가둔 물감처럼 검붉은 색을 띠다가 점차 환한 단풍색을 만들어내는데, 강가 주변에 뿌리를 둔 다양한 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오묘한 색을 만들어낸다.

아마존의 심장 마나우스



브라질 국립 우주연구소(Inpe)가 첨단 인공위성을 동원하여 실측한 아마존은 669km로 단연 세계 최대의 강으로 꼽힌다. 워낙 굴곡이 심해 정확한 길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대 과학을 동원하고서야 구절양장(口折羊腸) 같이 긴 실체를 가름케 한다. 이집트 나일강은 6,614km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아마존 강의 지류를 합하면 배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는 80,000km나 된다. 세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은 650만km로 한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위용을 자랑한다.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되는 강과 울창한 정글로 이뤄졌으며 전 세계 삼림의 3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산소량의 20%를 공급한다. 바다 같은 강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한다. 아마존의 포식자 빠라나는 촘촘한 삼각 이빨로 거대 까빠바라(뱀돼지만한 들쥐)와 악어까지 공격하여 삼시간에 빠다귀만 남기는 무서운 육식 물고기다.

귀티가 흐르는 아마존의 신사 빠라루꾸는 2m가 넘는 거구로 고소한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비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구두 주걱 대신 사용할 정도다. 지구상 유일하게 민물 돌고래가 서식하는 아마존은 강이라 하기에는 수량과 길이와 너비가 바다와 같다.

아마존의 본류인 솔레몬에스강과 지류인 리오 네그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아마존 열대우림지대의 관문인 마나우스(Manaus) 시티가 있다. 1967년



— 브라질 북부 최대의 공업지역을 이루고 있는 마나우스 시티

아마존 종합 개발 및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유무역지대로 30년이 지난 지금 600여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진출하여 브라질 북부 최대 공업지역을 이루고 있다.

미국에 골드러시가 있어 금을 찾아 서부로 달려가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마나우스에도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고무(rubber) 러시가 있었다.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자전거,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게 고무였다. 인근 정글에 꼭 찬 고무나무에서 천연 라텍스를 생산하는 마나우스는 노다지 금광이나 마찬가지로였다. 마나우스는 유럽인들이 밀물처럼 몰려들면서 세계 핵심 경제도시가 되었다. 1870년 한 해에만 42,000톤의 고무를 생산했고, 마나우스에는 돈이 넘쳐났다. 얼마나 흔했던지 유럽 이민자들은 하인을 시켜 빨랫감을 런던에서 세탁해 오게 했고, 종이 돈을 불쏘시개로 쓸 정도로 사치와 허영이 도를 넘었다. 열대 한복판에 1896년 세운 마나우스 오페라 하우스는 연중 무휴 오페라 공연소

리로 떠들썩했다.

그런 마나우스의 영광은 1910년부터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영국판 문익점 같은 스파이가 아마존의 고무나무 씨를 밀수해서 런던의 식물원에 심는 데 성공한 것이 1876년이다. 고무나무 이식에 성공하자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스리랑카에서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고무의 가격 파괴, 희귀성 파괴가 이뤄지면서 마나우스는 몰락하였다.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고무나무는 높이 30m로 잎사귀가 두껍고, 10-20cm 넓이의 잎 양면에 연한 털이 조밀하게 있고 줄기가 아름답다. 가지에서 늘어진 공기뿌리가 아래로 늘어서다 땅에 닿아 뿌리를 박게 되면 새로운 줄기가 된다. 무한정 옆으로 자라며 뿌리와 줄기가 엉키기 때문에 한 그루의 나무가 뺨뺨한 수풀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줄기에 칼로 흠집을 내어 백색 액체 라텍스(latex, 천연고무)를 얻는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얻는 부타디엔(butadiene)으로부터 얻어지는 합성고무와 전혀 다르다. 천연고무는 상온상태에서 탄성이 강하고 신축이 자유로워 자동차, 자전거 타이어, 튜브, 신발류, 벨트, 호스, 고무 롤러, 고무 인포, 공업용 고무 부품, 운동용구, 의료용품, 장난감, 케이블 등 여러 가지에 유용하게 쓰인다.

영원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 루나데 셀라후



인구 1,200만 명의 중미 첫 번째 나라 과테말라(Guatemala)는 ‘영원한 봄의 나라(el pais la eterna primavera)’로 불린다. 그 땅의 선주민 몽골계 마야 인디오 말로 ‘숲이 무성하다’는 뜻인 과테말라는 연중 큰 폭 없이 화씨 75도 근처를 유지하며 늘 푸른 숲을 유지한다. 멕시코 남쪽 유카탄반도 치아파 끝자락과 연결되었고, 영어를 말하는 벨리즈와 동쪽으로 국경을 이뤄 중미 다섯 개 나라(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첫 번째 관문에 해당된다.

태평양 연안에 동서로 견고한 진처럼 이어진 씨에라 마드레 산맥(Sierra madr, 어머니)의 영향으로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인 과테말라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즐비하다. 해발 4,211m의 최고봉 따후물코(Tajumulco) 활화산은 여전히 화산재를 뿜어내며 기세등등하게 존재를 과시한다. 화산 폭발 시 함몰되어 생성된 칼데라 호수인 아마띠플란, 라고 데 이사벨, 그리고 아야르사 호는 여전히 태곳적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질푸른 녹음 속에 수줍은 듯 아름답게 감춰져 있다.

북부 빼켄 호수 주변, 광활한 열대 밀림 속에 찬란하게 번성했던 중미 최고의 마야(Maya) 인디오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 AD 300~900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마야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3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라틴
아메리카의
명소들
·
121

아름다운
나눔
굿스톤
이야기
·
120

세계의 교차로 파나마 운하



정밀한 태양력, 제로를 포함한 20진법, 세련된 조각과 회화, 피라미드와 사원, 공공 도서관,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캘린더를 활용했던 마야 인디오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당장이라도 살아서 그 옛날처럼 거대한 함성을 지르며 태양신전에서 인신 제사를 올릴 것만 같다.

황금에 눈이 뒤집힌 스페인 약탈자 데 알바라도(De Albarado)의 침공으로 1524년 정복당한 후 300년 동안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821년에 독립했고, 1938년 중미 연방 해체로 과테말라 공화국이 되었다.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군사 쿠데타와 군부독재, 혼란스런 시민전쟁으로 수십만이 살육당해 암매장되었던 큰 아픔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다.

‘영원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에서는 오르미가(ormiga) 나무로 만든 마림바(marimba, 실로폰) 두드리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린다. 마림바는 본래 아프리카 토속악기였지만 중미로 건너와 과테말라의 국민적 사랑을 받는 특별한 악기로 자리매김했다. 생긴 모습은 실로폰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훨씬 크고, 아래에 팬 플루트처럼 공명이 달린 것이 특이하다. 과테말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왈츠 곡 ‘루나 데 쉘라후(Luna de Xelaju, 쉘라후의 달)’는 월광 쏘나타처럼 과테말라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아픔과 열정을 담았다. ‘쉘라후’란 옛 마야 인디오 언어로 크고 아름다운 마야의 으뜸도시 께찰테낭고(Quechaltenango)를 뜻한다.

조용한 시골도시 께찰테낭고 카페테리아, 규모가 큰 두 대의 커피색 마림바에 다섯 명의 무시코(musico, 악사)들이 신들린 것처럼 건반을 두드리면 영혼을 울리는 맑은 소리가 가득히 공명되어 다가온다. 콘트라베이스와 타악기까지 절묘하게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루면 영원한 봄의 나라에 라임 향기처럼 상큼한 세레나데가 가득히 울려 퍼진다.

중앙아메리카 최남단의 나라 파나마는 서쪽으로 코스타리카(Costarica), 동쪽으로 콜롬비아와 접경을 이룬다. 면적이 남한과 비슷하고 허리가 잘록한 S라인 모양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산맥으로 이뤄져 산과 언덕이 많다. 최고봉은 볼칸 바루(3,475m)다. 유럽계 백인 10%, 메스티조 혼혈 84%, 인디오 6%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다른 중미보다 흑인들이 많은데 운하 건설 때 카리브해의 섬들에서 온 노동자의 후손들이다.

1501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열대 우림의 땅에는 75만 명의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으나 바스코 누네스 데 발보아의 살인통치로 인해 대다수의 인디오들이 살해되었다. 이후 파나마는 정복자들이 약탈한 귀중품을 모아 유럽으로 옮기는 수송 중심지로 발전했다. 파나마는 1751년 콜롬비아 속령이 되었다. 시몬 볼리바르가 스페인과 왕당파군들을 격퇴한 후 누에바 그라나다(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에 속했다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903년 미국의 지원으로 콜롬비아에서 독립했다. 1914년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자 미국이 운하 영구 운영권을 독차지했다. 파나마의 국민적 영웅 오마르 토리호스대통령은 1977년, 미국의 지미 카터와 파나마 운하를 1999년에 반환기로 협약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토목공사였던 파나마 운하(Canal de Panama)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세계 교역 중심지로 1914년에 완성되었다. 페르디낭 드 레쎬스가 1879년 지협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으나 자

화려함과 낭만이 공존하는 썬 파울로



금 부족,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1889년에 중단했다. 그사이 50번의 폭동, 5번의 분리, 13번의 미국 간섭 등으로 공사 재개가 불투명했지만, 1903년 미국에 의해 공사가 완료됐고, 장장 83.3km 길이의 운하가 1914년에 개통되었다. 운하가 완공되기까지 2만 7,500명의 노동자가 황열병, 말라리아, 작업 중 안전사고로 죽었다. 운하 개통 전, 뉴욕발 화물선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 남미 아르헨티나 최남단 혼 곳을 우회하여 총 2만 2,500km의 거리를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들여 항해해야 했다. 하지만 운하 개통 후에는 9,500km로 단축되어 거리, 시간, 경비를 절감하며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태평양쪽 운하 관문은 파나마시티이고, 대서양쪽에는 콜론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미라플로레스 갑문은 길이 304.8m, 폭 33.5m, 벽은 15m 두께, 갑문 2m 두께, 높이 20m로, 6만 5,000톤급 항공모함을 빼고 거대 유조선, 컨테이너선, 여객선들의 출입에 제한이 없다.

수만 톤급 기선들이 하루 40대, 매년 1만 4,700대가 운하를 통과하여, 매해 2억 8,000만 톤에 달하는 물동량을 소화시킨다. 배 한 대당 평균 운하 사용료는 15만 달러이다. 디즈니 크루즈 호는 33만 1,200달러를 지불하여 역대 최고 통행세를 낸 배가 되었다. 미국의 조차가 끝난 이후 파나마에 돌아온 운하는 18억 2,000만 달러 수익을 안겨 주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운하 최고 사용자는 미국이고, 한국이 5위이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을 확보하려고 빈번하게 왕래한다.

거대 기선이 태평양쪽에서 대서양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차이 때문에 갑문을 통과해야 한다. 아메리카 다리를 지나 미라플로레스 갑문으로 들어서면 16.5m 부양한다. 빼드로 미겔 갑문을 통과하면서 물의 부력으로 다시 9.5m 상승하고, 갈리아드 통로를 지나면 수위는 26m가 된다. 가튼 댐을 통과하여 대서양쪽 갑문을 빠져나가면 8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고 딴 세상을 볼 수 있다.

브라질의 거대 도시들은 대부분 대서양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질 최대 상업도시 썬 파울로(Sao Paulo)는 브라질에서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로 불린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큰 도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번성한 도시다. 주변의 세 위성도시까지 합친 인구가 무려 2,200만 명이 넘는다. 매일 아침 660만 대가 넘는 차량이 하루종일 소음과 아황산가스를 뿜으며 질주하는 그곳은 연중무휴 짙은 스모그 벨트가 구석구석 내려앉아 있다. 열대지역에 세찬 비바람과 함께 한 차례씩 내리는 스콜이 지나가지 않으면 최루가스처럼 매캐한 공기는 순환되지 못해 숨 쉬기조차 힘들게 한다. ‘썬 파울로’라는 이름은 ‘거룩한 사도 바울’이라는 뜻으로, 신약성경 열세 권의 저자이면서, 지중해 연안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 사도의 이름을 땄다.

포르투갈의 탐험가 썬 비센찌(Sao Vicente)가 미지의 땅 브라질 해안을 발견한 때가 1532년이다. 22년이 지난 후, 1554년 1월 25일 지금의 썬 파울로를 발견한 사람은 로만 가톨릭의 제수이트(Jesuit) 선교사인 마누엘 지 노브레가(Manuel de Nobrega)와 주세 지 안찌에따(Jose de Anchieta)였다. 두 제수이트 선교사들은 베라띠닝가에 학교를 세워 투뻬 과라니(Tupi Guarani) 브라질 인디오들을 위해 본격적인 포교를 시작하였다.

거대한 종주도시 썬 파울로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고색창연한 모습으로 도시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썬 파울로의 랜드마크인 산타세(Santa Se) 메트로폴리탄 카테드랄 성당은 고딕양식으로 우람하게 지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다.

썬 파울로 아트 뮤지엄은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지어졌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건물이 기둥 없이 공중부양하듯 매달려 있을까? 난생 처음 보는 희안한 모습에 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열대와 아마존에 서식하는 다양한 흡혈 곤충과 파충류들의 독을 연구하여 해독제를 만들어내는 부뚜땡 독 연구소에는 새를 잡아먹는 따란뿔라 거미, 숲딩이 같은 스쿨피온, 땡독을 품고 있는 독사들, 소와 말을 옥죄어 죽인 후 통째로 삼키는 아나콘다가 득실거린다.

디자인이 화려하고 크기와 모양이 각기 다른 빌딩으로 빼곡한 아베니다 뻬울리스따(Avenida Paulista)는 브라질의 맨하탄으로 불린다. 썬 파울로는 18세기부터 커피, 목화, 내륙의 천연 광물과 진귀한 보석들이 국내외로 수출입되는 거대한 경제도시로 성장해 왔다. 유럽의 포르투갈, 이태리, 스페인 등지에서 세계적 금융 자본가들이 이민 러시를 더하면서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금융, 주식, 상업거래의 총본산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썬 파울로의 패션 일번지는 봉헤찌로(Bom Retiro)이고, 명석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한인들이 봉제업 상권을 거머쥐고 있다. 브라질의 동대문 의류상가로 불리는 봉헤찌로 매장에는 뉴욕, LA, 서울, 파리, 로마와 밀란, 영국의 런던에서 최신 유행하는 모든 패션을 만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봉헤찌로를 '여성들의 디즈니랜드'라고 부른다.

골목마다 찾아다니며 5일에 한 번씩 서는 재래식 시장에는 각종 야채,

열대과일, 풍성한 해산물과 신선한 육류가 넘쳐나고 값싸게 공급된다. 슈하스까리아에서 숯불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야자열매 팔빙수 아싸이로 후식을 하고, 길모퉁이 카페에서 엑스쁘레소 한잔에다 막 구워낸 빵지 깨조(치즈 빵) 한 조각은 열대의 낭만에 흠뻑 빠질 수 있게 한다.

몽특한 화살촉을 닮은 우루과이



남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몽특한 화살촉처럼 위치한 우루과이는 남한의 2배 가까운 면적에 평야지대로 이뤄진 국가다. 1825년에 독립한 우루과이는 왼쪽으로 아르헨티나와 리오 우루과이(Rio Uruguay)로 경계를 이루고, 오른쪽의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과는 리오 꾸아레임(Rio Cuareim)으로 국경을 이룬다. 우루과이 국토 중앙을 동서로 흐르는 리오 네그로(Rio Negro)가 있어 땅이 비옥하다. 우루과이의 국기는 기본적으로 아르헨티나와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데, 왼쪽 코너에 환하게 웃는 황금빛 태양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네 개의 굵은 파란색 라인이 선명하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칠레와 더불어 백호주의 국가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유럽계 백인들이고, 8%만이 메스티조, 극소수의 아메리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유럽 같은 국가다.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첫째, 남미대륙에서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몬테비데오(Montevideo) 항구는 고풍적인 미향이다. 몬테비데오 앞바다는 짙은 커피색이다. 브라질에서 발원한 수천 킬로미터의 리오 빠라나(Rio Parana)와 리오 파라과이(Rio Paraguay) 강이 합류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앞으로 흘러나와 대서양과 만나는 강이 리오 빨라따 강이다. 대지의 많은 사연을 담고 흘러온 강물 때문인지 질푸른 바다는 뒤로 밀리고 연안 바다에는 흙탕물이 압도한다. 둘째, 인구 35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 2억 명이 넘는 축구 강국

브라질과 영원한 강자 아르헨티나를 번번이 실력으로 제압하는 아트 사커가 강력하다. 1950년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 마라까냥 경기장에서 있었던 월드컵 결승전에서 홈팀 브라질을 제물로 삼고, 찬란한 줄리메 컵을 들어 올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브라질에는 우루과이 징크스가 남아 있고, 우루과이와 한 판 벌일 때마다 양대 강국은 저주스런 징크스에 몸서리를 친다. 셋째, 농업과 목축업 위주로 보잘것없었던 우루과이에, 주변의 라틴국가에서 출저를 밝히고 싶지 않은 몽터기 돈이 몰려들면서 스위스 뱅크처럼 검은 돈의 은닉처로 활황을 맞고 있다. 넷째, 우루과이 대학 럭비 팀이 칠레 산티아고로 향하다가 안데스 4,200m 고산에서 비행기 조난사고를 당했다가 극적으로 16명이 생존해 화제가 되었던 영화 “얼라이브(Alive)”의 주인공들이 아직 살아 있는 곳이다. 1972년 10월 13일, 승무원 5명, 승객 40명이 탑승한 우루과이 공군의 쌍발 터보 프로펠러기인 페어차일드 FH-227D는 안데스 산맥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에 휩싸여 모젤로 산 중턱에 격돌하면서 기체가 동강이 났다. 사고로 좌우 날개가 떨어져 나갔고, 동체도 두 동강이 나면서 승무원과 승객 29명이 죽고, 16명의 생존자들은 영하 42도의 설산에서 72일간 사투를 벌여야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생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죽은 동료의 시신 중 엉덩이 살을 도려내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함께 먹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인육을 먹을 생각을 했단 말인가? 윤리적인 문제로 한동안 떠들썩했던 실제 사건이다.

몬테비데오에서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페닌술라 뿐만 델 에스페가 있다. 몬테비데오와 달리 청아한 쪽빛 바다가 눈부신 곳이다. 파스텔 풍으로 칠한 동화 속 그림 같은 집들과 하얀 백사장, 일몰과 일출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 햇볕에 일광욕하던 물개들이 한가로이 자맥질하는 그곳은 하늘 아래 빠라이소(천국)임에 틀림없다.

파란 천국 모로코이 치치리비치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불과 서너 시간이면 도착하는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카스는 남미 대륙의 관문이다. 카리브해와 맞닿은 라 과이 국제공항에 내려 해발 900m에 위치한 까라카스(Caracas)까지는 험준한 산악도로를 오르는 길이다. 열대 우림지역에 있을 법한 무성한 나무들은 온데간데없고, 민둥산 산자락 좌우편에는 도시빈민들의 서글픈 달동네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을 뿐이다. 벼랑 끝 같은 기슭에 게딱지처럼 내려앉은 빈민가는 시작도 끝도 없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흡사 난지도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곳에 산그림자 짙게 기우는 밤이 되면 흡사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쳐 놓은 안개등처럼 깜박거린다.

베네수엘라의 바리나스 주 사바네따에서 태어난 우고 차베스(Hugo Chavez, 56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았다. 그는 군 출신 같지 않은 해박한 지식, 라틴문학과 역사에 정통한 그는 소신 있는 명연설로 대중을 휘어잡았다. 일관된 그의 신념은 뿌리 깊은 토호 세력들과 엘리트 그룹으로 형성된 철옹성 같은 정치권, 이들과 결탁한 다국적기업들의 횡포로 노예생활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빈곤하게 살아가는 중남미의 서민들과 토착 원주민들의 빈곤과 문맹 퇴치에 두고 있다. 석유를 판 돈으로 절대 다수의 빈곤층의 마음을 휘어잡는 포퓰리즘으로 1999년 집권 이후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 왔다. 오일 업자들의 파업, 신임을 묻는 소환투표, 세 차례에 걸친

수구 세력들의 쿠데타 시도를 겪는 시련도 있었지만 대다수 가난한 민중들의 변함 없는 지지와 신뢰로 7전 8기의 오뚜기 같은 정치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산업, 국가기간 산업과 의회, 사법부를 차례로 장악해 권력을 확대해 온 차베스는 2027년까지 장기 집권하여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 장군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대업을 완성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

북위 13도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연안에는 숨겨진 비경이 즐비하다. 까라카스 서북쪽, 카리브해로 연결돼 있는 팔콘(Falcon) 주에 모로코이(Moroccoy) 해상 국립공원이 있다. 연중 섭씨 26~30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담백한 모로코이 공원에는 보카 데 아로아(Boca de Aroa), 뚜까까스(Tucacas), 썬나레(Sanare), 플라밍고(Flamenco), 치치리비치(Chichiriviche) 등 끝도 없이 카리브해의 아름다움과 낭만이 펼쳐 있다. 바다 깊이에 따라, 물 아래 모양과 산호초의 다소에 따라 카리브해 바다는 칠색조처럼 다양한 색깔을 띤다. 깊은 바다는 흡사 사파이어처럼 파랗고, 얇은 바다는 푸르고, 연안으로 가까울수록 연한 하늘색으로 형형색색을 이룬다.

뚜까까스 해변의 신사 플라밍고(Flamingo, 홍학)는 동백꽃처럼 붉다. 야자수와 열대림이 녹색의 숲을 이룬 곳에 백학과 홍학이 섞여 군무를 이루면 움직이는 거대한 홍백꽃이 된다. 치치리비치 해변은 파란 천국 같다. 밀가루 같은 하얀 백사장에 몸을 누인 채 달큰한 꼬꼬(coco) 주스를 마시며 보내는 망중한은 차라리 꿈만 같다.

에콰도르의 장수촌 빌카밤바



에콰도르 남쪽 하단부, 페루와 국경이 가까운 로하(Loja)에서 남쪽으로 52km 떨어진 곳에 천국의 작은 정원 같은 도시가 있다. 일본 오츠기시 오카하라, 네팔 북쪽 티벳과 파키스탄 근처의 훈자(Hunza), 러시아의 코카서스 압하지아(Abkhasia)와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의 빌카밤바(Vilcabamba)를 세계 4대 장수촌(valle de la longevidad)이라 부른다. 이들 장수촌의 공통점은 맑은 공기,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성한 물, 무공해 푸른 채소와 소식 습관, 부지런히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낙천적인 삶을 들 수 있다.

‘빌카밤바’는 끼추아 인디오 말로 ‘무서운 계곡, 신의 계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스페인 침략자들의 학정을 피한 잉카 인디오들이 안데스 만당고 산계곡에 안식처를 삼았던 것이 유래다. 적도에 위치하지만 만년설로 뒤덮힌 안데스 고산준령에 둘러싸여 있고, 해발 1,565m 구릉에 위치하여 일 년 내내 섭씨 18-28도를 웃도는 천혜의 기후가 펼쳐진다. 10월부터 5월까지 우기고, 나머지는 건조한 건기가 계속된다. 습도 77%, 강우량 781.4mm, 음이온이 녹아 있는 공기, 청정 지역의 밤하늘에는 수천 수만의 별들이 거대한 천체 쇼를 벌이며 밀어붙 속삭인다. 매일 새벽 2-4시 사이 약 20분간 공중 방전현상(atmospheric discharge)이 빌카밤바에 나타나는데, 이런 전자기장이 장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천국의 정원에는 다양한 초목과 원색에 가까운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

어 올랐는데, 우일꼬(Huilco) 나무는 그중 백미에 속한다. 가느다란 미모사 잎을 무수히 달고 있는 성스러운(Valle del arbol sagrado) 나무는 산소를 뿜어 내어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킨다. 특별한 약리작용으로 심장질환자에게 효험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안데스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찬물은 손을 에릴 듯 흘러내리고, 얼음 같은 물 속에는 다량의 마그네슘, 철과 미네랄이 가득 담겨 있다.

주민 5,460명 중 90세 이상이 50여 명이며, 최고령자의 반열에는 140세, 130세, 120세도 여러 명 있다. 빌카밤바에서는 80대가 청년으로 불린다. 천혜의 ‘면역의 계곡’으로 불리는 그곳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다. 대신 자연에서 나는 약초를 끓여 마시고 약초를 통해 병을 치유한다. 유일하게 있는 보건소가 하는 일은 가끔씩 종합 비타민제를 나눠 주고, 회충약을 나눠 주는 일이다.

빌카밤바의 100세 노인들의 장수 비결은 특별하지 않다.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한 매일 조금씩이라도 즐겁게 일한다. 일이 생명을 연장하는 활력소가 된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아구아 데 이에로(Agua de Hierro, 철 성분이 담긴 약수)’도 비결 중 하나다.

유카, 옥수수, 바나나를 즐겨 먹으며, 음식 조리시 기름 사용을 즐겨하지 않는다. 화학성분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감미료 빠넬라(Organic Panela)를 만들어 달콤하게 먹는다. 백설탕이나 흑설탕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빠넬라에는 비타민 E, 인, 칼슘, 마그네슘, 포타시움, 철이 풍부히 담겨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200kcal 정도의 낮은 열량의 식사를 한다.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식사하되 소식한다. 건강의 적인 흡연과 음주는 물론 하지 않는다. ‘세다’라는 콩을 많이 먹고 마른 체격을 유지한다. 두통약 대신 사탕수수 발효주 ‘분타’를 마신다.

황제 나비의 천국 멕시코



마누엘 피코이타(95세) 할아버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비탈길에 있는 밭에서 일을 했지만 손자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하여 다섯 명의 고손자들을 돌봐 주고 용돈을 받는 것으로 부업을 바꾸었다. 바우띠스따 옹(99세)은 치아에 조금 문제가 있을 뿐 미소 띤 얼굴에는 여전히 멋진 수염이 잘 다듬어져 있다. 노년의 외로움은 5대가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 곳에 파고들 틈이 없다. 노인들의 얼굴에 저승꽃이라 불리는 검버섯이 없다. 다만 세월의 깊이만큼 인자한 주름만 가득할 뿐이다.

빌까밤바 품속에서는 세월조차 쉬어간다. 미국과 멕시코에서 몰려온 신흥 부호들이 조용하던 장수촌에 호화판 별장을 짓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걱정이다.

멕시코 시티 북쪽, 미초아칸(Michoacan) 주의 ‘엘 로사리오(El Rosario)’는 ‘마리뽀사 모나르까(Mariposa monarca, monarch butterfly, 황제나비)’의 ‘빠라이소(Paraiso, 천국)’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비들의 서식지는 인공적인 요소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다. 형형색색의 수천, 수만의 나비들이 펼치는 군무는 숨을 멎게 하는 장관이다. 매년 3월이면 미초아칸을 떠난 나비들이 미국, 캐나다까지 종단하며 세상 꽃구경을 다하고, 11월이면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4,000~5,000km를 비행하여 다시 피한지로 돌아온다. 애초로워 보이는 나비들은 지상에서 50m 높이를 유지하면서 20km 속도로 80km를 난다. 장장 15~17일 동안 쉬 없이 날아야 한다. 낮에는 사력을 다해 비행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며 영양분을 축적시켜 고통스런 항진을 완주한다.

1975년 캐나다 동물학자인 프레드 우르거트(Fred Uriguhart)는 황제 나비의 이동 경로를 발견하기 위해 10만 마리의 나비에게 스티커를 부착했다. 과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멕시코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것이다. 그는 스티커가 부착된 40마리를 미초아칸에서 발견하자 생명의 경이로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가 밝혀낸 황제 나비의 비행 비밀이 놀랍다. 나비들은 상승 온난기류를 이용할 줄 알았다. 기류를 타고 물 흐르듯이 앞으로 나가

는 여행을 통해 비행기로도 결코 쉽지 않은 머나먼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멕시코 미초아칸 지역은 '씨에라 마드레 옥시덴탈(Sierra Madre Occidental)' 산악 지역으로 해발 2,000~3,500m의 서늘한 고지대다. 그곳에 아름답 리 가문비 나무, 전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고단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수천만 마리의 나비들의 안온한 휴식처로 사용된다. 백만 송이 장미를 피 워낸 듯한 나비들로 나뭇가지가 입추의 여지가 없어지면 더이상 나무 숲이 아니라 '나비 숲'이 되고 만다. 나비들이 얼마나 빼곡한지 나비의 체중을 견 디지 못해 나뭇가지가 휘청거리다가 결국 찢어져 고사하고 만다.

미초아칸은 황제 나비의 고향이다. 짝을 찾아 구애하는 곳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다. 알에서 갓 부화한 구사노(애벌레)들이 초록을 먹고 작은 누에고치 같은 고치를 만들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이듬해 따스한 봄날, 탈피를 위한 꿈틀거림이 멈 없이 이어지고 나면 연분 홍 옷에 검은 띠를 찬란하게 두른 황제 나비가 세상을 향해 힘껏 날개짓하 며 솟아 오른다. 미초아칸의 마사와, 오토미 인디오족들은 이 나비들이 죽 은 아이들의 수많은 영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비가 돌아오는 계절이면 축제를 벌이고 독특한 제의를 마련한다.

황제 나비가 짙은 녹색의 솔나무 잎사귀와 어울리면 연분홍 꽃봉우리 처 럼 변한다. 황제 나비가 물을 마시려고 땅에 내려앉으면 차가운 포도 위에 흩날리는 가을 낙엽처럼 스산해진다. 겨울 폭풍에 함박눈을 온 산야에 흩 뿌리듯 어지러운 나비들의 군무는 황홀한 자연의 신비다. 경이로운 생명의 약동을 보기 위해 미초아칸에 오른 여인의 어깨 위에 앉으면 '나비 부인'이 된다. 관광객의 편안한 손바닥에 앉아 다정하게 함께 걷고, 장난기 많은 소 년의 코끝에 앉아 향긋한 봄날의 향기를 전하기도 한다.

기상정보 제공업체는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춥고, 눈도 더 많이 내 릴 것으로 예보한다. 해수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라 니냐(La Nina)' 현 상으로 인해 더 춥고, 눈도 더 많을 것이라 한다. 눈보라 치는 혹한의 추위를 피해 마리뻘사 모나르까처럼 따뜻한 남쪽 나라로 잠시 피했다 다시 돌아 올 수는 없을까. 월동 채비를 단단히 해야 할 텐데,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해 서 안타깝다.

안데스의 여왕 뿌야 라이몬디



열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바오밥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식물 중 신비한 나무로 불린다. 평균 높이 20m, 둘레 10m의 원통형 나무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수목 중 하나이다. 프랑스 식물학자 M. 아단송(Michel Adanson)이 생긴 모습이 웅장하고 기이하여 바오밥이라 명명했다. 아프리카인들은 바오밥을 신성한 나무로 숭배하여, 산 나무에 구멍을 뚫어 시신을 매장하여 기념하기도 한다. 별명이 '죽은 쥐나무'인 것은 식용으로 쓰이는 열매 모양이 죽은 쥐가 매달려 있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잎과 가지는 사료로 쓰인다.

평균 수명이 5,000년인 바오밥나무와 연관된 전설이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후, 각 동물들에게 묘목 한 그루씩 나눠 주시면서 세상에 심으라고 하셨다. 하필 사냥고, 지저분하며, 멍청하기까지 한 하이에나가 바오밥 묘목을 받게 될 줄이야. 하이에나는 서둘러 심느라 나무뿌리와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꾸로 심었다. 결국 바오밥나무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보는 이마다 기이한 형상에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든다. 가을 단무지용 무처럼 길게 뻗은 몸통에, 몇 가닥 녹색 무청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콜로세움을 떠받치고 있는 갈색 대리석이랑 같다. 곧게 뻗은 우람한 기둥 위에 나뭇가지 몇 개, 무성치 않은 녹색의 잎들이 단조롭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기도 하다.



— 안데스 산맥 알토안디나 고원에서 자라는 뿌야 라이몬디

반면 안데스 산맥 해발 3,200~4,800m 높이의 알토안디나(Altoandina) 척박한 고원에서 자라는 '뿌야 라이몬디(Puya Raimondii)'도 희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배수가 빠른 토양, 영하 6도 근처의 고랭지, 하루 종일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서 수령 80-100년까지 자라는 뿌야 라이몬디는 안데스의 황야를 지키는 고독한 숙녀 같다.

고산지의 춥고 황량한 산기슭에서 단 한 번, 수천의 크림색 꽃을 활짝 피운 후 황금빛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고고한 자태 때문에 '안데스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아주 오래된 화석식물로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린다. 지상 최대 파인애플과(bromeliad, Cerpaxylon Palm) 관상식물로 남아메리카에 약 12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둥근 하단부 잎 부분은 직경이 3m, 꽃대의 높이가 10~13m까지 자란다. 영하 6~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와 척박한 환경 때문에 수목이 자랄 수 없는 안데스 고원에서 홀로 곳곳이 서 있다.

페루 아야꾸초, 볼리비아 꼬차밤바 바카스,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에서 자생하는 희귀종으로 45만 그루 이상이 있다. 프랑스 과학자 알시드 도비니가 1830년, 볼리비아 꼬차밤바주의 해발 3,960m 바카스(Vacas)에서 처음으로 발견했고, 유명한 식물학자 안토니오 라이몬드의 이름을 붙여줬다.

페루 리마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협곡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뿌야 라이몬디의 아랫부분은 둥그렇고, 그 위에 높게 달려 있는 꽃대는 연녹색 기다란 칼자루처럼 생겼다. 둥그런 하단 부는 에네깁 선인장처럼 날렵한 칼모양의 길고 뾰족한 잎이 촘촘히 연결돼 있다. 잎의 양면에는 흡사 전기 튕달같이 날카로운 가시가 듬성듬성 박혀 있다.

뿌야 라이몬디는 일생 동안 단 한 번 꽃을 피우기 위해 100년을 기다리는 식물이다. 단 한 번의 꽃을 피우기가 죽을 만치 힘들었던가. 개화 후에는 아래 등지부터 천천히 말라 황금색으로 변하고, 찬란했던 꽃대는 검게 타들어가다 끝내 죽고 만다. 꽃을 피우기 위해 짙은 녹색이 점차 짙은 보리 이삭처럼 누런 크림색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드디어 100년째 되는 해, 800~1,200만개의 씨를 품은 8,000여 개의 꽃망울이 일시에 터지면 안데스 산골짜에는 지상 최대의 향기로 싱그러워진다.

뿌야 라이몬디의 수천의 꽃들은 백합화와 흡사하다. 짙은 오렌지색 꽃술 사이에 숨겨둔 꿀을 찾는 손가락 마디만한 삐까플로레스(Pica Flores, 별새)는 부지런히 날갯짓하며 숨어든다. 고독한 안데스를 꽃의 향연으로 축복하신 조물주의 위대한 숨씨를 찬양하듯 아길라(aguila, 독수리)가 창공 저 높은 곳으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 읽을 거리 ③ ||

게릴라의 전설 체 게바라(Che Guevara)

2007년 10월 9일, 사망 40주기를 맞은 체 게바라의 열풍이 다시 중남미에 불고 있다. 체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널리 퍼진 검은 베레모, 구겨진 군복, 덩수룩한 머리와 수염, 열정적인 눈빛과 굳게 다문 입은 지금도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다. 쿠바의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Alberto Corda)의 사진을 그가 사망한 지 일 년 후 아일랜드 짐 피츠패트릭(Jim Fitzpatrick)이 블랙, 화이트, 레드 세 가지 색만으로 강렬하게 그렸다. 그후 체의 초상화는 그를 저항과 열정의 아이콘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페인 북쪽에 사는 바스크족은 유럽 대부분의 인종이 인도, 유럽어족을 쓰는 것과 반해 지구상 존재하는 어떤 언어와도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바스크어를 쓴다.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바스크족 부모 밑에서 태난 체는 바스크어로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바스크족의 후예 중 게릴라의 전설, 좌파 공산혁명의 영웅으로 불려지는 에르네스토 라파엘 게바라 데 라 세르나(Ernesto Rafael Guevara de la Serna)는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로자리오에서 미숙아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에르네스토 게바라 린치는 귀족의 후손이었고, 모친 세실리아 데 라 세르나는 독립전쟁 당시 군인 집안의 딸

이었다. 평생 동안 체 게바라를 괴롭힌 천식은 그의 나이 두 살 때 시작되었다. 천식이 심해지자 체의 부모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꼬르도바로 이사했고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쳤다.

본래 체 게바라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꿈이었다. 194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의학부에 입학한 체는 공부를 다 마치기 전 두 차례 모터 달린 자전거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며 오랜 억압과 가난에 지쳐 있는 민중들, 그리고 한센씨 병으로 고통받는 인디오들과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짓밟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사회주의 혁명의식의 뿌리를 갖게 된다. 빈곤문제는 혁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게 된다.

1952년에 볼리비아 인민운동에 참가하여 외국자본의 수탈 반대를 시작으로, 1953년에는 과테말라에서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을 했고, 1954년에 멕시코로 망명한다. 1955년, 망명지 멕시코에서 쿠바 출신의 피델 가스뜨로와 뜻을 같이했고, 1956년 그란마 호를 타고 쿠바에 상륙하여 친미 성향의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1959년 1월 아바나로 입성하여 쿠바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혁명을 승리로 이끈 체 게바라는 쿠바 공산당의 제2인자가 되어 쿠바 혁명정부의 요새 수비대 사령관, 쿠바 국립

은행 총재, 공업부장관, 쿠바 통일혁명조직 전국지도부 및 비서국에서 일했다. 하지만 체는 쿠바에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혁명을 위해 1965년에 아프리카 콩고로 스며든다. 1966년, 볼리비아 바리엔토스 정권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인다. 1967년 10월 8일 미국 CIA의 밀고로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잡혀 10월 9일에 총살당했다. 그의 시체는 볼리비아 정글 라 이게라에 3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997년에 발굴되어 그가 혁명가로 활동했던 쿠바로 이송되어 안장되었다.

체 게바라가 지금껏 지구촌 젊은 세대의 동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세계 이상주의자들의 영원한 영웅이 된 진짜 이유는 의사로서, 쿠바 공산혁명 제2인자로서 안정된 삶의 지위를 떠나 혁명을 위한 높은 이상과 정열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체 게바라의 전문가 장 코르미에 에이에라는 그의 저서 『체 게바라 평전』에서 밝힌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인간은 꿈의 세계에서 왔다.”는 생전에 남긴 체 게바라의 연설이 가슴을 파고든다.

4부 라틴아메리카,
그들의 문화와 자연



가난해서 슬픈 나라 볼리비아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볼리비아는 남미 최빈국으로 꼽힌다. 2005년 일인당 GDP 2,817달러로 세계 125위에 랭크됐다. 남북으로 길게 담을 친 안데스 고산준령으로 칠레와 국경을 이루고,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에 포위당하듯 둘러싸인 땅의 나라 볼리비아는 본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다. 은, 납, 주석, 비스무트에다 남부 썬파 꾸르스 지역에서 천연가스과 석유까지 발굴하기 시작하여 주변국가들의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조물주가 허락하신 천혜의 광물 단지 위에 볼리비아가 세워졌다. 해발 4,760m의 세로 리코(Cero Rico, 부유한 산)에 위치한 뽀 도시를 점령한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삐싸로는 연 인원 800만 명의 안데스 인디오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동원하여 불철주야 은을 채굴했다. 거기서 캐낸 각종 보물과 광물은 무적함대를 앞세워 일약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할 든든한 자금줄로 요긴하게 사용됐다. 풍요로운 자원은 스페인 군대와 총독, 귀족들을 위해 사용될 뿐이었다. 시몬 빠띠뇨(Simon Patino) 대통령은 베르사이유 궁전을 연상시키는 궁을 안데스 골짜기에 짓고 호사를 누렸다. 곤살로 산체스 데 로사다(Gonzalo Sanchez de Lozada) 대통령은 최대 광산 소유주였고, 부를 독식하다가 인디오와 광부들의 봉기로 2003년 하야했고, 현재는 미국 메릴랜드로 망명하여 은둔자로 살고 있다.

뽀 도시에서는 일곱 살이라는 나이에 험난한 막장 인생살이를 시작한다. 갱도에 들어가기 전, 광장 앞에 있는 점토로 만든 띠오(Tio) 악마 주상

아마 썬아, 아마 유야



앞에 독주를 뿌리고, 코까잎 몇 장을 현물처럼 바치고, 담배를 피워 물린 다음 안전과 행운을 기원한다. 곡괭이 하나, 다이너마이트 자루, 카바나이트 초롱불, 배고픔과 고통을 잊게 해주는 코까 잎을 담은 주머니를 차고 갱도에서 하루 15시간씩 두더지처럼 일하고 받는 대가는 고작 8달러다. 구멍이 송송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이리저리 파헤쳐진 수백 미터 아래 지하 갱도는 지열이 30도가 넘고, 물이 차오른다. 안전장치란 아무것도 없다. 천 조각 하나로 간신히 코만 가린 채 습관처럼 코까 잎을 씹어 고통을 마비시켜 버리는 광부들은 빈번한 갱도 사고로, 진폐증에 걸려 마른 기침을 쏟아내다가 짙은 검정색 피를 토하고 40세가 채 되기 전 한 많은 막장 인생을 접고 만다.

현재 국영 광산기업인 꼬미볼(Comibol)은 정상가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다. 고질적인 부패, 비대한 행정, 들불처럼 번지는 광부들의 파업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은 살아남기 위해 코케인의 주 원료인 코까나무를 베야 했다. 삼만 디밀면 어디서든지 광물이 쏟아지는 지하자원의 부국 볼리비아가 남미 최빈국 딱지를 떼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제 주머니만 채우려고 혈안이 된 부패한 위정자들, 살인적인 빈부 격차의 심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정책 부재 그리고 종속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지도력 부재가 그 원인일 것이다. 코까나무 재배자였던 인디오 출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는 살벌한 폭동이 최근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볼리비아 남부 5개 주 산따 꾸르스, 베니, 판도, 타리하, 추키사카는 반정부 시위로 이미 1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남미 좌파의 좌장격인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와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는 쿠데타의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다며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를 추방하는 데 일조하며 중남미에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붕괴로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국이 중남미에서 벌어치는 거센 반미 좌파연대라는 허리케인에 휘청거리고 있다.

‘태양의 왕국(El imperio del Sol)’ 잉카는 콜롬버스 이전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다.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페루의 뿌냐 지역에서 BC 1,000년경 크게 번성했던 잉카는 왕을 ‘태양의 아들’로 불렀다. 주변 국가들의 이방신 ‘빠차맘마’ 같은 신은 탄압하고 잉카의 위대한 태양신을 숭상하도록 했다.

잉카의 수도 꾸스꼬를 중심으로 해발 4,000m를 넘나드는 고산준령 안데스 산맥 일대를 두루 지배한 잉카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북서부 지역까지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다. 12세기에는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의 나라로 성장했다. 15세기말에는 지금의 페루 전 지역과 칠레, 에콰도르에 걸치는 인구 1,200만 명의 대제국을 이뤘다.

잉카는 해안을 따라 3,600km의 도로를 건설하고 안데스 산맥과 나란히 도로를 낼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었다. 잉카에는 말이나 바퀴 달린 운송수단이 없었다. ‘퀴푸’라는 과발끈이 릴레이식으로 매일 240km의 거리를 달려 황제의 지엄한 명령을 전달하고, 수행 여부를 보고했다.

그런 잉카 제국 전사들의 평균 키는 불과 157cm에 불과하고, 여자의 평균 키는 145cm였다고 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에 비해 왜소하기 그지없는 그들이 거대 제국을 이끌었다는 것이 경이롭다. 해발 수천 미터 고지에서도 거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특이한 신체조건을 가진 잉카 인디오는 다른 종

돈데 보이(Donde Voy)



족들보다 세 배 이상 뛰어난 폐활량, 유난히 느린 심장박동에 혈액도 2리터 이상 많았다. 핏속의 산소를 나르는 헤모글로빈 수치 또한 다른 종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페루 중앙고원 꾸스꼬에서 출발한 거대 제국의 기운은 태평양 연안쪽으로 점점 확장해 나아갔고, 고산지대와 기후의 악조건이 도리어 오랫동안 외부세력의 침략을 저지하는 요소가 되어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잉카 제국의 공용어는 케추아(Quechua). 이와 버금가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아이마라(Aymara)고, 그 밖에도 백여 가지의 인디오 방언들도 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에 의해 제국이 멸망되기 전까지 유구한 역사의 잉카 제국을 지탱했던 네 가지 중심 계율이 있다.

공간을 이루는 주요 계명 중 첫째는 ‘아마 쉰아(Ama Sua)’다. ‘no robar,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는 ‘아마 유야(Ama Llulla)’다. ‘no mentir,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다. 셋째는 ‘아마 께야(Ama Quella)’로, ‘no holgazan, 게으르지 말라’는 의미다. 넷째는 ‘아마 윙까(Ama Llunk’a)’로 ‘no chistar, 타인을 비난하지 말라’다. 잉카 제국에서는 건강한 제국을 유지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했다. 왕족과 귀족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했다. 지도층 인사들의 범법 행위에는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가해졌다. 존경과 신망을 저버린 인사들의 죄를 엄격히 다스렸다. 신분의 고하,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법이 굵대 없이 함부로 널뛰듯 춤추지 않았다. 법 앞에서 모든 잉카의 신민들은 평등했고, 엄정무사한 법 집행을 받아야 했다. 계율을 어긴 자는 공개 태형, 공개 처형을 받는 게 당연시 됐다.

‘아마 쉰아’, 그 정신이 지금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가진 자들이 더 갖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이 세상을 향한 잉카 제국의 외침이 아닐까?

새색시 부끄러운 뺨처럼 붉게 물들어 가는 가을에 다시 부르고 싶은 추억의 노래가 있다. ‘티시 이노호사’가 부른 ‘돈데 보이(Donde Voy,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다. 1955년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출생한 티시 이노호사(Tish Hinojosa), 모친은 멕시코나이고 부친은 미국인으로 영어와 스페니쉬에 능통한 포크 싱어다.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의 애환을 가사에 담은 ‘돈데 보이’를 불러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직 시 백악관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돈데 보이’의 영어 버전은 ‘Tears(눈물들)’이다. 1956년 대만 타이중에서 출생한 ‘치 유(Chyi Yu)’가 불러 아시아권에서도 선풍적인 인기 물이를 했다. 대만의 ‘존 바에즈(Joan Baez)’로 불리는 ‘치유’의 목소리는 박인희의 음색처럼 맑고 투명하다. 가사의 뜻을 잘 몰라도 목소리에 담겨 있는 포근한 서정 때문에 금세 빠져들게 한다. 한국에서도 1990년 김수현 극본의 MBC 드라마 ‘배반의 장미’ 주제곡으로 사용되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고생하던 멕시코나가 친신만고 끝에 돈을 벌어 ‘노비오(novio, 애인)’와 빨리 재회하고 싶어하는 그리움과 못 다 이룬 사랑을 애절하게 노래한 곡이다.

킨쥬리 포크 싱어답게 티쉬 이노호사가 통기타를 연주하고, 콘트라 베이스의 묵직한 저음이 뒤를 받쳐 주면 특별한 다른 악기가 필요 없다. 단조



—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

로움을 피해 아코디언과 소프라노 색소폰, 베이스 기타와 퍼커션으로 화음을 꾸며도 곡에 담긴 애뜻함은 여전히 살아난다.

“동 터 오는 새벽이 나를 깨우고 밝은 하루가 시작되어도 나를 이민국에 신고하지 말아 주세요. 내 마음에 느끼는 고통은 사랑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입니다. 그대를 그리워하며 그대의 입맞춤과 애정을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그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그대가 내 곁에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서도 그대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도망자처럼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희망을 찾고 싶어요. 나는 사막을 헤매는 도망자처럼 혼자가 되어버렸답니다. *Donde Voy, Do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on, Solo estoy, Solo Estoy, Por el monte profugo me voy...*”

북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산재한 80만 명의 라티노들 대부분은 중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니카라과, 멕시코에서 온 이주민들이다. 남미의 유럽국가로 불리며 1인당 GDP 14,300달러의 칠레와 정치적으로 안정된 코스타리카 출신 라티노들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3,360km의 장벽이 쌓여 있다.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휴전선의 10배 이상 규모다. 2000년 초반에는 170만 명 이상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어 멕시코로 돌려보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계속되는 미국 내 경기 침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를 무겁게 책벌하면서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년 55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다 체포된다. 3m의 높이로, 1,170km 가까이 2중으로 둘러싸인 철벽을 넘다 수백, 수천의 이름 모를 라티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시작도 못 해본 채 불귀의 객으로 가없는 생을 마감한다. 과학적인 장비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비대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가까스로 밀입국한 라티노들이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다.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가족과의 재회가 기약 없어 ‘돈데 보이’를 읊조릴 때면 더욱 처연하다.

라 노비아(La Novia)



이탈리아의 대중적 가요를 통틀어 칸초네(canzone)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출발하여 몬페카를로스를 지나 이탈리아 국경으로 접어들면 지중해 해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썬 레모(San Remo)를 만난다. 1951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일환으로 시작한 썬 레모 가요제는 1964년부터 외국 가수까지 초청하는 국제 가요제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칸초네를 일약 세계적인 가요로 알리는 데 공을 세우게 된다. 13세기 초 나폴리에서 유행하던 나폴레타나(napoletana)는 어부들이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노래를 바치던 풍습이 빼에디그로따 페스티발(Piedigrotta festival)로 자리잡으며 유명한 노래 축제가 되었다. 이 페스티발이 전문 가수의 등용문으로 변화하였는데 나폴리를 비롯한 전 이탈리아 축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58년 썬 레모 가요제에 도메니코 모두노(Domenico Modugno)가 ‘볼라레(Volare, 비상)’로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며 기염을 토하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칸초네와 썬 레모 가요제는 선풍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오 솔레 미오(O Sole Mio, 나의 태양)’, ‘싼타 루치아(Santa Lucia)’ 등은 고교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안면에 미간을 깊게 좁혀가며 목청껏 불렀던 곡들이다.

조니 도렐리(Johnny Dorelli)와 밀바(Milva)가 불렀던 ‘L’immensita’은 국내에서 한경애가 ‘눈물 속에 피는 꽃’으로 번안하여 애절하게 불렀다.

“눈물이 흐르듯 마음도 흘러 서러울 때 얼룩진 꽃은 피는가 가버린 사랑 그 리워서 눈물에 젖어 꽃잎은 지는데 가버린 사람이 지금은 나를 잊었나(E non mi scordera, si, io lo so, Tutta la vita sempre solo non saro, Un giorno trovero).”

1981년 한국에서 공연한 바 있는 토니 달라라(Tony Dallara)는 절규하는 듯한 독특한 창법으로 ‘La Novia(애인)’을 불러 인기를 얻었다. ‘라 노비아’는 본래 남미의 호아킨 빠리에뜨가 작곡한 곡으로 스페인에서 불려지던 곡이었다. ‘라 에스빠사(La Esposa, 연인)’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사랑하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슬프게 지켜본다는 실연의 노래이다. 질리오라 칭케띠(Gigliola Cinquetti)의 칸초네도 좋지만 토니 달라라만 못하다. 줄리 로저스(Julie Rogers)가 ‘The Wedding’이라는 제목으로 부르기도 했다.

과테말라 라비날이 고향인 리오넬 오쏘리오(39세)는 최근 3주간 동안 지옥의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의 애난데일 지하 살림집에서 술에 취해 울며 애간장을 태웠다. 성실하고 다정하던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다가 기도하다, 미친 듯이 배회하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유는 그의 아내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소식 때문이다. 8년째 낫선 땅에서 날품팔이로 떠도는 그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알뜰살뜰하던 그의 아내 텔마 모랄레스(37세)에게 ‘엘 노비오(El Novio, 정부)’가 생겼다는 소식을 처남을 통해 듣고 실의에 빠졌던 것이

다. 아내의 ‘노비오’가 하필이면 자신의 미국행을 위해 선뜻 밀입국비를 내어 주었던 고향 친구 엔리께(39세)라니. 어미 없이 버려질 철부지 두 아이는 누가 거들 것이며, 아직 갓지 못한 오천 불의 빛은 어찌할지. 외기러기 날개 짓을 접고 단숨에 달려가면 해결할 수는 있을까.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 변심한 아내와 노비오에 대한 분노는 피고름 가득 찬 종기처럼 잔뜩 성이 나 있다. 그의 초췌한 어깨를 감싸고 기도하는데 눈물 속에 꽃이 처연히 피어 오른다.

프레스 베세스 모하도(Tres Veces Mojado)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강이 미국에 있다. 미네소타 이타스카 호수(Lake Itasca)에서 발원하여 아이오와, 미주리, 아칸소, 루이지애나, 텍사스를 굽이 돌아 멕시코만으로 빠지는 미시시피(6,270km) 강이다. 수량이 많고 완만하게 흐르기까지는 여러 지류들이 더해졌다. 미주리 강, 오하이오 강, 테네시 강, 레드 강, 아칸소 강이 합쳐졌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 “툼 소녀의 모험”에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미시시피 강이다.

미국 남서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를 흐르는 3,034km의 강이 리오 그란데(Rio Grande, 큰 강)이다. 콜로라도 주 산 후안(San Juan) 산맥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뉴멕시코 주, 텍사스 주의 엘 파소(El Paso)까지 흘러 멕시코만으로 빠진다. 리오 그란데는 강 남북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텍사스 주의 엘 파소와 멕시코 치와와 주의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arez) 사이로 흐르고, 1848년부터 국경을 이룬다. 멕시코에서는 이 강을 리오 브라보(Bravo)로 부른다. 리오 그란데 강은 두 나라의 경계이면서, 불법으로 넘어오려는 라티노들의 발목을 붙잡는 절망스런 장벽이다. 멕시코 내 최다 밀입국 현장인 마따모로소 앞을 흐를 즈음에는 어지간히 물살이 세고, 깊을 뿐만 아니라 식인 악어까지 서식하여 많은 도강자들을 제물로 삼으며 도도히 흐른다.

국경을 넘겨 주는 코요테 마피아들이 무동력 고무 보트에 밀입국자들을 태운다. 살바 비다(Salva Vida, 구명조끼)도 없이 좁은 보트에 십여 명이 춤

라티노의 장례 문화



춤히 올라타면, 옷통을 벗은 행동대원이 뱃머리에 엮드려 맨 손으로 보트를 저어 강 기슭으로 댄다. 강 북쪽에는 이미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인 픽업 트럭이 시동을 건 채 도착할 손님들을 기다린다.

그믐밤, 농무가 짙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밤에는 밀입국자들의 끈질긴 사투가 더욱 빈번해진다. 야음을 타고 해안을 침투하는 네이비 실(Seal) 승조원처럼, 은밀하고, 조직적이고, 날렵한 시도가 밤새 끊임없이 시도된다. 강을 오르내리며 국경을 감시하는 수비대의 날렵한 고속정이 가끔씩 발견하는 것은 익사한 시신들이다. 부끄럼을 무릅쓰고 비닐봉지에 옷과 소지품들을 담은 후 공기를 담아 튜브처럼 의지하여 가끔씩 빨리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것이 도강 수칙이다. 300달러를 코요테에게 주면 고무보트를 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강을 건널 수 있다. 타이어 튜브에 팔을 걸고 도강하려면 150달러를 내야 한다. 익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낼 수 없는 노약자들과 수영이 서툰 여자들이다. 가끔씩 젊은 청년들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젊은 혈기에 옷을 입은 채 도강하다 익사한 것이다. 허리춤에 고리를 걸어 끌어낸 무명의 시신은 고무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시신을 건져 지문과 사진을 촬영한 후 장례 절차도 없이 매장하는 일이 국경 수비대의 또 하나 일과다.

1989년, 호세 루이스 우르끼에따(Jose Luis Urquieta) 감독이 만든 “프레스 베세스 모하도(세 번 물에 젖다)”는 목숨을 걸고 밀입국하는 라티노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가난한 엘살바돌 농부가 출산 도중 아내가 죽자, 갓 태어난 아들을 노모에게 맡기고 미국행을 시도한다. 과테말라 국경을 건너며 등이 젖는다. 천신만고 끝에 미 국경을 넘었지만 끝내는 광야 불모지에서 윤행방황하다 참혹하게 꿈이 깨져버리는 내용이다. 살 길이 막막해서, 끼니가 없어서 도시빈민들은 겨울을 두려워한다.

1960년대 문화생활이라면 집에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를 갖춘 부유한 생활을 지칭하였다. 7, 80년대에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향상되면서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를 가는 인간 삶의 미적 개념을 다루는 고급스러운 차원의 생활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 세워졌다. 실제로 문화란,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영역에 관계된 개념이다. 루이스 루즈베탕은 “문화란 삶을 영위하는 방법(design, pattern)이다. 한 사회가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들의 집합체가 문화다.”라고 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모아 놓은 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다.

문화는 공동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 공동체가 올바른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에서는 인정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는 또한 시간의 흐름,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도 변한다. 세대 차이는 시간에 따라서 문화의 기준이 변화되어진다. 문화는 유전에 의해 저절로 세습되지 않는다. 반드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습관되어진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초유를 빠는 것은 문화가 아니다. 수저로 밥 먹는 것, 말하는 것이 문화다.

문화 습득에는 내적문화화(enculturation)와 외적문화화(acculturation) 방법이 있다. 내적문화화란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친척에게서 무의식 중에 학습되어서 문화를 습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된 것이

라티노가 좋아하는 발라드



라 '왜?'라는 질문은 불필요하다. 외적문화화란 한 문화에 이미 내적문화화가 이뤄진 다음에 제3의 문화를 그 문화의 외부자적 입장에서 습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야 하고, 상당히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 습득하면서 '왜?'라는 질문은 항상 따라온다.

뿐만 아니라 문화는 상당히 복잡한 구성형태를 가지고 있다. 로이드 콰스트(Lloyd Kwast)는 문화에는 네 가지 동심원적인 축이 있다고 한다. 행동, 습관, 관습, 제도 등은 문화의 맨 마지막 겹겹데기 외형적인 것이다. 단기간 외국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음식, 태도, 가옥, 의상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란 동심원이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의 기준과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의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달라지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관습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결정하는 신조라는 동심원이다. 과학적인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그 문화권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집합이다. 이 신조에 따라 문화 외부층의 모양이 달라진다. 마지막 문화의 핵이 세계관이다. 이 세계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문화권 내의 답으로 구성되고, 이 세계관에 따라서 신조도 결정된다.

서구인, 서구의 세계관은 영적인 존재(하나님, 천사, 사단)와 생물(사람, 동물), 무생물(산, 바다, 돌)로 구분한다. 자연은 생명이 없는 존재로 보기에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인간의 특권으로 생각한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인디오들이나 아프리카 부족인들의 세계관은 연속된 하나의 영역으로 본다. 최고의 신, 작은 신, 귀신, 사람, 짐승, 산, 바다, 돌 등은 죽음은 단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 의외로 담담하게 죽는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신조를 형성하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이 신조는 다시 각기 다른 가치관을 만들게 하며, 각기 다른 가치관은 다른 행동과 습관, 관습을 만들게 한다.

중미 출신의 라티노 불체자들이 즐겨 부르는 발라드가 있다. 수많은 그룹 중 '로스 띠그레스 델 노르떼'가 단연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들이 부른 공전의 히트곡 중 '헤페 데 헤페(Jefe de Jefe)', '데 빠이사노 아 빠이사노(De Paisano a Paisano)', '뜨레스 베세스 모하도(Tres veces mojado)'를 모르면 간첩이다. 서정적인 노래에 화음을 넣고, 자지러질 듯한 아코디온과 어쿠스틱 기타로 반주되는 라티노 '꼬리도스(Corridos)'를 라틴 발라드라고 한다.

많은 멕시코 마리아치(Mariachi) 그룹들이 화려한 의상과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여 라틴 멜로디를 연주하지만 '로스 띠그레스 델 노르떼(Los Tigres del Norte, 북쪽의 호랑이들)'만큼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지는 못한다.

멤버는 여섯 명으로 리더인 호르헤 에르난데스(Jorge Hernandez)와 그의 네 형제들과 사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대 후반 대부분의 멤버들이 10대였을 때 산호세로 옮겨와 활동하며 음반을 내기 시작했다. 대중의 가려운 부분을 꼭 찾아 긁어 주는 듯한 맞춤형 노래는 3,2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그래미 상도 거머쥐게 했다.

'로스 띠그레스 델 노르떼'가 부르는 꼬리도스에는 다양한 테마가 등장한다. 남녀 간의 사랑, 배신과 이별 이야기, 국경을 넘나들며 금지된 마약을 장사하는 자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장벽처럼 쌓여진 국경 개방을 호소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불체자라고 함부로 부려먹고 노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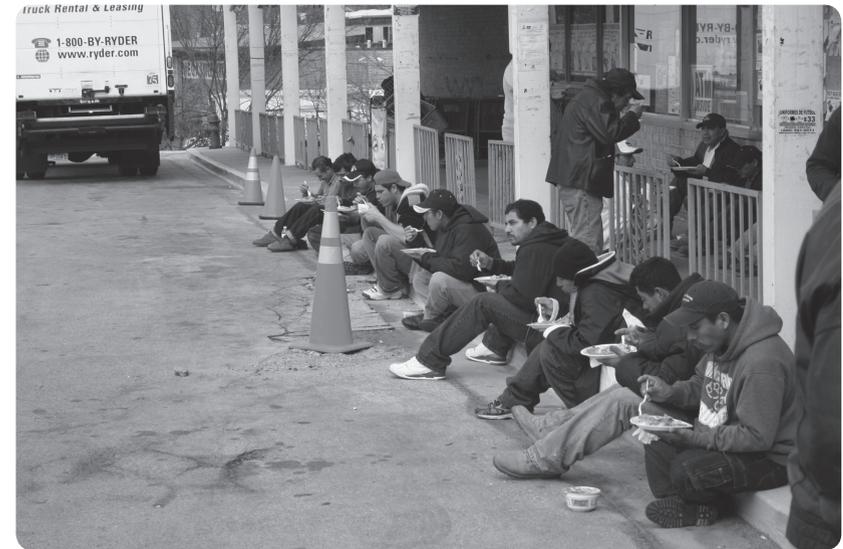
저 잘라먹는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예언자적 메시지도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 내 거주 라티노들은 ‘로스 띠그레스 텔 노르떼’의 ‘꼬리도스’에 심취해 있고, 여전히 식지 않는 성원을 보내고 있다.

‘로스 띠그레스 텔 노르떼’의 ‘꼬리도스’에는 불체자 이민자들의 애환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야심한 밤 국경을 몰래 넘던 아슬아슬한 두려움이 녹아져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라티노 불체자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국경을 서너 번 넘는 상황을 거쳐야 한다. 엘살바도르에서 과테말라 국경까지는 비교적 순탄하다. 이웃한 중미 형제 국가들끼리라 생김새가 비슷하고 언어활용이 비슷해서 이민 경찰의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에 진입해서는 별의별 희안한 난관에 봉착한다. 멕시코에 머무는 두 달여 동안 무자비한 이민 경찰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한다. 일부는 빠딜라(폭력배)에 붙잡혀 돈을 강탈당하고, 밀입국 비용을 마련하려 최저임금을 받고 갖은 일을 하지만 뺏속 깊이 사무치는 냉대와 기가 막힌 울무들은 미국 문턱도 딛지 못한 채 중도 탈락자들을 부지기수로 쫓아낸다.

운 좋게도 살아남은 밀입국자들은 대전역 대합실 같은 베라 꾸르스를 거쳐 멕시코시티로 모여든다. 다음은 멕시코 최북단 노갈리스에서 미 국경을 넘겨 주는 코요테에게 거금의 통행세를 건내고 험난한 루트를 쫓아 생사를 건 밀입국을 시도해야 한다. 인적이 한적한 그믐밤. 국경 수비대의 첨단 감시망을 뚫고 60여 명의 밀입국자들이 가슴 졸이는 미국 내 진입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숨막히는 경험이다.

자주 이용하는 루트에는 이미 국경 수비대의 삼엄한 경비가 포진해 있다. 붙잡힌 대부분의 밀입국자들은 수감되었다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가까스로 추적을 피한 자들은 화씨 130도가 넘는 사막을 며칠이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 지참했던 물은 금세 동이 나고, 키 작은 선인장을 잘라 조금



— 고난의 길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녹녹치 않은 미국생활에 라티노들의 가슴은 늘 아프다..

씩 스며나오는 수분으로 타는 입술을 적셔보지만 성이 차지 않는다. 퍼렇게 이끼긴 썩은 물도 황송할 뿐이다.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했지만 미국생활이 녹녹할 리 없다. 시퍼렇게 멎든 가슴을 단숨에 시원케 할 약으로는 꼬리도스가 그만이다. 그리움이 물씬 풍기는 노래에 라티노 빈민들의 눈시울이 금세 젖어든다. 가끔씩은 한인과 라티노들이 꼬리도스를 함께 들으며 서먹한 마음을 풀어보자.

라틴아메리카의 편 이야기



아메리카 대륙에 다양한 이름으로 분포되어 있는 중남미 21개국,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에 속한 19개 섬나라의 화폐 모습이 이채롭다. 세계 화폐 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하여 카리브해 영국 연방에 속한 섬나라들, 강화도 크기의 그라나다(Grenada)에서부터 광활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듣기에도 생소한 벨리스,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라틴아메리카 편들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국가 대부분이 수백 년간 계속된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19세기말 앞을 다투며 독립했다. 주권국가로 바로 서기까지 질곡 같은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무적함대를 이끌고 세계 바다를 넘나들며 호령했던 에스파냐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북과 남, 동과 서, 지역 간의 방언이 약간씩 다르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스페니쉬 언어권. 낙천적이며 낭만적인 문화, 로마 가톨릭이 국교인 종교, 부패한 군부 독재정권과 빈발하는 쿠데타, 빈민을 양산하는 시민전쟁 등 상당부분이 닮은 꼴인 중남미에서의 화폐는 다양한 이름, 컬러, 문양, 크기로 호기심을 끈다.

멕시코, 도미니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쿠바 등이 화폐 이름을 페소(Peso), 혹은 '새롭다'는 의미의 누에보 페소(Nuevo Peso)로 부른다. 과테말라는 께찰(Quetzal)로, 니카라과는 코르도바 오로(Cordoba Oro), 스페인으로부터 그란 콜롬비아(현재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지역)를

독립시킨 시몬 볼리바르를 기념하여 베네수엘라는 볼리바르(Bolivar)로, 볼리비아는 볼리비아노(Boliviano)로 부른다.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은 헤알(Real), 온두라스는 렘피라(Lempira), 코스타리카는 콜론(Colon), 페루는 누에보 솔(Nuevo Sol, 새로운 태양), 파라과이는 파라니 인디오를 기념하여 파라니(Guarani),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았던 수리남은 길더(Guilder), 아루바는 플로린(Florin),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아이티는 구르드(Gourde), 프랑스령 가이아나는 프랑(Franc), 그리고 영국 연방에 속한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 그라나다,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도미니카 연방 등이 동카리브 달러를 사용한다. 자국 화폐가 기능을 상실하여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세 나라도 있다. 엘살바돌 콜론(Colon), 에콰도르 수크레(Sucre), 파나마 발보아(Balboa) 등이 그것인데 현재는 배추잎사귀처럼 시퍼런 미(美) 달러만이 사용되고 있다.

대륙 국가의 대부분은 독립 영웅, 위대한 영도자들의 영정과 역사적인 건물을 화폐에 넣어 기념하고 있다. 국기에 그려진 상징적인 문장이 화폐 중앙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고, 고대 찬란했던 잉카, 마야 인디오 문명의 피라미드를 다양한 색상으로 넣기도 한다. 뒷면에는 대륙과 바다에 서식하는 새, 동물, 물고기, 농수산물을 수확하는 그림을 생동감 있게 넣고 있다. 감초처럼 화폐에 등장하는 동물로는 일초에 수십 번 날개짓 하며 꽃의 꿀을 따는 뼈까 플로레스 새, 거북이, 표범, 원숭이, 올빼미, 개구리, 심지어 큰 뿔 고동도 있다.

영국 연방에 소속된 섬나라는 국민소득이 높지 않지만 화폐 컬러와 모양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스럽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근엄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화폐는 유럽에서 통할 만큼 세련된 모습을 갖고 있다.

라티노는 가나다라, 한인은 아베세체



— 라티노 노동자들의 겨울은 날씨도, 일자리도 썩썩 얼어붙었다. 굶스폰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만이라도 따스해지기를..

울릉도보다 약간 큰 네덜란드령 아루바(Aruba)의 화폐는 정교한 기하학 그림 같아 시선을 붙잡는다. 남미 북쪽 끝 가이아나와 프랑스령 가이아나 사이에 위치한 수리남의 길더 화폐는 차라리 한 폭의 꽃으로, 사진으로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

과테말라 출신 라티노 노동자들은 겨울에 시름이 더 깊다. 날씨를 따라 일자리도 썩썩 얼어 붙었는지 매일 허탕치기 일쑤다. 모처럼 찾아온 하루 일자리. 품을 팔고 받은 달러를 방꼬메르시오(Bancomercio)에서 송금한다. 연초에는 1달러에 8께찰을 쳐주었지만, 최근에는 달러화 약세로 그나마 7께찰 44센타보로 바꾸고 있다. 단속하는 이민국 경찰이 두렵고, 학수고대하는 식구들이 눈에 밝혀 세모(歲暮)가 아득하기만 하다.

20대 초반에 시작한 공무원 생활 습관으로 30년 넘은 지금까지 내 머리 모양새는 ‘띠뽀 데 오피시나(Tipo de Oficina, 사무원 스타일)’로 고정돼 있다. 뒷머리와 양쪽 옆 머리는 짧게 다듬어져 있고, 양쪽 귀는 언제나 산뜻하게 드러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의 비율은 2:8 모습으로 흡사 깃잎을 닮았다. 다행히 대머리 유전 인자는 없지만 양쪽 이마 끝은 흰할 정도로 술이 빠져 가뜩이나 긴 얼굴이 더욱 길어 보이게 한다.

30세에 훌쩍 떠난 남미 선교지 베네수엘라에서 스페니쉬를 몰라 황당한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다. 사택 인근 쇼핑몰에 있던 루께리아(Peluqueria, 이발소)에서 벌어졌던 해프닝을 생각하면 지금도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게 된다. 베네솔라노 이발사는 잘생긴 은발의 중년 신사였다. 맵시 좋은 카이제르 수염을 달았고 친절한 성품을 지녔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나는 스페니쉬를 전혀 할 줄 몰랐다. 이발 가운을 조심스럽게 둘러 준 후 다정히 내게 뭐라고 물었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대답할 방도가 없어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나를 불쌍히 여긴 그가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

“끼에레 꼬르파르 뽀로? 띠뽀 데 오피시나 오 띠뽀 데 밀리파르(Quire Cortar Pelo? Tipo de Oficina o Tipo de Militar? 사무원 스타일로 깎아 줄까? 군바리스타일로 깎아 줄까?)?”

라틴아메리카의 약이 되는 독초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옷은 세계적으로 약 70속, 600여 종이 있다. 옷나무는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적합하여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개옷나무, 덩굴옷, 붉나무, 검양옷나무, 산검양옷나무 등 6종이 있다고 한다.

밭 둔덕이나 하천제방, 산기슭 부위에서 잘 자라는 옷나무는 줄기가 곧게 올라가며 최고 12m까지 키가 자라고, 직경 40cm까지 크며 둥근 알 모양의 잎에는 가시가 나 있다. 옷나무의 수액을 옷이라 하는데, 천연도료로 칠공예에 훌륭하게 쓰인다. 간 기능 증진, 위장 장애 개선, 그리고 하복부 어혈을 풀어 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여 닭과 함께 푹신 고와서 먹는 참옷은 실제로 먹은 사람 네 명 중 한 명은 효과를 봤다고 하나 대부분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급성 알러지, 전신 발진과 가려움증, 만성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옷 부작용은 커다란 발진으로 시작한다. 긁어도 가시지 않는 극심한 가려움증은 옷오름 72시간에 절정을 이룬다. 간과 콩팥을 침해하는 강력한 독기,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까지 통통 붓게 해 호흡장애를 초래하고 급기야는 목숨까지 잃게 한다. 이쯤 되면 보신하기 위해 먹은 건지, 죽기를 각오하고 옷 오름에 도전한 만용을 저지른 건지 모를 지경이 된다.

‘밀리파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띄었다. 이발사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바리깡을 들이댔다. 정글 숲을 치듯이 단숨에 끊어낸 무수한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졌다. 살벌한 벌초가 끝난 다음의 물결은 갓 입대한 방위병 모습이었다. 3개월쯤 지나서야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스페니쉬다. 제2외국어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고, 미국 내 거주하는 4,500만 라티노들의 언어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 32개국에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4억 2천만 명이 스페니쉬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과학적인 언어 훈민정음과 영어, 스페니쉬는 음소문자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발음하여 모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언어다. 영어 알파벳이 26개, 한글 자모가 도합 28개, 스페니쉬는 영어 알파벳에 Ch, LL, N, RR를 추가한 30개다. 에스빠놀은 영어 어휘와 60%가 비슷하다. 철자 하나하나가 발음기호나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울 때처럼 발음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아서 좋다.

라티노 인구가 미국에 크게 늘어나면서 한인과 중남미 이민자 사이에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하다. 워싱턴 일원에 한인 동포가 약 2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라티노가 약 80만 명 정도 살고 있다. 한인들이 경영하는 크고 작은 업체에 라티노들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가장 큰 고객으로 많은 왕래를 이루고 있다. 한인과 라티노들의 경제적 교류, 인종 간 연합과 화합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원활한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천성적으로 착한 라티노들이 ‘가나다라마바사’를 배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한인들도 ‘아베쎬체데에에헤’를 배워 “올라 꼬모 에스따(Hola! Como esta?)”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라티노들과의 만남과 인연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대 최원철 교수는 옷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 성분을 이용해 넥시아(nexia)를 만들었다고 한다. 암환자에게는 메시아처럼 소망을 주는 넥시아로 암환자 216명 중 53%인 114명이 극적인 회생을 경험케 했고, 2개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4기 말기암 환자를 치료한 결과 22.4%의 암환자가 만 5년 이상 생존했다고 한다. 3기암은 79%, 백혈병(혈액암)은 70%, 폐암 33%가 5년 이상 생존한 것으로 심포지움에서 밝혔다. 신토불이 참옷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신약이 나와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암환자와 환우 가족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에도 약이 되는 독초(yerba de poison)가 서넛 있다. 열대 우림에 해당하는 과테말라의 여름은 독초가 자라는 데 최적의 생육의 조건이 된다. 과테말라 북부 끼체 광활한 열대수림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독초는 캄베시노(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잔인한 악명을 떨치는 독초로는 팰로 데 울레(palo de hule), 띠라 레체(tira leche), 엘 아르볼 데 삐까 삐까(el arbol de Pica Pica), 엘 아르볼 데 치치까스떼(el arbol de Chichicaste) 등이 있다.

과테말라 참 옷나무에 해당하는 이러한 독초들은 7m 정도 자란다. 농부들이 방심하거나 장난삼아 함부로 꺾는 것을 몹시 싫어해서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되값아 준다. 잎 그늘 아래서 한여름 오수를 즐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살림집 주변에 뿌리를 내려보려고 호시탐탐 포자를 뿌려대는데 위험을 무릎 쓰고 제거할 때도 반드시 보복하듯 피해를 안긴다.

정글갈 마썰떼로 가지를 치면 고무 같은 하얀 수지가 흐른다. 마치 흐르는 진한 우유 같다고 해서 ‘띠라 레체’라고 부르는데 액체가 피부에 닿으면 즉시 전신에 빨간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금세 두꺼비 잔등처럼 변해 버

린다. 혹여라도 손에 묻어 눈에 들어가면 소경이 되고, 기관지를 막아 호흡 곤란증이 초래된다. 촌각을 다투어 약사나 의사에게 보이고 급히 해독제를 주사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강성 독초이다.

암을 치료하는 기적의 신약 넥시아처럼, 북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인디오들은 독초 치치까스떼의 잎과 수액으로 약을 만들어 류마티스성 관절염, 뼈가 육신거리고 아플 때 사용한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라티노 노동자들은 봄철부터 늦가을까지 잡풀 제거로 일당을 벌 때가 많다. 청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가든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포이즌 아이비(poison Ivy) 풀 독으로 양쪽 팔이 빨갱다. 참기 어려운 가려움에 화르마시아(farmacia, 약국)에 달려가 크레마(가려움 방지 연고제)를 사서 발라보지만 독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지긋지긋한 가려움이 길게는 한달동안 계속되는데 박박 긁어도 성이차지 않는다. 이쯤되면 쥐꼬리만한 일당은 약값으로 다 써버렸고 햇볕에 검게 그슬린 노동자의 양팔엔 내려 앉은 새까만 피딱지가 가득하다

경우에 합당한 진실된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 세 번 생각한다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비수 같은 말은 영혼의 독초처럼 마음에 박혀 많은 관계 장애를 초래한다. 앞으로는 라티노에게 환하게 웃으며 ‘올라 아미고’라고 불러보자.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동굴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수정 동굴이 멕시코에 있다. 자연산 수정이 빼곡한 동굴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별천지 같은 곳이다. 미국 텍사스 국경 도시로부터 250km 남쪽에 위치한 멕시코 치와와(Chihuahua) 주, 작은 폐광촌 나이카(Naica)의 지하에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 한때 납을 채굴하던 광산이었다. 휘황찬란한 수정 동굴은 지하 300m 막장에 자리 잡고 있다. 탐욕 가득한 사람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려는 듯 습도 100%, 섭씨 50도가 넘는 지열로 이글거리는 곳에 두셨다. 조물주께서 피조물들의 난잡한 삶과 무질서를 보시다가 마음이 심란하실 때 바라보시며 위로를 얻으시는 신비스런 정원이다.

뿐만 아니다. 동굴 가득한 보석을 비밀스럽게 관리하시다가 가난한 이, 병든 이,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넓게 펼칠 때 사용하시는 비자금을 보관한 은행 같은 곳이다. 그 보물 창고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수정이 가득하다.

수정 동굴을 발견한 것이 지난 2000년이다. 막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광부 둘이 굴착기로 광맥을 찾다가 굴 속에 또 다른 동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2층 높이의 꽃물 경기장만한 동굴에는 전봇대 같고, 시베리아 침엽수처럼 쪽쪽 뻗은 수정 기둥이 가로 세로로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카테드랄 대성당의 대리석 기둥처럼 곧게 뻗은 수정 기둥 하나의 무게가 자

그만치 51톤이나 나간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지하 수정 동굴을 돌아보려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 수정이 자랄 수 있는 뜨겁고 습한 환경은 사람에게 위험천만한 악조건이 된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얼음 조끼를 입고서도 30분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옥 같은 극한 지역이다.

주물공장의 화로처럼 뜨거운 지열은 섭씨 50도 이상이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폭양처럼 뜨겁다. 습도 100% 아마존 정글처럼 끈적거린다. 숨이 멎을 듯한 호흡곤란, 여기에 체온까지 더해지면 기절 직전까지 이르는 광부들의 땅끝이다.

수정 동굴의 또 다른 위험은 크레바스(crevasse, 빙하 표면에 생긴 깊은 균열)이다. 갈라진 틈바구니에서 비수처럼 날카롭게 자라고 있는 크고 작은 수정은 단 한 번의 헛발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한증막 같은 동굴에서 수정 생명체가 자라고 숨 쉬며 얼음 성채 같은 비경을 만들어 놓았다. 세미한 광섬유 같은 수정, 입으로 불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은 눈꽃 수정, 켈리 플라워 수정, 산호초 같은 수정, 브로코 플라워 모양의 수정, 칼 같은 수정, 셀레나이트 수정, 실 같은 수정, 보석 같은 수정은 어둡고 무더운 지하에서 갈등과 분열 없이 서로 융합하고 격려하며 자라는 경이로운 생명체다.

안타깝게도 나이카 수정 동굴은 곧 물에 잠기게 된다. 지하 500m에서 솟구치는 물이 시시각각 차오르고 있다. 거대한 양수기가 매일 밤낮없이 400만 리터의 물을 펴내고 있지만 중과 부족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정 동굴은 인간 세상에 신비스런 비경을 잠깐 보여 주고서 다시 영원 속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



— 가난하고 소외된 이, 이방 나그네와 병든 이들을 섬기기 위한 굿스푼의 '목적에 있는 밥퍼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 이방 나그네와 병든 이들을 섬기기 위한 굿스푼의 '목적에 이끄는 밥퍼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월요일에는 팔순의 어르신들이, 화요일에는 예원교회 교우들이, 수요일에는 인터내셔널 갈보리교회 교우들이, 목요일에는 현숙한 여인들이, 금요일에는 메릴랜드 교우들이, 토요일에는 한인 청소년들이 지혜와 힘과 정성을 모아 도시빈민을 위한 따뜻한 수프를 끓여 나눌 것이다. 봉사자들의 수정처럼 영롱한 땀과 사랑이 영글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주여, 도우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맘몬(Mammon)



우리말의 돈은 구(句) 출처가 여럿이다. 그 중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란 말이 생겼다는 이야기와 도(刀), 곧 칼에서 연유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옛 무덤에서 칼 모양의 주화가 무더기로 발견돼 이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돌고 돌아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겨냥한다고 할까.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지 돈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경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 싶다.

서양에서도 돈의 역사는 우리와 비슷하다. '머니'의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맘몬(mammon)'이다. 성경에 나오는데 재물, 이른바 '돈의 신'이다. 딱 네 번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의 가르침에서다. 매번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무게로 맘몬을 다뤘다. 2천 년 전에도 '쩨'의 위력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성전마저도 맘몬에 접수된 현실을 개탄하며 돈의 유혹에 빠진 사회를 여러 차례 경고했다.

흥미로운 것은 맘몬을 신격화했다는 점이다. 예수는 하인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비유를 들며 하나님이 자리할 곳에 재물(맘몬)을 두지 말라고 탐욕을 경계한 것이다. 맘몬은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세기 이후 산업의 발전으로 부의 집중과 편중화가 이뤄지자 새삼 조명을 받게 됐다. 새의 머리 두 개가 달린 괴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을 관장하는 일곱 신 중 하나로 묘사되기도 한다. 교만의 신 '루시퍼'와

볼리비아의 희망



16세기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빠사로에게 정복당한 볼리비아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잉카 제국의 일부였다. 볼리비아라는 이름은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풍운의 볼리바르는 정치 불안정, 독재, 경제적 어려움과 싸워 1825년, 독립국가를 세웠다.

독립 이후 1981년까지 볼리비아에서는 총 193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거의 열 달에 한 번 꼴로 정권이 바뀐 셈이다. 그럴 때마다 경제 혼란도가 중되어서 한때 14,000%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구 900만의 볼리비아는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절반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전체 인구 중 75%가 빈곤층이다. 중산층은 15%며, 10%의 부유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 볼리비아 인구의 65%가 아이마라, 케추아 같은 인디오 원주민들이다.

빈번한 쿠데타와 극심한 가난이 오랜 관행처럼 남아 있는 볼리비아에 인디오 원주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54%라는 기록적 득표율로 첫 번째 인디오 출신 대통령이 권좌에 올랐다. 꼬까(coca) 재배 농장 노동자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는 극한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당(MAS)을 이끌면서 부정부패로 오명이 가득한 볼리비아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다고 공약한다. 스페인 사람들에 정복된 이후 500년 동안 핍박과 차별의 설움 속에서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함께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는 으뜸 마귀다.

존 밀턴은 대서사시 “실락원”에서 맘몬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가운데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로 그려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황금. 그래서 뭔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은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한다. 금광 채굴법을 인간에게 전수한 것도 맘몬이고 지옥에다 황금으로 팬디모니엄(pandemonium), 곧 북마전(마귀들이 살고 있는 궁전)을 지은 것도 맘몬이라는 것이다. 배금주의나 물질만능주의를 일컬어 흔히 맘모니즘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대폭락, 내일은 급반전, 다음 날은 또 폭락하는 등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종잡을 수 없자 이를 맘몬의 소행으로 돌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예측이 불가능할 뿐더러 상식을 벗어난 탓이다. 이 바람에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온스당 2,500달러까지 치솟는다는 전망도 나왔다. 2년 전 800여 달러 하던 것이 세 배나 뛰었다는 이야기다. 그야말로 맘모니즘이 판치는 세상이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멕시코의 세계 최대 갑부 카를로스 슬림이다. 며칠만에 7억 달러를 날려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그의 자산은 어림잡아도 740억 달러가 넘는다. 증시 폭락으로 증발된 돈을 빼고도 그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부자다. 그런데도 날린 돈이 아까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북새통 속에서도 두 다리 쪽 뺨고 편히 잠잘 수 있는 부자들도 적지 않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다. 이미 소유 재산을 사회에 되돌려 주기로 공약을 한 터여서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증시의 폭락장에서도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을 것 같다.

소크라테스의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라.”라는 말은 맘몬의 위세가 갈수록 높아가는 오늘의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 최고급 향수 다마 다 노이찌



남성에게 있어 최고의 향수는 소티리오 불가리(Sotirio Bulgari) 사가 만든 블루 뿌르 옴프를 들 수 있다. 신비로운 머스크 향이 관능적이면서도 남성적인 젠틀함을 최대한으로 살려 주고 인간 피부와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격조 높은 향수로 손색이 없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파트리크 쥐스킨트(Patrick Sueskind)의 소설 “향수(Das Parfum)”가 톰 튀크베어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되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원작을 통해 매료되었고, 5천 명의 기량 있는 배우들이 벌이는 성격 연기, 6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통해 영화로 표현한 향수는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더군다나 최고의 향수에 취해 원초적인 사랑을 나누는 마지막 장면을 위해 쏟아 부은 감독의 정성은 특별한 감동을 자아낸다.

루이 15세가 통치하던 18세기 파리의 온갖 더럽고 추한 냄새가 뒤얽혀 있는 골목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매독에 걸린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난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Jean Baptiste Grenouille). 생선 따는 칼에 태가 끊겨지자마자 생선 찌꺼기더미 위로 던져졌다. 고아원을 전전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피혁업자의 학대에 시름이 깊어졌으나 냄새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 때문에 향수 제조사 발디니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동물적인 후각을 지니고 태어났으면서도 막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냄새가 없어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여겨진 그. 최고의 향수를 향한 그르누이의 갈망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대도시의 숨막히는 냄새의 소용돌이 현장에서부터 무취의 전원

살아온 원주민들의 불행한 삶에 중지부를 찍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La Union es la fuerza(단결은 국력)’이라는 국가적 표어 아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분배한다면 남미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GDP가 세계 101위, 1인당 125위라는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은과 주석 광산, 광활한 싘파 꾸르스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극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사회에 걸쳐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가 주요 원인이다.

본래 부패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악취를 뿜어내며 분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복자들에 의해 수백 년간 수탈을 당하면서 길들여진 부끄럽고 수치스런 과거에다 인간의 탐욕이 섞이면서 부정부패란 악취를 풍기며 국력을 쇠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벽 5시부터 대통령궁의 불을 환히 밝히며 일을 시작하는 인디오 출신 대통령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만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복지부동하면서 가렴주구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피투기는 전면 전쟁에 돌입하였다.

사회주의 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고 고심하는 에보는 고위 공직자부터 하후상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자신을 비롯한 각료들의 월급을 대폭 깎았다. 국가 수반인 그의 월급이 1,800달러다. 과거 정권이 다국적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험값에 넘긴 천연가스, 통신, 전기, 철도, 항공 등 핵심분야 기업체를 다시 국영화하려는 심각한 줄다리기도 벌이고 있다. 부패 청산, 지독한 빈곤 타파라는 두 과제를 짊어진 에보의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아보칼립토(Apocalypso)와 미션(Mission)



으로, 그리고 깊은 산골까지 향기를 향한 방향은 끝이 없다. 향수 제조사의 견습생으로 들어가 제작법을 익히고, 증류를 통해 정제하는 방법 모두를 경험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향수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그르누이는 자신을 사로잡는 황홀한 냄새에 이끌려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다. 그는 자신이 여태 찾았던 모든 향기를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드는 향기가 다름 아닌 막 소녀티를 벗은 한 여인에게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는 순결한 처녀의 모공 깊숙한 곳에서 번져 나오는 순수한 그 향기를 얻기 위해 여인의 목을 즐라 살해하기 시작한다.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25명의 아리따운 여인들의 삼단 같은 머리채가 잘려지고 나신으로 살해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최고의 향수를 향한 그의 열기적 집념도 계속된다. 냄새에 미쳐 악마적인 연쇄살인을 자행한 그르누이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형 집행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자 그는 교수대 위에서 최고의 향수를 훌뿌린다.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향기에 취한 군중들은 무아지경에서 서로 원초적인 사랑을 나누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위험한 향기보다 더 고귀한 지상 최고의 향기가 브라질에 있다. 그르누이처럼 동물적인 후각을 갖지 않았어도 금방 향기의 진원지를 찾을 수 있는 최고급 향수 다마 다 노이찌(Damas da Noite, 밤의 귀부인). 평평잡한 잎사귀가 밤나무 잎과 비슷하고, 아람드리로 자라면서 밤이면 달빛 따라 귀부인이 활짝 꽃을 피우는데 자태는 모자라지만 향기는 가히 뇌쇄적이다. 내륙 깊숙한 곳에 보잉 747 모양으로 멋을 낸 수도 브라질리아를 돌아보고 썩 파울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 지상 최고의 향기를 맡았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달려온 바람결에 묻혀 있던 다마 다 노이찌의 상큼하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정중하면서도 품위 있는 향기에 온통 취해 버렸다. 악취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향수보다 내면 깊은 곳에서 잔잔히 번져오는 정 깊은 인간미가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지상 최고의 향기가 아닐까 싶다.

농경 사회가 도시나 국가들로 바뀌고 도시가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공물(수확물과 여자)을 강요하고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서 관료제도나 신관,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구를 정비하면서 문명은 시작되었다. 독수리와 뱀의 나라 멕시코(달의 배꼽이란 뜻)에서부터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까지 넓게 펼쳐진 메소아메리카의 문명은 젊고 창조 의 힘으로 가득 찬 문명이었다.

마야(Maya, 노루가 노는 땅)의 천문학자들은 미 우주항공국(NASA)이 사용하는 켈린더만큼 정교한 태양력을 체첸 잇사에 있는 커다란 피라미드에 만들어냈다. 9층과 4개의 계단들은 9개의 하늘과 4개의 기본 방위점을 나타낸다. 계단의 수는 각각 91개로써 전부 364개나 된다. 이것은 1년의 날수의 숫자이며 여기에다 정상의 제단을 더하면 365개의 계단, 즉 태양년의 날수가 된다.

메소아메리카의 최대 피라미드인 페오띠우아칸의 '태양의 신전'은 하짓날 태양이 정확히 피라미드 정면을 향해서 지도를 건축되었다. 자연과 문명이 서로를 비추어 그날을 축복하도록 건설되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나 황금과 향료에 눈이 멀어 잔인하게 선주민을 살육하고 찬란한 문화유산에 불을 썬지르며 정복전쟁을 펼친 스페인의 탄압은 그 문명의 호

름을 저지했고, 그것의 발전을 방해했으며, 슬픈 유산을 남겨 놓고 말았다.

1519년 봄, 34살의 스페인 정복자 꼬르떼스 대장은 11척의 선단으로 원정대를 구성하고 쿠바를 출발한다. 배에는 508명의 군인, 16마리의 말, 인디오들이 보기에는 불길을 토해내는 천둥벼락 같은 무기로 무장한 채 아스떼까의 수도 테노슈티틀란(Tenochtitlan)으로 들어닥친다.

신관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 오는 숙명 같은 신화가 메소아메리카에 회자되고 있었다. 마야의 “칠람 발람의 서(Chilam Balam)”에 나오는 예언에 따르면 백인 정복자에 의해 문명은 막을 내리고 고통스런 식민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불길한 내용이었다.

“오, 나의 형제여, 하늘의 흰 쌍둥이가 도래했으니 준비하라. 그들은 태양의 빛을 빼앗고 밤과 어두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오리라.”

아스떼까의 인디오 황제 목테수마는 길게 수염을 기르고 갑옷으로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진군해 오는 꼬르떼스를 전설 속의 환생한 아스떼까 최고의 신 켓살꼬아뜰로 환대하여 모셔들인다. 황금 신전에 금을 가득히 채워 영접하지만 탐욕스럽고 잔인한 침략자 꼬르떼스는 황제를 구금한다. 황제의 조카였던 꾸아우떼목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정복을 완성한 것이 1520년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중남미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그룹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두 편 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개 국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폭포 이과수를 배경으로 한 “미션(mission)”이 첫째다. 교황청에 의해 임의로 그어진 남미 대륙을 서로 차지하려고 벌인 스페인, 포르투갈의 영토전쟁은 숲 속의 파라니 인디오에게는 종족 말살이라

는 비참한 폐해를 가져다 준다. 악마의 목구멍으로 떨어지는 폭포처럼 굉음소리를 내는 이과수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극적으로 살아남은 몇몇 인디오 소년들이 다시 숲으로 떠나는 모습은 남미 선교를 떠나기 전 꼭 봐야 할 명장면이다.

그리스어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인 멜 김슨의 “아뽀칼립토(Apocalyp-to)”가 다음이다. 거대한 신전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아있는 포로의 심장을 꺼내고, 목을 쳐서 버리는 ‘하드코어급 폭력’이 난무하지만 메소아메리카 인종과 문명을 철저하게 고증한 영양가 있는 장면들은 멕시코, 과테말라와 주변국 문화와 인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살인 기계 같은 근육질의 마야 전사들의 끊임없는 추격을 따돌리고 동굴에 갇혀 있는 가족을 지키려 안간힘을 쏟는 ‘재규어의 발(Jaguer Paw)’의 거친 숨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Recuerdos de la Alhambra)



깊어가는 가을 다시 듣고 싶은 추억의 클래식 기타 음악이 있다. 프란시스코 따레가(Francisco Tarrega, 1852-1909)가 작곡하고 연주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Recuerdos de la Alhambra)’은 따레가가 그의 제자이자 연인인 꼰차 부인과 함께 석양빛에 붉게 물든 아름다운 궁전을 돌아보고 감명을 받아 작곡한 곡이다. 금 쟁반에 은 구슬 굴러가는 듯한 트레몰로(tremolo) 연주법으로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언뜻 듣기에는 궁전 내부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수에서 내뿜는 물방울이 수면 위로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처럼 들린다. 따레가의 클래식 기타와 마림바의 협연은 숲소리조차 멋지게 한다.

안드레스 세고비아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스페인 최고의 기타의 신으로 불려지는 빠코 데 루시아(Paco de Lucia), 12줄 기타의 달인 나르시소 예삐 등 기타성 같은 주자들이 연주했지만 짐 그리닝거가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곡이 그 중 백미라 할 수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까지 가미한 샤론 이즈빈(Sharon Isbin)의 곡도 추천할 만한 수작이다. 전 곡의 길이는 4분 40초로 전 반 가단조와 후반 가장조로 반복되는데 멜로디는 우수에 차 있다. 연인이자 제자인 꼰차 부인에게 따레가는 사랑을 고백했다. 실연의 아쉬움을 배경에 담았는지 곡 전체에 고뇌하는 한 남자의 가슴앓이가 깊게 드리워 있다.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흥한 이슬람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도읍한 우마야드 왕조가 탄생하면서 급격히 주변으로 확산되어 갔다. 북부아

프리카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간 것이 714년. 무어 왕조는 이때 이슬람을 바탕으로 창건되었다.

이슬람 세력은 13세기 초 불붙기 시작한 기독교도의 국토탈환운동(reconquista, 레콩퀴스타)으로 마지막 이슬람의 거점이었던 그라나다가 1492년에 함락되면서 스페인 땅에서 사라졌다. 꼬르도바에 세워진 모스크와 이슬람 건축문화의 최고봉으로 불려지는 알함브라(붉은 성)궁전을 통해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스페인 그라나다를 한눈으로 바라보는 구릉 3.5km의 부지에 세워진 알함브라 궁전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로 깎아지른 벼랑 위에 세워져 있다.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Granad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주에 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촬영했던 지역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일 년 내내 흰 눈을 볼 수 있다.

무어 왕조의 유세프 1세와 그의 아들 모하마드 5세를 위해 미켈란젤로의 제자이기도 한 페드로 마추카가 구릉 위 배 모양을 한 궁전터 세로 델 솔(cero del sol, 태양의 언덕) 위에 지었다. 1492년 나스르 왕조의 마지막 술탄 모하메드 12세가 페르디난도와 이사벨라 여왕의 협공에 패해 성을 빠져나와 모로코로 향할 때 “스페인을 잃은 것은 아깝지 않지만 알함브라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무르익어 가는 가을을 노래할 천상의 하모니가 메릴랜드 서번 소재 사랑의교회, 리치몬드 주 예수 교회에서 워싱턴솔로리스트 앙상블의 연주로 벌어진다. 1993년 워싱턴 지역에서 창단된 솔로리스트 앙상블은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었는데 가히 정상급 성악가들이다. 바흐, 모짜르트, 말러의 클래식 합창곡과 성가곡, 캐롤, 한국 가곡 및 세계 전통민요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넘나들며 가을밤을 밝힐 공연 일정에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다.

엘 오르네로(El Hornero)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타조의 히브리어 원어는 ‘크라프 레나님’인데, ‘즐거운 날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영어로는 ‘ostrich’인데, 천적에 쫓기는 위험에 처하면 모래 구덩이에 얼굴을 묻고 적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현재 생존하는 조류 중 가장 큰 타조는 멋진 날개를 갖고 있지만 날지는 못한다. 다만 빨리 달리는 보조 역할만 한다. 수컷은 150kg까지 자라고, 흑백의 줄무늬 깃털은 멋진 장식으로 사용된다.

타조는 어리석고 부주의하고, 또 무정한 짐승이다. 알을 땅에 버려두고 지열로 덥혀 부화하게 한다. 살든지 죽든지 밟혀서 깨지든지, 도대체 무심하기 그지없다. 자기 새끼에게조차 인정머리 없이 박절한 타조의 성품을 아신 하나님은 타조알을 계란보다 무려 6배 두껍게 만드셔서 종족을 보존케 하셨다. 튼튼한 두 발로 황야를 내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 뽀얀 먼지를 내며 달리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조롱할 정도로 빠르다.

아르헨티나의 상징적인 새 ‘엘 오르네로(El Hornero)’는 부부 간의 금슬이 좋고, 새끼를 부화시켜 금지옥엽 양육하는 모범적인 새다. 뿐만 아니라 조류 세계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영리함과 성실함도 갖추고 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주로 서식하고,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는 ‘쥬앙 지 바로(Joao de Barro)’로 불린다.

‘엘 오르네로’는 적갈색 옷을 입었고, 비둘기보다는 작고, 참새보다는 큰 체구를 갖고 있다. 배와 목 언저리는 연한 크림색으로 멧을 부렸고, 매우 부지런하고 영리하다. 부부 새가 듀엣은 셀린 디옹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천상의 하모니처럼 숲속에 상큼함을 선사한다.

‘오르네로’가 천부적 재능으로 짓는 니도(nido, 둥지)는 온갖 잡새들이 나뭇가지로 열기설기 짓는 무허가 부실 가옥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랑이 싹트면 ‘오르네로’ 커플은 신혼 집과 육아를 위한 니도를 만들기 시작한다. 견고한 나뭇가지 위, 때론 전봇대 위에, 질펀한 황토 흙과 나뭇잎, 지푸라기, 얇은 나무 뿌리, 포유 동물의 똥, 새 깃털, 심지어 말총까지 버무려 훌륭한 건축재료로 사용한다. 좌우 양 옆을 둥글게 이어가다가 천장 돔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소라 껍데기처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입구를 만들어 완성시킨다. 날렵한 부리가 유일한 건축도구다. 부지런히 재료를 물어와 수천, 수만 번을 쌓고, 두드리고 다져 폭풍우와 비바람에 거뜬히 견딜 만한 멋진 자연친화적 흙벽돌 멘션을 완성한다. 환경이 좋으면 일주일만에 완공시키고, 비가 오는 우기에는 한 달의 공을 들여야 한다. 만들어진 니도의 무게는 4-5kg에 달하고, 새 100마리의 무게를 견딜 만한 견고한 내구성을 갖는다. 흡사 축구공처럼 둥글고 멋진 멘션에는 2-3개의 방을 꾸며 놓는다.

입구를 빙 돌아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나온다. ‘오르네로’ 식구들의 공동 거주공간이다. 입구 하단부의 작은 방은 부부의 침실이다. 수시로 바깥 동정을 살피기에 적합한 위병소다. 거실을 통과하여 가장 구석진 방이 새끼들의 침방이다. 가슴 깃털을 뽑아 폭신하게 만든 요람에서 편안히 놀 수 있도록 꾸민다. 평소 대가족 집단 거주를 선호하는 ‘오르네로’는 연립 주택

자유의 씨앗 희망의 씨앗



— 겨울 추위에 가슴 시릴 도시빈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싶다.

식으로 대여섯 개의 니도를 나란히 건축한다. 간혹 아파트처럼 3층 높이로 지어 정을 나누며 살 줄 안다. 멋진 멘션을 가로채려는 다양한 적들이 주위를 맴돈다. 작은 주머니 쥐, 양치 새, 뱀까지 무력으로 점거할 때가 있다. 몇 번이고 악을 쓰며 퇴거를 종용해 보지만 침입자는 불로소득한 편안함을 순순히 포기할 생각이 없다. 입구를 흙벽돌로 쌓아 등지에 가두고 아사당하게 하는 것으로 응징한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겨울 추위에 도시빈민들의 가슴은 점점 더 시려온다. ‘에르네로’의 니도처럼 훈훈한 곳에서 저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989년 라울 훌리아(Raul Julia)가 주연하고 존 듀간이 감독한 영화 “오스카 로메로(Archbishop Oscar Romero)”는 중미 엘살바돌 대주교의 비극적인 일대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1917년 엘 살바돌 동부 산 미겔 지역의 바리오스에서 태어난 오스카 로메로. 소년 시절 끌라라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1937년에는 예수회가 운영하는 산 살바돌대 신학과에 입학한다. 1942년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사제로 서품된 뒤 귀국해서 산 미겔 교구의 교구장 비서로 임명됐다. 이후 23년 동안 교구 신문의 편집장, 주교좌 성당의 주임 신부, 신학교 교장 등의 소임을 받아 활동했다. 1974년 산티아고 데 마리아 교구의 교구장 주교, 1977년 산 살바돌 대교구장이 됐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의 엘살바돌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는다. 군벌 움베르토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에 취임하자 반대하는 정적들과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인권유린은 극에 달했다. 공공연한 사찰, 요인 납치, 암살, 그리고 저항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온화한 성품, 우유부단하고 세상 물정 몰랐던 학구파 무명의 신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기본 신앙으로 갖고 있었던 그는 정치에 개입하거나 더욱이 해방신학을 주창하며 민중봉기를 선도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비둘기와 신부가 돌변한 결정적 이유는 동료 루델리오 그란데 신부가 우익 민병대의 총에 죽은 모습을 보고 나서다. 싸늘한 주검 앞에서 할 말을 잊은 그에게 쏟아졌던 비수 같은 한마디.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면서도 침묵하는 교회와 신부는 정권에 아부하는 창녀와 다르지 않다.”

대주교 로메로가 변한다. 억압과 착취를 부당한 것으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탄압과 폭력이 증가하자 주일 미사 때마다 그 주에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항쟁하기 시작했다. 혁명을 주도할 군대도 없었다. 한 자루의 총도 없었다. 다만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용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 두려움과 싸우며 시작한 일이었다. 성당은 폐쇄되었고 미사는 중단되었고, 시설은 군 막사로 사용되었다. 로메로 신부는 허름한 창고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외쳤다.

“천국은 사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음 저편뿐만 아니라 여기 땅 위에서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교회를 이뤄야 합니다. 저는 자주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를 죽일 때 저는 엘살바돌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흘린 피는 자유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인 민중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억눌린 백성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명령합니다. 억압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이려는 노동자 농민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악한 명령을 거부하십시오.”

1980년 3월, 산 살바돌 병원에 있는 채플에서 강론을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는 난입한 무장괴한의 총에 살해당했다. 서슬 퍼런 군부의 폭정에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으로 자유의 씨앗이 된 그의 사상은 중남미 라티노들의 심장 속에 여전히 고동치며 살아 있다.

건국한 지 232년만에, 노예제 폐지 후 143년만에, “나에게는 꿈이 있다.” 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한 지 45년만에 비로소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스와힐리어로 ‘버락’이라는 이름에는 ‘신의 은총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부디 변화, 통합, 희망의 씨앗이 되어 한아름 은총의 열매를 나눠 주는 성군이 되기를 염원한다.

쿠바 아리랑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최남단 키웨스트에서 불과 145km 떨어져 있는 카리브의 진주 쿠바 아바나는 밝고 맑은 날 어렴풋이 윤곽을 볼 수 있는 지척의 나라다. 세계적인 문호 헤밍웨이가 자살하기 전 즐겨찾았던 아바나(Havana)는 퇴폐적 관능이 묻어나는 허리 아래의 춤 살사(salsa)와 과히라(guajira) 음악이 넘쳐나던 낭만적인 도시였다. 현란한 기타 소리, 신들린 듯이 두드려대는 피아노 소리, 흐느끼는 듯한 트럼펫과 피커션이 어우러지는 부에나 비스타(Buena Vista)의 찬찬(Chan Chan), 호에 마누엘과 나나 무스끄리(Nana Mouscuri)가 카리브해의 시원한 무역풍처럼 호흡을 맞춘 관따나메라 과히라(Guantanamer Guajira)는 세계 곳곳에서 애창되는 쿠바 아리랑으로 손색이 없다.

부패한 바티스타 정권을 혁명으로 몰아내고 쿠바노들에게 자유와 변명을 선사하겠다고 게릴라 혁명을 일으킨 것이 1959년. 피델 까스뜨로와 그의 동생 라울 까스뜨로 그리고 살아 있는 게릴라의 전설 체 게바라와 뜻을 같이한 81명은 정권을 거머쥐고 50여 년 전 공산국가를 창립했다.

구척장신 피델이 평생 즐겨 입었던 옷은 카키색 군복이었다. 얼굴을 절반 이상 가린 구레나룻에 두툼한 아바나 시가를 물고, 원고 없이 청중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쿠바노들은 몸과 영혼을 의탁했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겸 최고사령관직에 오른 피델은 쿠바를 당장 유토피아로 만드는 듯했다. 피를 나는 혁명동지 체 게바라가 “승리할 때까지(Hasta la Victoria Siempre)” 계속하여 투쟁하자며 1965년 아프리카와 남미 볼리비아 공산화를 위해 쿠바를 떠나자 그의 권좌는 더욱 견고해졌다. 라

울을 국방장관에 앉히고, 40년간 쿠바를 공산국가로 이끌었던 피델은 세계 최장기 집권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그가 사회주의 이상에 사로잡혀 한세상을 풍미하던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다. 쿠바의 든든한 이념적, 경제적 후원자였던 공산주의 종주국 구소련은 무너졌고,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부터 조지 W. 부시까지 열 명의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갔다. 그의 집권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던 미국 CIA의 638회나 되는 암살기도, 1962년 소련 핵미사일 기지 건립을 두고 미-소 핵전쟁의 발화점으로 번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 경제압박을 피해 망망대해로 몸을 던진 보트피플 쿠바노의 탈출 러쉬 그리고 평생을 반미투쟁의 선봉에 섰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도 종말은 서서히 오고 있었다. 2006년 장출혈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고 19개월째 외병 중에 있는 최근 그의 병상의 모습은 서리 맞은 푸성귀처럼 후줄근하다.

쿠바 ‘제2의 국가’ 같은 관따나메라 과히라(Guantanamera gujira, 관따나모의 시골 여인이여)는 쿠바 독립과 건국 영웅 호세 마르띠(José Martí)가 뉴욕에서 출판한 시집 ‘소박한 시(Vesons Sencillos)’라는 장편시에 과히라 가수로서 명성이 있는 호세이또 페르난데스가 곡을 붙인 노래다.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나는 야자수가 자라는 마을 출신으로 진실한 사람이라오), Y antes de morir me quiero echar mis versos del alma(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내 영혼의 시를 쓰고 싶어요. 관따나모 아가씨 과히라를 노래해요).”

죽음의 검은 버섯이 얼굴 가득한 피델이 “나의 유일한 소망은 사상의 전투에서 한 명의 병사로서 싸우는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지만 그의 영혼의 방향은 어디서 종지부를 찍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파곤도 까브랄(Pacundo Cabral)의 죽음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음유시인이며 작곡가였던 파곤도 까브랄이 객지에서 비명횡사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적 슬픔에 젖었고, 그의 노래와 연주를 사랑했던 중남미 라티노들은 한동안 가슴을 치며 고통스런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No soy de aqui, ni soy de alla(노 쏘이 데 아끼, 니 쏘이 데 아야, I’m not from here nor there, 나는 여기에 속하지도, 또 저기에 속하지도 않았습시다)’를 부른 아르헨티나 출신 음유시인 파곤도 까브랄은 ‘뽀빠스(아르헨티나 대초원)’의 작곡가 겸 음유시인으로 가왕 조용필처럼 중남미 라티노들에게 사랑받는 국민 가수다.

그가 지난 7월 생전의 마지막 공연을 과테말라에서 가졌다. 이어서 케 찰페낭고, 니카라과 연주 여행을 진행하던 중, 공항으로 향하던 길에 매복되어 있던 괴한들의 무차별 사격에 현장에서 불귀의 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나이 74세였다.

193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50km 떨어진 라 빨라따 강 유역의 탄딜(Tandil)에서 출생했다. 그가 9살 되던 해 그의 부친은 집을 떠났다. 어린 파곤도는 그의 모친과 여섯 형제들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 3,000km를 걸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그의 아내와 한 살배기 어린 딸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

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었고, 시력도 거의 잃어 평생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몸에 퍼진 암은 죽음의 그림자를 그의 삶에 운명처럼 얹었다. 아르헨티나에 서슬 퍼런 군부 독재가 횡행할 때인 1976년부터 1983년 시기에는 멕시코로 망명해야 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그의 생애, 질곡 같은 인생의 고통스런 터널에서 그는 수없이 전능자를 향하여 절규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 굶주림, 짧은 행복, 갈등, 빛, 암과 매독, 봄과 사과튀김을 주셨나이까?”

그럴 때마다 그는 조금씩 깨달았다. 어릴 적 고통스런 경험들, 가족을 잃은 슬픔들, 삶 속의 문제점과 참담한 암과 건강의 문제점들은 그를 겸손케 하셔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실제로 그가 경험했던 고난은 잠재되어 있었던 그의 영감을 자극했고, 수많은 노래와 시들을 짓는 원천이 되었다. 1996년 UN의 세계 평화대사로 임명받아 8개의 언어권, 165개 나라를 순회하며 평화의 전령으로 꿈과 소망을 선물하는 귀한 사역에 헌신했다.

그의 주옥 같은 노래들 속에는 겸손함과 따뜻함과 인간미 넘치는 서정이 흐른다.

“Me gusta el mar y la mujer llora, las golondrinas y las malas senoras, saltar balcones y abrir las ventanas y las muchachas en abril...no soy de aqui, no soy de alla(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다와 울고 있는 여인과 제비들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발코니에서 뛰는 것과 창문을 여는것, 그리고 4월의 아가씨들입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도, 저기에 속하지도 않았습시다).”

헬리스 나비다(Feliz Navidad)



주옥 같은 명곡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가수들 중 시각장애인 몇이 있다.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Ebony Eyes'를 부른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는 미시건 주 새기노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조산아로 태어나 눈 뒤에 혈관이 아직 앞쪽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망막이 분리되면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장애로 인한 절망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쪽진 레게 머리를 땀시있게 장식하고 익살스런 화법으로 정상인을 도리어 위로하는 훌륭한 음악 천재다. 재즈 피아노와 신디사이저, 오르간, 베이스 기타, 콩가, 드럼, 하모니카 솜씨도 능숙하다. 그가 부른 곡들은 여러 차례 빌보드 차트 최고봉에 등극했고, 총 1억 장이 넘는 음반 판매를 올렸다.

1958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라자티코에서 출생한 안드레아 보첼리(Andrea Bocelli)는 선천적인 녹내장을 앓았으며 12세 때 축구 시합하던 중 머리에 충격을 받고 시력을 잃었다. 사라 브라이트만과 듀엣으로 부른 'Time To Say Goodbye', 셸린 디온과 듀엣으로 부른 'The Prayer'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유명한 애창곡들이다.

흑인 소울 가수 레이 찰스(Ray Charles). 미국 조지아 주 알바니에서 출생한 그는 공황기에 플로리다 주 흑인 빈민촌에서 성장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세 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다섯 살 때 녹내장을 앓기 시작하면서 일곱 살이 되던 해 양쪽 눈의 시력을 모

지난 7월 9일, 새벽 5시 30분경, 과테말라 시티 호텔에서 나와 공항으로 향하던 중, 그가 탄 백색 SUV 차 곁으로, 어둠을 가르고 밀착하는 세대의 암살자들의 차량이 근접했다. 순간적으로 인근 소방서로 피하러 했지만 좌우 양옆과 앞을 가로 막은채 AK-47 소총을 난사했다. 그는 20여 발 중 8발을 맞고 차 내부에서 즉사했다. 평소 치안이 불안한 것에 대비해 경호 차량이 따랐지만 무섭게 계획된 조직 범죄를 피할 순 없었다. 알바로 꼴론 과테말라 대통령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갖게 했고, 아르헨티나와 세계 모든 이에게 사죄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테말라의 199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베르타 멘추도 “과꾼도는 스승이었습니다.”라며 그를 추모했다.

미국 내 1200만 불체자들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이했다. 장미빛 이민 개혁은 요원하고 집권 5년동안 매년 약 40만 명의 중남미 출신의 라티노 불체자, 범법자들이 추방되고 있다. 라티노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난리다. 이민법 개정은 의회의 태클에 걸려 답보상태고, 선거에서 무한 신뢰를 몰표로 헌납한 라티노들을 도리어 가라지 뽑아내듯 추방시키는 처사에 배신 운운하며 서운함을 종내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북중미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노동 가능한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몰려왔고, 마을에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집 떠난 기동같은 남정네들의 금의환향만을 학수고대하며 남아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거점도시안에서의 치안부재는 도를 넘은 지 오래이고, 비교적 조용했던 작은 읍면 소재지까지 번진 판디에론(pandilleron, 조직 폭력배)의 무서운 공갈과 협박이 견잡을 수 없으리만치 심각해져 간다.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저들의 삶은 '레스미제라블레스(Les Miserables)'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두 잃게 된다. 열다섯 살 되던 해, 양친을 사고로 잃고 고아가 된 그는 밴드를 따라다니면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R&B, 컨트리, 팝, 가스펠,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술한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며 장애를 극복하고 열두 번의 그래미상과 미국 팝 음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는다.

호세 펠리시아노(Jose Feliciano)는 푸에르토리코 라레스에서 12남매 중 하나로 태어났다. 그의 시각장애 원인 역시 선천적인 녹내장때문이다. 다섯 살 때 가족들은 뉴욕시 스페니쉬 할렘으로 이사했다. 조부로부터 선물받은 기타는 어린 호세의 장난감이자 영혼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던 음악적 끼를 발산하는 통로가 되었다. 하루 평균 14시간을 기타를 치며 앞을 못 보는 절망감을 떨칠 수 있었고,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클래식과 재즈, 락 음악 앨범을 들으며 그의 음악 세계를 넓혀갔다. 께 세라(Que Sera), Rain, Camino Verde 등은 그의 대표적인 명곡들이다. The Gypsy를 라틴 클래식 기타로 치며 부를 때는 현존하는 라틴 클래식 기타의 신으로 불리는 빠꼬 데 루시아와 견줘 결코 뒤지지 않을 만한 현란한 솜씨로 연주한다. 추수감사절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작된 성탄 절기와 연말연시는 구세군 자선남비의 사랑을 모으는 자선냄비 종소리와 호세 펠리시아노의 ‘헬리스 나비다(Merry Christmas)’ 캐롤로 시작한다. 빌링구에(bilingue, 이중언어)에 뛰어난 호세가 1970년 부른 ‘헬리스 나비다’는 전반부 스페니쉬, 후반부 영어 가사로 이뤄져 아메리카 대륙 모든 인종이 쉽게 코러스로 부를 수 있는 경쾌한 노래다.

‘헬리스 나비다 프로스페로 아노 이 헬리시다(Feliz Navidad, Prospero An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빈민들과 거리에서 썬타 쎄나(성탄찬)를 나누는 후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부른 ‘헬리스 나비다’가 앞에 다가왔다. 즐거운 성탄절과 신년 새해에 하나 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5부 맛있는 음식, 따뜻한 나눔



강렬한 커피의 유혹



세계 커피 기구는 “전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마시는 음용수가 커피”라고 발표했다. 홍차, 녹차, 코코아, 포도주, 맥주, 소다수, 이온음료들도 마시지만 커피를 능가하지는 못한다. 세계 커피 애호가 하루에 마시는 양은 자그마치 25억 잔이나 된다. 매년 700만 톤 이상의 원두가 생산되어 석유 다음으로 많은 거래를 이룬다. 관련 사업에 2,5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거대산업이 아닐 수 없다.

1582년, 유럽인 의사 레온하르트 라우볼프는 동방의 카우베 알레프에서 처음 커피를 접했다. 그 강렬한 첫 인상을 『동방여행』이라는 책에 기술하고 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좋은 음료가 아랍에 있는데 카우베(Cafè)라고 한다. 마치 잉크처럼 검고, 만성병, 특히 위장병에 좋다.”

커피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가 본산지다.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점령했을 당시, 커피 생장에 천혜의 환경임을 알고 옮겨 심었다. 체리처럼 빨갛게 원두가 익고, 크고 실한 것이 최상품인데 신비한 다섯 가지 맛이 골고루 섞여 있다. 아라비카 커피가 예멘의 모카 항구에서 유럽인들의 고상한 문화에 기여하고자 배로 실려 나가게 된 것이 모카 커피가 되었다.

커피를 처음 음용한 기록은 13세기 이슬람 신비주의와 중 하나인 수피파 수도승이 마시면서부터다. 주지승이 마셔 보니 명상하고 도를 닦는 데

상당한 효능이 있음을 알게 됐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수행에 줄며 힘들어하는 수도승들에게 향아리 가득히 끓여 마시도록 권했다. 코란이 엄격히 술을 금하고 있던 차라 무슬림에게는 무엇인가 마실 음료가 필요했다. 커피의 매혹적인 맛이 사원의 담장을 넘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 순례에 참여한 무슬림을 통하여 오스만 투르크 제국 곳곳에 자연스런 확산을 가져왔다.

“커피 한 잔에 40년의 추억이 담겨 있다.”는 터키 속담이 있다. 동서양의 교차점인 이스탄불의 카페에는 지금도 전래되고 있는 다도가 있다. 로스팅한 원두를 밀가루처럼 미세하게 분쇄한 다음, 체즈베(끓이는 통)에 물과 함께 담아 불에서 끓여낸다. 비등점에 도달하자마자 거품이 급속히 올라오면 이브릭(커피 주전자)에 옮긴 후, 고급스런 도자기 잔에 담아 손님을 접대하는 멋진 풍습이다.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기도 하지만 미네랄과 염분을 고려하여 약간의 소금을 넣은 짭조름한 커피도 맛볼 수 있다.

231대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 때 일화가 있다. 오스만 제국의 음료인 커피가 유럽에 상륙하게 되자 대다수의 성직자들이 교황에게 커피 금지 청원을 올렸다. “어찌 이교도의 사악한 커피를 기독교도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지만 커피를 시음한 교황은 “감미롭도다. 커피에 세레를 베풀어 악마를 바보로 만든 후 널리 마시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후 유럽은 커피를 가장 애용하는 대륙이 되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썸 마르코스는 동방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다. 이슬람의 커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꿀을 넣어 달콤하게, 우유, 생크림을 넣어 부드럽고 깊은 맛을 창출했다. 이후 커피는 서민들까지 즐기는 음료가 되었고, 카페는 문화공간으로, 담론하는 현장으로 발전하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탈리아는 마끼나 데 에스프레소(커피 기계)를 만들어 커피 문화 강국으로 부상한다. 볶은 생두를 분쇄한 후, 뜨거운 물을 통과할 때 맛과 향취가 번지는데, 입자가 거칠면 필터를 천천히 통과하게 되어 쓴 맛, 불쾌한 떫은 맛도 함께 배어 나온다. 최상의 커피 향취를 위해 발명된 것이 에스프레소 방식이다. 원두를 밀가루처럼 곱게 간 다음, 뜨거운 수증기로 순식간에 복합적인 커피 맛을 추출한 것으로 유럽과 중남미에서 널리 애호하고 있다.

한국에 커피가 들어온 것이 1896년이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 했을 당시 처음 음용한 후, 세자와 함께 매니아가 되셨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제2위 커피 소비국가가 됐다. 후레쉬한 에스프레소 한 잔에 따끈한 빵지 깨조(치즈 빵) 한 조각 먹던 썸 파올이 그림다.

도시민민을 위한 추수감사절



겨울철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틴 음식은 ‘께사딜라(Quesadilla)’와 ‘아톨레 데 마이스(Atole de Maiz)’로 멕시코와 중미(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면서도 만들기도 쉽다. ‘께사딜라’가 메인 음식이고, 함께 마시는 음료가 ‘아톨레’다. 처음 대하는 한인들에게도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멕시코 전통 음식이다.

‘께사딜라’의 조리법은 다음과 같다. 닭가슴살을 새끼 손톱만하게 잘게 자른 후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에 담갔다가 그릴에서 볶아낸다. 멕시코 전통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콤한 맛은 필수다. 푸릇한 ‘할라베뇨’ 고추 대신, ‘칠리 아르볼(Chilli Arbol, 다년생 고추나무) 고추를 말려 곱게 빻은 가루를 사용하면 잡티 없이 깔끔하면서도 매콤한 맛을 낼 수 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낸 얇은 ‘토르텔라(Tortilla)’에다 ‘모짜렐라(Mozzarella)’ 치즈를 얹어 고소하게 녹아 내리도록 굽는다. 그 위에 노릇한 닭가슴살 볶음을 얹어 반달 모양으로 접어서 접시에 담는다. 접시 한켠에는 ‘아로스 프리토(Aroz frito, 볶은 쌀)’를 가지런히 놓고, ‘프리홀레스(Frijoles, 팥 앙금)’와 신선한 양상추(lechuga, 레추가) 채 썰은 것과 라임 반 조각을 얹으면 맛있는 ‘께사딜라’가 완성된다. 밥에다 ‘프리홀’을 얹고, ‘께사딜라’ 한 조각을 썰어 상큼한 양상추와 함께 먹으면 ‘무이 리까(Muy Rica, 대단히 맛있다), ‘무이 싸보로소(Muy Saboroso)’하다. 영양이 풍성한 라틴 음식에 매료된다.

‘께사딜라’와 궁합이 잘 맞는 음료는 ‘아톨레 데 마이스’다. 중미 라티노들의 대표적인 겨울철 음료다. 곱게 갈은 노란 옥수수 분말에 우유, 정제하지 않은 브라운 슈가, 계피가루, 바닐라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낸다. 이때 옥수수 전분이 밑바닥에 눌지 않도록 잘 저어 주는 것이 중요한 팁이다. 스티로폼 컵에 듬뿍 담아 뚜껑을 씌운 채 서브하는데, 김 오름이 없어 은근한 뜨거움을 품고 있다. 다 마실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금씩 식혀서 마셔야 혀바닥과 입천장을 보호할 수 있다. ‘께사딜라’와 ‘아톨레’에는 MSG가 첨가되지 않아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하고 소갈증이 없다.

도시민민들을 초청하는 금년 추수감사절(Dia de Accion de Gracias)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애난테일에서 24일 목요일, 리버데일 메릴랜드에서 25일 금요일, 양 이틀간 6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절기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 즈음이다. 매년 이맘때면 날씨는 갓고 을씨년스럽다. 무수한 나무들이 벗어놓은 화려한 채색 옷을 마지막 거두는 일이 막노동 일자리의 끝이다. 이듬해 삼월초까지는 거리 모퉁이에서 나목처럼 겨울 한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

한빛지구촌교회 박해수 집사님이 만든 ‘아로스 프리토(볶음밥)’, 녹진하게 끓인 ‘프리홀레스(콩)’, 향긋한 닭고기 스프, 페어팩스 한인교회 양 사모님이 집에서 정성껏 구운 터키와 햄, 버지니아 제일장로교회 황 장로님이 구운 불고기, 지구촌교회 최귀대 집사님이 만든 정통 미국식 추수감사절 음식과 ‘라그란데’ 슈퍼마켓 이수영 사장님이 기증하신 ‘오르차따(Horchata)’, 지구촌마켓 김종택 사장님이 주신 컵라면이 추수감사절 상차림이다. 한인 봉사자들과 라티노 도시민민들이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후 정성껏 나누게 된다. 고난의 터널 같은 긴 겨울을 고통 속에 지나게 될 이방 나그네들을 초청한 추수감사절 잔치에는 한인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의 위로가 넘쳐난다.

디마쓰가 만든 짬뽕



중국의 음식 문화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중국의 지리환경, 역사적 배경, 여러 민족 등의 각종 요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양한 식물 혹은 동물이 요리 재료로 사용된다.

회자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네 발 달린 것으로는 책상 빼놓고 다 먹을 수 있고,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 빼고 모든 새 종류가 요리로 상에 오른다.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것 중 잠수함 빼곤 모든 해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기상천외한 요리를 만들어낸다.

중국인들은 단 맛, 짠 맛, 신 맛, 매운 맛, 쓴 맛의 다섯 가지 맛 외에 향과 냄새를 복잡 미묘하게 배합한 요리를 만들어낼 줄 안다. 요리에 쓰이는 조미료와 향신료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냄새 제거와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일반 식당에서 사용되는 양념 종류만 50가지가 넘고, 조미료의 종류도 5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약’이라 불려지는 커다랗고 우묵한 후라이 팬이 대표적인 조리기구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에는 국요리, 기름에 튀기는 법, 기름에 볶는 법,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지는 법, 직접 불에 굽는 법, 약한 불에 오랜 시간 국물을 넣고 찌내는 법, 튀긴 다음 달콤한 녹말 소스를 얹어 만드는데, 훈제하는 법 등이 있는데, 훌륭한 주방장은 불의 세기를 잘 조절

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 최고의 ‘수타면’ 달인은 손덕준 씨(55세)다. 호텔 수석 주방장으로 일하는 그는 한국 제1호 중국 음식점 ‘공화춘’의 주방장 장남이다. 그의 수타 경력은 40년이다. 3분 내에 15인분의 자장면 면발을 수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는 ‘용수면(용의 수염처럼 가늘다는 뜻) 뽑기 달인이다.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어 반죽한 후 춤추듯이 상반신 전체를 흔들며, 면발을 짜배기 꼬듯 돌리고 돌리면 쫄깃쫄깃한 3,000가닥의 가느다란 실타래 같은 면이 완성된다. 바느질하는 바늘 귀에 실제로 들락날락하는 용수면에 갓 끓어오른 자장 소스를 얹어 먹는 자장면 맛은 분명 특별한 맛이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디다(39세) 씨는 라티노 수타면 뽑기 달인이다. 애난테일 ‘장원반점’에서 일한 지 8년째다. 첫눈에 보기에건장한 디다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양 팔을 넓게 벌려 수타를 뽑는 모습은 절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점심 준비로 분주할 때 식당 건너편에서조차 들을 수 있는 ‘철퍼덕’ 거리는 둔탁한 음향은 디다가 수타 뽑는 소리다. 밀가루 반죽을 비비곤 후 냅다 나무 책상 위에 내리치기를 십여 차례, 흡사 곤장치는 소리처럼 들려야 면은 일률적으로 고르게 나온다. 펄펄 끓는 물에 입수했다가 곧바로 찬물로 행군 면발은 그야말로 고무줄처럼 탱글거린다.

각둑썰기한 각종 야채와 오징어, 새우, 해삼, 고추가루와 굴소스를 넣고 기름에 볶다가 육수를 넣어 센 불에서 짬뽕 국물을 만든다. 멕시코 매운 고추 할로삐노를 섞어 면 위에 부으면 ‘디다’표 삼선 짬뽕이 완성된다. 갓 끓여낸 짬뽕 국물은 맛이 깊고 고소하다. 면은 국물을 다 먹을 때까지 여전히 쫄깃쫄깃하다.



—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굿스폰 선교회가 대통령 봉사상을 받던 날,

라면 매니아 라티노



편리성, 신속성, 경제성 때문에 각광받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은 라티노 노동자들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식품으로 자리잡아간다. 매콤한 맛을 선호하는 라티노의 입맛을 순식간에 사로잡은 한국산 컵라면은 라티노 밀집지역 세븐 일레븐, 가스 스테이션,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진열되기 무섭게 불티나게 팔린다. 음식 한류(韓流)의 한 몫을 톡톡히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맛 저 맛도 아닌 냉면한 일본산 니신(nissin ramen, 日清) 라면은 분명 뒷전이다. 매콤하면서도 국물 맛이 진한 일품 한국산 라면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며 좋아하는 도시빈민들.

한국 라면 매니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비단 애난테일 거주 라티노뿐만이 아니다. 켈모, 설링턴 등 라티노 밀집지역이면 어디서든지 목격된다. 특별히 겨울철 일거리가 끊어져 주머니에 먼지만 가득한 라티노 노동자에게는 햄버거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먹거리로 호평을 받는다. 3.03oz(86g)의 농심 컵라면에는 약 65cm 길이의 면발 75가닥이 있다. 한 줄로 이으면 대략 50m 정도 된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한해 한인 한 사람이 먹은 라면은 84개, 총 38억 개가 소비되었다고 한다. 38억 개의 라면을 차곡차곡 쌓으면 에베레스트(8,848m) 높이와 비슷하고, 38억 개의 라면 면발을 일렬종대로 엮으면 지구와 달의 거리인 384,800km의 563배에 해당하는 불가사의한 길이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의 1958년, 모든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심

애난테일 장원반점에서 일하는 라티노 종업원은 10명이다. 8명은 주방에서 커다란 욕을 돌리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 ‘디다’와 ‘알프레도’는 한국말로 적은 음식 종류와 바를 정(正)자로 적은 음식 수를 정확히 읽고 분주히 손님을 치를 줄 안다. 한인 매니저 서 씨는 “한인 주방장으로부터 수타 기술을 전수받은 ‘디다’는 타 종업원보다 3배 이상 사례를 받는다. 수타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체력 조건이 좋아야 한다. 힘 좋은 라티노들의 유망 직종 중 하나다.”라고 소개한다.

굿스폰 인종화합 어워드는 한인 업주가 다양한 인종, 타민족 구성원을 포용하여 직업 기술을 전수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며,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 이익을 커뮤니티로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기업,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뜻 깊은 상이다. 아름다운 선행을 겸손히 수행하고 있는 가슴 따뜻한 한인들의 미담을 찾는다.

라틴아메리카의 10대 음식



5성급으로 세계 10대 호텔 중 하나로 손꼽히는 맨더린 오리엔탈(Mandarin Oriental) 호텔은 고급스러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맨더린 호텔이 홍콩에 처음 세워진 것은 1963년이다. 영국의 종합상사 자딘 매디슨(Jardine Matheson)의 헨리 케스워 회장의 지시로, 당시 홍콩의 금융 중심지 콘노트가 5번지에 세워진 것이 효시이다. 현재 13개국에 30여 개의 호텔이 있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고급 호텔 체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맨더린 오리엔탈 홍콩 호텔은 많은 국민들, 외교관들, 연예인들, 수퍼리치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조지 W. 부시, 케빈 코스트너, 톰 크루즈 등 당대 내노라 하는 VIP들이 객고를 풀었던 곳이다. 2003년에는 홍콩의 대스타 장국영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24층에서 자살한 곳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 타이달 베이신(Tidal basin) 지척에 위치한 맨더린 오리엔탈 워싱턴 디씨 호텔의 위용 또한 대단히 호화롭다. 붉은 벽돌로 된 건물 외벽, 다소곳이 녹색 지붕을 얹고 있는 모습은 여염집 콘도처럼 포근하게 보이는 곳이다.

중국인들에게 금색과 붉은색은 복을 부르는 색상이다. 밝고 화려한 두컬러가 고혹스럽게 어우러진 로비, 이탈리아 대리석을 아낌없이 사용한 내부, 아기자기하게 꾸민 정원, 키 작은 소나무 밑에 좌선하고 있는 부처상과

각한 식량 기근에 시달렸다. 전승국 미국의 잉여 농산물 밀가루가 무상 원조되자 안도 시로후쿠라는 사람이 보관이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 또한 저렴한 먹거리를 찾던 중 라면을 개발했다. 국수를 기름에 튀겨 국수 속의 수분을 증발시킨 후 건조시키고, 다시 끓는 물에 익히면 원래 모습은 갖게 되는 원리였다. 소맥분이 가지고 있는 후라보노이드(Flavonoid) 색소와 영양 강화를 위해 첨가된 비타민 B2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면발은 많은 부피를 좁은 용기에 담기 위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2의 쌀로 태어난 일청 라면은 1963년 9월 삼양식품의 전중운 씨의 소개로 한국에 상륙하여 6·25 전쟁 이후 절대빈곤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라면 종류의 다양함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한국 라면은 중주국 일본, 전서 비상식량 건면을 즐겨 먹던 중국 그리고 아시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국제 인스턴트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인들 못지않게 라면에 환장하는 매니아들은 젓가락을 포크보다 더 편하게 사용하는 동양 국수 문화권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중남미에서 올라온 라티노들에게서 활발하게 신장되어 매해 8,000억 원 상당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해 420억 개의 라면이 생산되면 중국에서 150억 개, 일본에서 54억 개, 인도네시아 62억 개, 미국이 20억 개를 각각 소비한다고 한다.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면 얼큰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컵라면이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애난테일 웬디스 햄버거 앞에서 무료로 나눠진다. 동트기 전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길거리에 나와 있던 노동자들의 추위를 녹이는 월동식품으로 사랑받는 라면, 매번 준비하는 다섯 상자의 컵라면이 순식간에 동이 나고 나면 늦게 도착한 라티노 노동자는 쓴 커피와 단빵을 먹고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시장기를 달래 주는 한인들의 따뜻한 정이 담긴 컵라면의 고소한 냄새가 피어 오른다.

라틴아메리카의 슈퍼 푸드



답들, 신비스러우면서도 동양적 매력을 발산하는 장식으로 한껏 멋을 낸 실내, 격조 높은 서비스를 마음껏 선사한다.

포트맥 강변에 위치한 어시장, 요트 정박장,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을 예약하려면 1박에 최소 715-815달러를 줘야 한다. 펜트하우스에 있는 럭셔리 룸은 일박에 6천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호텔 내에서는 운동복, 반바지, 청바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식당을 출입할 수 있다. 13년만에 국민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신 이명박 전(前) 대통령 내외분이 재미 한인 동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곳이 지하에 있는 그랜드 볼룸이다. 폭발물 탐지견의 쿵쿵거림, 긴장한 K-9 경찰의 철저한 검문 검색대를 지나야 했다. 미국 내 원근 각처에서 초청된 사백여 한인 동포들과 대통령 간의 간담회는 시종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된 원고 없이 즉석에서 한국과 미국의 최근 현안을 열거하며 재미있게 풀어 주셨다. 솔직한 언변에 참석자들은 모두 환하게 웃었다.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같은 소박함으로, 동포들의 안위를 살뜰하게 걱정해 주며 격의 없이 대화하자 장내에는 소통의 열기가 가득했다. 동포들은 마음을 열어 대통령의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염원했다. 대통령 영부인과 동행한 귀한 손님들은 오랫동안 머물며 동포들의 손을 정겹게 잡아 주었고, 일일히 건승을 기원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들이 떠난 후 호텔에서 정성껏 준비한 디너상을 받았다.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를 기억하며 그의 행로를 축복한다.

“원컨대 주께서 대통령 일행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 미국 방문 일정에 축복하시기를,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기를.”

‘슈퍼 푸드(super food)’란 건강 증진 효과가 탁월해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 속도를 줄여 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식품이면서 구입하기 쉬워야 하고, 섭취하기 편한 편리성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8년 미국의 영양 전문가 스티븐 프렛 박사가 세계적인 장수 국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중심으로 쓴 책에서 비롯됐다. 미 시사 주간지 《Time》지가 선정한 10가지 ‘슈퍼 푸드’는 아몬드, 브로콜리, 단호박, 콩, 귀리, 오렌지, 연어, 요구르트, 양배추, 블루베리 등이다. 대부분 노화, 질병에 저항하는 힘을 가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나 비타민처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 많은 특징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슈퍼 푸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다양한 약리 작용을 갖고 있는 노니(noni)는 6년근 인삼처럼 효능이 다양하다. 커다란 녹색 잎사귀 사이에 달려 있는 노니는 돼지감자와 비슷한 모과처럼 울퉁불퉁한 초록 열매다. 노니의 꽃은 치자꽃처럼 하얗고 청초하다. 무수한 꽃 대롱이 지고 나면 그 아래 열매가 맺히는데, 어른 주먹만 하다. 초록에서 열린 갈색으로 바뀌어 갈 때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적기다. 하얀 속살에 불그스름한 씨앗이 어여쁘게 조화를 이룬 소박한 모습을 갖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브라질, 폴리네시아, 하와이 등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생명력,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연중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습한 곳이면 어디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뻗어나간다.

노니의 효능이 놀랍다. 식물성 영양소 스코폴레틴(scopoletin)이 송과선

라틴아메리카의 먹거리



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수축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 심장보호, 고혈압 치료에 탁월하다. 염증과 히스타민(histamine) 치료, 통증 완화, 암, 당뇨, 순환기관, 위장장애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 젊은 청춘의 알미운 심볼인 여드름에 노니의 즙을 짜서 바르기만 하면 감쪽같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수확되는 ‘아사이베리(Acaiberri)’는 종려나무 줄기에 실한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인디오들에게 ‘생명나무’로 애지중지 여겨지는 아사이베리는 참전하는 전사들의 전투식량으로 유명하다. 자연산 비타민 E와 아미노산, 세포 파괴를 막아 주고 암세포와 대항하여 싸우는 안티옥시던트, 세포 생성과 활발한 두뇌작용을 돕고 콜레스테롤까지 조절해 주는 오메가 지방산이 적포도보다 무려 열 배나 많은 영양의 보고다. 항산화수치(유해산소 흡수능력)가 높기로는 크렌베리(91), 블루베리(46), 석류(44), 적포도(18), 오렌지(16), 키위(12) 순이다. 이에 비해 ‘아사이베리’의 항산화 수치는 1027로 단연 최고봉이다. 백혈병 세포에 아사이베리 농축액을 부었더니 암세포의 86%가 스스로 소멸됐다. 아사이베리는 시거나 뭍은 특유의 맛이 없다. 다른 음식과도 궁합도 좋고, 영양만점이다.

2011년, 세계 육상대회가 달구벌에서 다양한 화제를 일으키며 막을 내렸다.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는 총알탄 사나이로 세계 기록을 또 한번 갱신했다. 우사인 볼트의 ‘슈퍼 푸드’는 무엇일까? 라틴아메리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풍성하며, 값도 저렴한 얀(yam)과 빨라따노스(platanos)다. 최고속 스프린터의 ‘슈퍼 푸드’가 너무 소박해서 친근하다. 핑크빛 감도는 얀은 물 고구마처럼 달고 목 넘김이 촉촉하다. 계피가루를 듬뿍 뿌려 오븐에 굽기만 해도 당도 높은 훌륭한 먹거리가 된다. 빨라따노스는 바나나처럼 생겼지만, 짙은 녹색 코트를 입었고, 크고, 단단하다. 신선한 식용유에 자작자작 튀겨내면 감칠맛 나는 맛있는 음식이 된다. ‘얀과 ‘빨라따노스’로 도시락을 만들어 단풍 짙은 가을 산행에 오르고 싶다.

라티노들이 즐겨 먹는 최고의 주식은 옥수수, 감자, 유까(yucca)다. 육류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 우유, 치즈, 계란이 단연코 대중을 이룬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서는 싱싱한 생선을 즐겨먹는데, 라티노식 모두 생선회 세비체가 발달했다. 과일로는 마나나, 썬디아(수박), 망고, 빠빠야, 꼬꼬넛, 뽀멜로(자몽)와 토마토가 풍성하고 크기와 맛이 다양하다. 주요 향신료는 강한 매운맛을 내는 할로삐노 고추, 양파, 실란트로, 리몬 등이다.

멕시코인들의 대중적인 주식은 따꼬(taco)다. 다진 쇠고기를 볶아내고, 양파, 토마토, 실란트로, 아보카도, 할로삐노 고추를 다진 후, 식초, 올리브기름, 약간의 소금을 넣어 버무린 쌀사 소스를 따꼬에 얹어 맛있게 먹는다. 중미 다섯 나라(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주식은 또르텔라(tortilla)다. 옥수수 가루에 약간의 물을 넣어 반죽한 후 오리알만하게 떼어내어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다. 이미 푹 끓여 놓은 검정콩이나 삶은 계란, 쇠고기 다진 것을 싸서 먹는다. 또르텔라 반죽에 다양한 속을 넣어 구워낸 것이 뿌뿌사(pupusa)다. 양념한 쇠고기, 삶은 닭고기 살을 찢어 양념에 버무린 것, 계소(cheese) 등을 넣어 번철에 구워낸다. 뿌뿌사와 매콤한 쌀사 소스는 찰떡 궁합이다. 옥수수의 담백한 맛과 고소한 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다.

남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레빠소(arepazo)를 즐겨 먹는다. 역시 재료는 옥수수 가루다. 쭉쭉 찢어지는 쇠고기 흥두깨살을 매콤하게 양념하여 머핀처럼 둥글게 모양을 내어 불에 구운 것으로 남미의 별미로 불리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열대과일



는 데 손색이 없다. 파라과이에서는 옥수수가루로 찌빠(chipa)를 만들어 먹는다. 반죽할 때 치즈가루를 넣고, 약간의 돼지고기 기름을 가미하여 진흙 화덕에서 구워낸다. 막 구워낸 노르스름한 찌빠에다 냉면 그릇만한 뽕멜로 주스를 가미하여 먹는 맛은 가히 중독될 지경이다. 엠빠나다(empanada)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맛볼 수 있는 구수한 먹거리다. 가냐 데 아수까르(사탕수수) 주스는 엠빠나다의 연인이다. 갓 수확한 사탕수수대와 주먹만한 리몬 몇 알을 모터 달린 압착기에 넣고 굴리면 향긋한 녹색 주스가 코끝을 감미롭게 한다. 새콤달콤한 녹색 주스와 어울리는 엠빠나다는 남극에서만 맛 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다. 페루와 에콰도르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쌀을 넣은 후, 약간의 소금을 쳐서 볶아 프라이 라이스를 만든다. 연안을 흐르는 홈볼트 해류 때문에 한류성 어종과 적도 주변의 엘 니노(el Nino) 난류성 어류가 함께 모이는 페루 연안은 풍성한 어장이 형성된다. 뼈를 바른 생선살에다 레추가(상추), 양파, 실란트로, 토마토를 썰어 얹고 라임 원액을 듬뿍 뿌려 보기 좋게 담아내면 페루식 회무침인 세비체가 된다.

매주 수요일 11시에는 라티노 도시빈민들이 애난테일 굿스폰 사무실로 점심식사를 기대하고 모여든다. 리틀리버 턴 파이크 노동시장에서 사무실까지는 족히 30분은 걸리지만 낮익은 얼굴들이 숨이 차서 찾아든다. 어린 자녀를 대동한 부모, 저소득 라티노 아줌마들이 친구들과 수줍게 모이는 곳이다. 고실고실 갓 지어진 쌀밥과 계란말이, 고기 야채 볶음, 라티노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는 따뜻한 고깃국이 배식되면 허기진 나그네들이 잠시 시름을 잊고 하늘에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 겨우내 술에 쪼여 흠리스로 전전하던 과테말라 출신 호세 리온(45세)이 허겁지겁 헛헛한 배를 채운다. 술병 난 친구 뒤편의 도시락을 봉지에 담아 황급히 걸음을 옮기는 그는 분명 작은 봉사자다. 부디 이 밥 먹고 힘을 내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기를 소망한다.

마메이 싸뽀떼(Mamey Sapote)는 멕시코 남부가 원산지이나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최고 높이 140피트(45미터)까지 자라는 대형 상록수 나무다. 떡갈나무처럼 생겼고 이파리가 촘촘해서 큰 그늘을 드리운다.

잘 익은 마메이 싸뽀떼는 타조알 같기도 하고, 럭비공(25cm)처럼 둥글다. 카로틴(carotene), 포타시움(potacium),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밀크 셰이크, 스무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썰어 넣으면 입안 가득히 달콤한 맛이 번진다. 다른 과일과 섞어 후르츠 샐러드 주스를 만들어도 잘 어울린다.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질감에다 구수한 군고구마 맛, 한 입 베어물 때 번지는 상큼한 향기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최음제로도 사용된다. 마메이 싸뽀떼가 가장 맛있을 때는 말랑말랑하게 손으로 눌러 들어갈 때다. 속살이 분홍색을 띠고 있을 때는 크림 맛이 난다.

아구아까떼(Aguacate, 아보카도)는 밀림의 버터로 불려진다. 염분 함량이 적고 혈압을 조절해 주는 칼륨이 열대과일 중 가장 많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과일이다. 100g에 불포화 지방 함량이 17.3g이나 담겨 있어 혈관 건강에 유익하다. 껍질이 녹색에서 검정색으로 살짝 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눌러질 때가 가장 맛있는 때다.

잘 익은 아보카도 중간에 칼집을 내어 반으로 쪼갠 후 스푼으로 연두색

속살을 으갠다. 토마토, 양파, 실란트로, 아바네로 고추 간 것을 섞어 와까 몰래를 만들어 크래커에 얹으면 고소함과 매콤함, 향긋함과 새콤한 맛이 감칠맛 나게 한다. 한겨울을 지내느라 잃어버린 입맛을 돌리는 데 제격이다.

삐따야(pitaya). 학명은 Hylocereus undatus로 일명 '용과'라 불린다. 나무나 바위에서 잘 자라는 선인장과 과일로 콜롬비아와 중남미에 흔한 과일이다. 영어로는 dragon fruit라고 한다. 선인장은 세계적으로 대략 5,000종. 대부분의 선인장들은 75일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지속돼도 살아남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광야에 파수꾼처럼 우뚝 서 있는 믿음직한 모양새와 수없이 많은 백색의 꽃이 매력이다.

식용으로 쓰이는 빨강고 맛있는 용과는 자연이 주는 천혜의 선물이다. 국기봉처럼 생겼고 붉은색을 띤 것과 노란색을 띤 것이 있다. 양파껍질 벗기듯 벗겨 칼로 자르면 겉보다 더 아름다운 속살을 볼 수 있다. 키위처럼 작은 씨앗이 하얀 젤리 과육 속에 촘촘히 박혀 있다. 노란 삐따야 씨는 깨알갱이만 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고혈압 환자에게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줄여 준다. 중금속에 의한 해독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미네랄의 보고로 다이어트에도 적격이다.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푸딩, 잼, 주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비타민, 칼륨, 인, 칼슘이 야박하지 않을 만큼 골고루 담겨 있다.

따마린도(tamarindo)는 인도와 열대 아프리카 지역이 원산지다. 16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자들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다. 높이 60피트(18.3m), 아카시아 잎사귀같이 무성한 잎을 드리운다. 난초 꽃처럼 노랗고 빨간 예쁜 꽃을 피우는 타마린도는 15cm 정도의 짙은 갈색 콩각지 열매를 맺는다. 새콤한 신맛을 가득 담은 콩각지 알맹이는 10여 개의 씨가 담겨져 있다. 비타민 B, C가 많다.



- 굿스폰선교회는 도시빈민들에게 따뜻한 휴식처가 되고 싶다.

엊그제 오후부터 내린 5인치의 폭설에 도시빈민들의 휴식처가 폭삭 주저앉았다. 강력한 쇠파이프로 뼈대를 세운 견고한 텐트는 북풍한설에도 끄떡없이 빈민들의 예배장소로, 식당으로 훌륭히 제 소임을 감당하고 있던 터였다. 오후 12시경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는데 이음새마다 목이 꺾였다. 풍비박산 난 텐트 치우랴, 눈 설거지하랴 정신 없는데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요통이 급한 마음을 붙잡는다. 동장군의 위세가 여전한 겨울 한복판에 혹여 시원한 짜뽕뽕 한 조각 베어 물면 요통도 낫고, 심란한 마음도 진정되지 않을런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멕시코 유카탄 반도와 남미 열대 아마존 지역이 고추의 원산지다. 멕시코에선 BC 850년 경부터 재배되었다. 1493년 콜롬부스와 함께 항해하던 ‘잔가라는’ 사람이 멕시코 원주민들이 후추보다 더 맵고 빛깔이 붉은 고추를 향신료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붉은 후추(red pepper)’라며 유럽에 전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환경이 원산지와 비슷하여 재배가 용이했다. 16세기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일본, 중국에 따바코(tabaco, 담배)와 함께 전파했다. 한국에는 임진왜란 당시 ‘남만초’라는 이름으로 전래됐다고 한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위염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테일로리에 감염된 위 점막 세포의 염증 억제, 지방 연소 촉진, 체중 감량에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도 다량 들어 있다. 고추의 매운 정도를 계량화시킨 국제 표준이 스코빌 척도이다. 1912년 미국의 화학자 윌버 스코빌은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캡사이신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한국의 ‘청량고추’는 4,000-10,000SHU(Scoville Heat Unit)이다. 아주 매운 맛이 100 이상, 보통 매운 맛은 45-75, 덜 매운 맛은 30-45, 순한 매운 맛은 30 미만에 해당된다.

2007년 기네스 북에 등재되었던 세계 최고 매운 고추는 인도 ‘부흐트 졸로키아(Bhut Jolokia)’였다. 지독스럽게 매워 ‘유령 고추’라 불린다. 매움기 강도가 청량고추의 100배 이상 되는 855,000-1,050,000SHU였다. 딸기 모양을 닮은 엄지손가락 크기의 ‘부흐트 졸로키아’를 한 입 베어 물면 잠시 후 터질

듯한 뜨거움과 고통이 입안에 번진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석탄을 입에 문 듯 잇몸과 입술, 혀바닥이 타들어가고, 얼굴과 뒷덜미는 후끈 달아오른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입에서는 맑은 침이 하염없이 흐른다. 눈이 침침해지며, 목소리는 잠기고, 귀가 멍멍해진다. 얼음 냉수로, 찬 우유로, 아이스크림으로 중화시켜 보려 하지만 한 시간 이상 지나야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고추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30분 동안 장님이 될 수 있다. 방글라데시 ‘도셋 나가(Dorset Naga)’ 고추가 2위다. 886,000SHU의 매운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일명 ‘쥐똥 고추’라고 불리는 태국의 프릭끼누(Phrik khi nu)도 50,000-100,000SHU로 지독스럽다.

2010년, 새로운 ‘괴물 고추’가 탄생했다. 영국 그랜서 섬에서 ‘나가 모리치(Naga Morich)’, ‘부흐트 졸로키아’, ‘트리니다드 스콜피온 칠리(Trinidad Scorpions Chillies)’를 교배하여 만든 ‘인피니티 칠리(Infinity chilli)’는 1,067,286SHU로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 그것도 잠시, ‘괴물의 괴수’로 불리는 ‘나가 파이프(Naga Piper, 1,349,000 SHU)’가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다. 고추를 말려 씨와 함께 곱게 빻은 후 군대용 최루탄 원료로 이용하면, 치한 퇴치용, 데모 군중 해산용 고추 스프레이 무기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다.

멕시코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아바네로(Habanero, 350,000-580,000 SHU)’다. 어른 엄지 손톱만 하면서 노랗고 붉은 ‘아바네로’는 예쁜 자태와는 달리 위협스럽게 맵다. 유난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멕시코노들, 두 살배기 어린아이가 할라베노(Jalapeno)를 먹기 시작한다.

까를로스(40세)가 멕시코로 돌아간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와 2년 전 다친 허리 부상으로 미국생활이 너무 고달파서이다. 4년간 배회했던 애난데일을 떠날 때가 임박했지만, 아직 수중에는 고향으로 가는 교통비조차 없다. ‘아바네로’ 고추 농사 잘 짓거든 초대하겠다는 까를로스, 쟈바야 비엔, 아 디오스!

쌀떼냐 먹고 모꼬친치 마시고



볼리비아식 왕 만두(Empanada, 엠빠나다)가 쌀떼냐, 수정과처럼 달콤한 음료가 모꼬친치다. 양력과 음력을 함께 사용하는 볼리비아의 설 명절에 원근 각처에서 몰려온 식구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 별식으로 먹는 쌀떼냐의 맛과 멋이 이채롭다. 19세기 볼리비아에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가 철권으로 통치할 때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안토니오 빠레데스 간디아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쌀떼냐 제조법을 내놓았고, 이후 볼리비아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 쭈끄레, 꼬차 밤바, 썬타 꾸르스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침 7시면 만들어 오전 내내 판매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12시가 되기 전에 품절되고 만다.

쌀떼냐에는 세 종류의 고기를 주로 사용한다. 뼈를 바른 쇠고기, 치차론 쎬르도(Chicharon Cerdo, 돼지고기), 달콤하면서 매운 소스로 양념한 닭가슴살 등이다. 정성스럽게 다진 고기에다 완두콩, 잘게 썬 감자와 파슬리(parsely), 건포도, 검은 올리브, 삶은 계란과 젤라틴, 쇠고기 육수를 넣고 센 불에서 15분가량 끓여 하루 전에 미리 스투로 만들어 놓은 후 냉장고에 담아 보관하면 만두 속이 완성된다. 밀가루에 소금으로 간한 물과 날계란, 쇼트닝, 설탕으로 반죽을 하고, 아히(aji, 노란 칠리 열매) 열매로 노르스름하게 색을 넣어 두툼한 만두피(tortilla, 토르멜라)를 10cm 원형으로 만든다. 만두 속을 풍성히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 끝부분을 육즙이 흐르지 않도록 눌러 모양을 내어 준다.

이제 오븐에 넣어 구울 차례다. 쿠키 굵는 판에 오일을 두르고 쌀떼냐를 가지런히 놓은 후 붓으로 만두 피에 계란 흰자를 살살 바르면서 375도 불에서 30분 정도 노릇하게 구워내면 된다. 맛갈스럽게 구워진 황금 빛 쌀떼냐는 따뜻한 상태로 접시에 담는다.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야후아 소스(Llajua), 할라빠노(Jalapeno, 칠리를 곱게 갈아 만든 그린 소스)와 라임을 뿌려가면서 꾸차라(Cuchara, 스푼)로 조금씩 잘라 먹는 맛은 분명 호사스럽다. 오븐에서 바삭하게 익은 만두 속에서는 맛갈스런 향기가 은근히 풍겨나오고, 슬그머니 흘러나온 달콤한 육즙에는 먹고 또 먹게 만드는 마력이 깃들어 있다.

바늘(쌀떼냐) 가는 데 실처럼 따라가는 음료가 모꼬친치다. 볼리비아노들에게 국민적 사랑을 받는 수정과가 모꼬친치다. 만드는 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맛은 달콤하고 향긋하여 볼리비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유리 항아리에 담아 판매하는 국민 음료다. 모꼬친치의 주 재료는 달콤하고 향긋한 마른 복숭아다. 건조시킨 복숭아를 물에 통째로 넣고 흐물흐물할 정도로 끓인다. 브라운 슈가와 계피, 오렌지 주스, 레몬즙을 넣어 물이 카라멜 색깔을 띠 때까지 끓인다. 거기에다 건포도를 넣고 다시 30분 정도 더 끓이는데, 넥타처럼 걸쭉하지 않게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끓인다. 모꼬친치를 서브할 때는 투명한 유리 잔에 부드럽게 풀어진 건복숭아 열매를 함께 담는다.

거리 급식이 애난데일에서는 화, 목요일, 셸링턴에서는 수요일, 금요일은 메릴랜드 리버데일 그리고 토요일은 컬모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를 잡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던 백여 명에 가까운 도시빈민들, 노숙자들, 노동자들이 잔뜩 허기져서 찾아온다. 따뜻하게 지어진 밥, 고소하게 튀긴 닭고기, 추운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뜨끈한 컵라면이 겨울철 사랑의 도시락으로 나눠진다. 이번 음력 설에는 사골 국물에다 한국식 쌀떼냐를 말아 따끈하게 대접하며 축복해야겠다. “펠리스 아노 누에보(Feliz Ano Nuevo)!”

엄마손 표 부부사



라틴아메리카 출신 도시빈민들을 위해 ‘목적이 이끄는 밥피’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04년 1월이다. 한인타운 애난데일에서부터 인근의 라티노 밀집지역인 컬모, 알렉산드리아, 알링톤, 스프링필드, 헨던, 심지어 메릴랜드 랭글리파크에서 꼬박 6년 10개월 동안 ‘밥피’ 사역을 쉬 없이 했다. 매년 2만 명 가까운 라티노들에게 점심을 공급했으니 어림잡아 10만 명 넘게 ‘부에나 꾸차라(굿스폰)’ 식당에서 밥을 먹은 셈이다. 그동안 한인 봉사자들의 흘린 땀과 정성은 얼마나 많았을까. 목마르고 배고파서 체면 불구하고 달려온 낮선 라티노들을 위해 한인들이 펼친 사랑의 식탁에서 건넨 따뜻한 점심과 사랑은 상한 심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고이 남을 것이다.

그동안 라티노들을 위해 배운 메뉴는 다양하다. 맛과 영양이 풍성한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주로 공급했는데 중남미 16개 나라에서 몰려온 라티노들에게 ‘한류’ 음식 문화 확산에 한몫을 톡톡히 감당한 바 있다. 한 번은 설렁탕을 대접했다. 진한 우유빛 설렁탕 국물에 쪽파를 잘게 썰어 넣고 바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내놓았더니 바닥을 훑으며 고소한 맛의 비결이 무엇이나 물었던 그들이다. 강황 섞인 노란 카레에다 당근, 양파, 감자, 쇠고기를 넣고 끓여 갓 지은 쌀밥에 카레 덮밥으로 올려 내었더니 개눈 감추듯 한 그릇 딱딱 비우고 난 입 주변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 멕시코노, 과테말떼꼬, 온두레노, 볼리비아노, 페

루아노들이 끼니 때마다 즐겨 먹는 ‘세비체(라티노식 생선회)’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배추김치다. 조류독감, 돼지독감, 겨울철 유행성 독감에도 한인들이 건강하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비결이 ‘김치’ 덕분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부터 김치는 라티노들에게도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한인들의 음식이 맛있고 영양이 실하다 한들 저들 고향에서 먹던 추억 어린 음식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빈민들이 타향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서러울 때면 엄마가 만들어 주던 음식과 사랑스런 아내들이 차린 라틴식 전통음식을 그리워한다.

중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니카라과 출신의 라티노들의 주식은 ‘토르텔라(Tortilla)’다. 하루종일 막노동으로 진이 다 빠져 돌아와서도 옥수수가루에 물로 반죽을 해서, 프라이팬에서 호떡처럼 노릇하게 구워낸다. 설탕이나 소금, 그 어느 것도 첨가하지 않아 맛있게 구운 옥수수 구운 맛이 고소한 토르텔라에다 팔 앙금 같은 ‘후리홀레스(Fulijoles, 검은 콩죽)’를 싸서 먹는다. 형편에 따라 삶은 계란, 구운 닭고기, 요리한 쇠고기와 감자 튀김까지 먹고 ‘따마린도(Tamarindo, 달고 신맛이 깊은 나무 콩깍지)’ 주스를 마시고 나면 노스탈지아(Nostaljia, 향수병)도 금세 수그러든다.

애난데일 리틀 리버 턴파이크 4100번지 웨어몬가든 아파트에는 9천 명의 라티노들이 거주한다. 엘살바돌 출신의 통통한 아줌마 빅토리아(Victoria)가 운영하는 엄마손 표 식당이 맛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과테말떼꼬 바실리오와 함께 찾아간 저녁시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뿌뿌사(Pupusa, 치즈를 넣은 옥수수 호떡)’를 주문했다. 반죽한 옥수수에 ‘무짜렐라 껌소(Muzzarella, 치즈)’를 잘라서 넣고 후라이팬에 기름도 두르지 않고 구워낸다. 갓 구워낸 뿌뿌사에다 레몬 두 조각을 뿌리고, ‘하마네라(Jabanera, 그린 페퍼 소스)’를 얹어 한 입 베어 물면 엄마손 표 뿌뿌사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고인다.

80세 청년의 식지 않은 꿈

1931년 평북 정주에서 출생한 송인준 사장은 ‘꿈꾸는 노인’이다.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80세이지만 그 의욕과 비전은 40대 젊은이 못지 않다. 1969년에 입국하여 만 41년 째 살고 있는 미국 생활, 이곳에서 보낸 그의 반 평생은 자못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다.

이민 초창기에 모빌 알라바마에서 웨어하우스를 경영하였고, 해상업과 수산물 가공업으로 성공하였다. 현재는 볼티모어에서 ‘홀 오브 더 월드’ 식품 가공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가 만든 식품들은 솔직하고 순박해서 웰빙 먹거리로 호평을 받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산재한 아시안 마켓과 한인 동포사회 체인망에 납품하는 건실한 기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송 사장이 중미 엘살바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특이하다. 그의 공장을 거쳐간 약 400여 명의 라티노 종업원들과 20여 년 함께 나눈 삶을 통해서다. 엘살바도 출신의 미겔, 호세, 아나, 과테말라 출신의 가말리엘 루세로, 그 외에 여름 성수기에는 30~40명, 겨울철에는 20여 명의 라티노 종업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객지에서 만난 중남미 출신의 라티노들은 비록 인종과 언어와 피부색이 달랐지만 모든것을 초월하여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종업원을 친 자식처럼 살갑게 대하는 송 사장 부

부, 고향의 부모처럼 존경하며 따르는 라티노들은 어느새 인종을 초월한 국제 가족이 되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다정한 사귀이 깊어지더니, 한인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 라틴아메리카의 낭만적인 습관과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송 사장은 저들의 조국 중남미를 깊게 사랑하게 되었고, 그 땅의 사람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2년부터 송 사장은 중남미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그밖에 여러나라의 소문난 관광명소도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그런 송 사장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온통 빼앗았던 곳은 엘살바도였다. 메릴랜드보다 작은 그 땅을 30여 차례 방문하면서 그는 운명적인 결심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살면서, 평생 경험하고, 축적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땅과 그곳 거민들을 위해 나누며 살겠다고.

엘살바도는 중미 5개 나라 중 영토가 가장 작고 화산과 지진, 허리케인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있지만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주변 국가에 뒤지지 않을 잠재력과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풍성한 개발도상 국가이다. 6·25 전쟁으

로 폐허더미가 되었던 한국에 3,000달러의 거금을 쾌척하여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 6월,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5년 단임 대통령에 오른 '마우리시오 푸네스 까르따헤나(Mauricio Funes Cartajena)'가 선정을 베풀고 있다.

'꿈꾸는 노인' 송 사장은 8년 전부터 그 땅에 한국식 새마을운동을 접목 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고통 중에 있는 760만 살바뚜르차들에게 채워진 '빈곤'이라는 족쇄를 끊어 주고 싶어한다. 산전수 전 끝에 경험한 특별한 노하우와 여섯 컨테이너 가득 담을 수십만 달러어치의 기계와 설비들은 선적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이미 '라 빨마(La Palma)'시, 해발 1,900-2,400m에 다양한 환금작물을 심어 토질을 분석하고 있다. 농업 장려, 중소기업 육성, 태평양 연안 307km에 펼쳐진 황금어장에서 수 산업을 활성화 시킬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있다.

80세 청년 노인의 싱그러운 꿈은 아직도 식지 않은 채 열망을 품고 진행 중이다.

6부 세계를 향한 선교

깊이 일 마일 넓이 일 인치 교회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해 이웃 교회를 기웃거리며 신자들을 유인하여 성장을 이끄는 것은 “교인의 수평이동, 성도의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윌리엄 채드윅(William Chadwick)은 그의 저서 『양 도둑질(Stealing Sheep)』에서 주장한다.

윌리엄 채드윅도 한때 소위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였다. 메인주 포틀랜드, 스트라우드워터 크리스천 교회(Stroudwater Christian Church)를 시무하던 그도, 한때는 소속 교단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온갖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때가 있었다.

자극적이고 역동적인 프로그램과 성장이론으로 무장한 그의 교회는 인근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흡사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교회 사이즈는 점점 비대하게 커져갔지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은 일 인치 깊이도 되지 않았다.

그런 성장의 정점에서 용서, 기록, 헌신, 섬김이란 영적 훈련을 요구하자 쉽게 옮겨왔던 교인들은 좀더 수월하면서도 더 뜨거운 교제가 있는 곳, 더 편한 예배, 더 나은 설교를 향해 거침없이 떠나가버렸다. 인위적인 ‘양 도둑질’로 잠깐 맛보았던 성공의 덧없음에 고뇌하던 그가 ‘불신자의 회심성장’이라야 참다운 교회 성장이라며 일갈을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전도원칙은 E0-예루살렘과

가족전도) E1-은 유대와(친구들), E2-사마리아와(동족들), E3-땅끝까지(타문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음에도, 쉽게, 빨리,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으려는 목자들은 기존 신자들을 타깃 그룹화(Target Group)해서, TG0-가족에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로 옮기라고 권유하고, TG1-친구들을 유인하고, TG2-인근 교회 성도들을 유인하고, TG3-교단이나 전통이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이끌어오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한다.

이민교회 현장에서 교회성장의 한 도구로 이미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양 도둑질'은 엄연히 기독교윤리를 범하는 것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전도를 통한 불신자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만이 참다운 교회성장의 방법이다. 등록하는 새신자는 세례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할 대상은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어야 한다.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다니는 수평이동성장(transfer growth)은 단순한 성도 재배치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도들의 순환에 불과하다. 인근 목장의 목자가 게을러서 이웃 목장의 양무리가 울타리 밖을 동경한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자기 목장으로 유인하여 들이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

전도를 가장한 감언이설로 이웃 목장의 소떼와 양떼를 훔쳐오는 것은 교회의 쇠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불신자를 전도하여 교회로 이끌어오는 데 따르는 난관과 많은 시간 소요, 또 사역을 감당할 제자로 양육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는 이유로 쉽게 도둑질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목장과 그 곳에 속한 양무리에 대한 탐욕적인 관심을 달아야 한다. 성공에 눈이 멀어 알뜰하고 그릇된 성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



- 잃은 양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과 강한 선교의 열정이 있는 진정한 목자가 너무나 필요한 때이다.

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교인 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얻는 긍정적인 유익은 전혀 없다. 수평 이동 성장을 통해 이룬 초고속 성장의 명성과 칭찬과 찬사는 거짓되고 하나님의 뜻과 분명 반하는 악한 것이다.

잃은 양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과 강한 선교의 열정이 있는 목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여 실천하는 크리스천으로, 더 많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섬기도록 돕는다. 선한 목자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깊이 일 마일 되는 참 교회가 아쉽다.

도가니



본래 ‘도가니(crucible)’는 쇠붙이를 녹이거나 공기 중에서 강렬한 휘발성 성분을 제거하여 재로 만드는 고온 처리 용기를 말한다. 석영, 자기, 금속(백금, 금, 은, 니켈, 철), 흑연, 알미늄 등으로 만든다.

작가 공지영이 2009년에 발표한 소설 제목도 “도가니”다.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즉 ‘광란의 도가니’, ‘분노의 도가니’, ‘슬픔의 도가니’, ‘거짓과 폭력의 도가니’ 등으로 사용한다. 작가는 청각 장애자를 위한 ‘자애학원’이라는 곳에서 상상조차하기 싫은, 그러나 ‘광란의 도가니’처럼 벌어졌던 고통스런 실제 사건을 고발했다. 작년에는 황동혁 감독이 실화를 재구성하여 영화 “도가니(Silenced)”를 만들었다. 감독은 영화 시작 첫 머리에 안개 짙은 그 도시에 더러운 음모와 악행과 비리가 은밀히 감춰진 것을 미리 암시하듯 끔찍한 장면으로 열어젖힌다. 한 편의 영화가 관객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적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파장이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단숨에 3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다. 대법원장, 경찰 총수, 국회의 선량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통한의 슬픔을 가지고 관람했다.

자애학원 교장 김강석은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Dr. Jekyll and Mr. Hyde)”에서처럼 두 얼굴을 가진 파렴치한 인물이다. 어질게 훈육하는 교육가이면서 무진 영광제일교회 장로로 존경과 신임을 받을 때는 영락 없는 지킬 박사의 가면을 쓴 모습이다. 그 영향력은 무진시청, 관할 경찰서, 전남 교육청에서 무소불위의 파워로 통했다. 그러나 가녀린 장

애 아동들을 교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욕정의 제물로 삼을 때는 하이드처럼 변태 성욕자로 돌변한다. 그의 쌍둥이 동생 김강준 행정실장, 그리고 수하의 여러 교사들이 공공연히 벌인 성폭력, 감쪽같이 은폐시키기 위해 동원된 학대, 기득권자들의 부패와 은밀한 거래들... 온 국민의 분통이 일시에 터졌고, 눈시울은 흐르는 눈물로 벌겍게 젖어 들었다.

자애학원의 시작은 그럴 듯했다. 1956년 김택용 원장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게 하여 자주, 자활, 근면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설립이념을 가지고 전남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603-1에 전남 농아원을 세웠다. 이후 농아학교로, 2005년 세간에 알려질 즈음에는 우석 사회복지법인이 ‘광주인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5,000만 원을 강제로 학교에 기부한 후 교편을 잡은 최사문 교사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들을 하나 둘 목격한다. 장애 아동들의 얼굴과 몸에서 발견되는 피멍과 상처들, 화장실에서 강간당하는 신음소리, 돌아가는 세탁기에 머리가 치박힌 채 고문당하는 끔찍한 장면들, 유린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무언의 피맺힌 절규들...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던 처절한 피해 사례를 광주시 교육청, 전남 교육청, 경찰서, 시청, 사법부에 진정했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전관예우, 청탁, 권력과 돈을 움켜쥔 기득권자들의 부패와 야합, 사악한 공모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강석은 집행유예로 유유히 풀려났고 태연스럽게 천직에 복귀하여 일상을 즐기고 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상의 섬김 사역이다.

복음으로 끝낸 피의 축제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식인 인디오 부족을 향해 선교했던 캐나다 출신의 돈 리처드슨(Don Richardson) 선교사는 흥미로운 선교 이론을 발표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복음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서구와는 전혀 다른 이리안 자야(Irian Jaya)의 식인부족(사위족) 가운데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면서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가치관이라면 존경하며 따르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적대관계에 있는 원수 부족은 철저히 배반하고, 감히 보복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응징하는 것만이 부족을 존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철천지 원수였던 두 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전쟁은 매년 계속되는 연례행사였고, 그로 인한 참상은 양 부족 간에 아물지 않을 만큼 처참한 상흔을 남기곤 했다.

리처드슨 선교사의 중재로 두 부족이 잠시 휴전을 선포하는 의식을 갖는다. 부족 추장의 아들을 서로 맞교환하여 볼모로 잡힌 채 상대 부족에게서 자라게 한다. 볼모로 교환된 두 아이가 살아 있는 한 두 부족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없음을 맹세하게 했다. 화해의 아이(peace child)가 복음을 전달할 통로로 예비하셨음을 간파한 리처드슨 선교사는 유효적절하게 인용하며 부족의 운명을 바꿔 놓을 만한 진리를 선포한다.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들은 커다란 전쟁 가운데 있었다. 많은 인간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종전의 상징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 아들이 예수다. 인간들의 화해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 화해의 아이이다.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전쟁이 그치게 된다.”

놀랍게도 사위 부족과 수구지천이었던 다른 부족 간에 전쟁은 종식되었고 양 부족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정글에 산뜻한 교회가 세워졌다. 칼과 창은 호미와 농기구로 바뀌었다. 복음화를 이뤘던 것이다. 리처드슨은 여타 대륙의 다른 문화권 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문화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구속적 유비(redemptive analogy)라 불렀다. 멕시코 아스떼카(Azteca) 문화에 전래되어 오는 전승도 있다.

“태양력 1,500년경에 흰말을 타고,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백인의 손엔 벼락소리를 내는 화승총이 들려 있을 것이다.”

메노치틀란 왕국의 목테수마 황제와 시민들은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s)를 강림한 신으로 착각하고 열렬히 환영하며 길을 열었다. 고작 600여 명의 병사, 말 16필, 총과 대포로 무장한 정복자가 무혈입성한 후 베라쿠르스에 도시를 건설하였다. 살아 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 태양신에게 초복방재를 구하던 미신적인 종교를 타파했다. 피로 물든 피라미드를 대포로 박살낸 후 그 위에 성당을 세웠다. 제사 후 인육을 먹으며 축제를 벌였던 제사장과 하수인들을 총살시켜 악의 축을 제거했다.

모든 문화권 가운데 이러한 유비가 있지는 않다. 구속사건의 그림자인지도 실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유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굉장한 기회이다. 문화적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선교지 문화를 연구하면서 구속적 유비에 해당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야 한다.

빠뜨로나또 선교정책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1492년)은 로마 가톨릭의 새로운 선교 부흥을 이루는 전기가 되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30년간 이어진 종교전쟁으로 가톨릭은 유럽에서 치명타를 입었다. 신대륙 발견과 선교는 유럽에서 잃은 교회와 신도보다 몇 배 더 많은 교회와 신도들을 얻게 됨으로써 가톨릭 선교의 황금시기를 300년 동안 누리게 된다.

신대륙에서 선교 황금기를 이룬 세 가지 요인이 흥미롭다. 첫째는, 교회관이 선교에 유리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교회관에서는 신대륙과 그곳 사람들이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그곳도 가톨릭 교회의 교구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었다. 발 빠르게 사제들을 보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둘째는, 수도원 제도였다. 수도원이 주요 선교사 자원의 풍성한 공급처가 되었다. 수도사들은 여러 면에서 적극적 선교 참여에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빈, 순결, 순종의 서약을 해야 했다.

청빈(淸貧) 서약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파송 명령이 하달되면, 자신이 입던 옷 몇 가지와 담요 한장을 꾸려서 언제든지 새로운 지역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순결(純潔) 서약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는 약속이다. 모험적인 헌신을 고려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은 가족들이다. 부양 가족이 없으므로 홀홀단신 하나님의 부름에 과감한 응답을 할 수 있었다. 순종(順從) 서약은 주님께,

로마 교회의 교권에 순명하므로 따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 로욜라(Ignatius Loyola)에 의해 설립된 제수이트(Jesuit, 예수회)는 군대 같은 조직과 명령 계통을 가지고 있어서 파송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셋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대륙 발견이었다. 이들은 당시 로마 교황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두 기둥이었다. 15세기 중엽에 해상세력을 장악하면서 사라센 세력권 밖까지 탐험을 하게 되었다. 탐험선에는 항상 사제나 수도사가 승선했고, 신대륙 발견 즉시 교황청에 보고한 후 선교사역의 포문을 열었다. 가톨릭의 신대륙 선교는 세속 정치 세력과 결합된 선교정책을 만들어냈다. 교황의 권위가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개념 때문에, 세상 모든 땅과 신대륙의 점유권도 당연시 하였다.

교황 니콜라스 5세는 1454년에 아프리카에 대한 독점 점유권을 포르투갈에 허락해 주었다. 교황 갈릭투스 3세는 포르투갈이 미래에 발견하게 될 새로운 신대륙 점유권까지도 허락해 주었다. 스페인 탐험과 각축을 벌이자, 분쟁을 막기 위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1493년 칙령을 내린다. 대서양의 아조레스 섬을 중심으로 북극에서 남극까지 선을 그어, 서쪽은 스페인 왕에게, 동쪽은 포르투갈 왕에게 독점권을 허락하였다. 이듬해 다시 서쪽으로 370해리 이동시킨 결과, 포르투갈인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1500년에 브라질을 발견하였고, 포르투갈령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점 점유한 신대륙에 반드시 국왕의 경비로 교회를 세우고 사제를 임명하여 선교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책임 서약이 빠뜨로나또(Patronato) 제도다.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신대륙 발견의 속도와 비례하여 신속한 선교를 이뤘지만, 후에 교회의 타락 및 정치세력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영적인 차원의 순수한 사명을 잃고 정치수단의 한 방법으로 전략, 피상적인 선교, 명목상 크리스천 양산, 기독교가 식민통치 국가의 등에 업혀 쉽게 선교를 이루지만 결과는 피상적인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사이코패스 아우까 인디오



1955년 가을, 5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우까(Auca) 인디오 족에 선교하려고 ‘아우까’ 계획을 수립했다. 아직 문명 세계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히바로(Jivaro) 인디오족과 아우까족은 남미 아메리 인디오들 중 가장 호전적인 종족이다. 사냥하듯 사람을 죽인 후 머리를 잘라 허리춤에 꿰차고 야만스러움을 도리어 자랑하는 잔혹한 무리다. 그들은 무서운 증오를 품고 있으나 애써 내색하지 않는다. 웃음을 띠고 나타나 상대방이 방어 본능을 해제하고 방심하면 갑자기 살인자로 돌변하는 사이코패스(Psycopathy) 기질을 갖고 있다. 함부로 침입한 외지인들은 사지를 토막내어 응징하므로 부족의 거룩한 성역을 지켰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에콰도르의 베테랑 선교사였던 데이브 쿠퍼(Dave Cooper)는 “스페인 정복자들, 카톨릭의 사제들, 장사꾼들, 석유 탐사자 수백 명이 아우까 인디오에게 희생당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1943년에는 셸 석유회사 탐사팀 여덟 명이 정글 치는 마썰때 칼과 독 묻힌 화살에 찔려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짐 엘리오프, 로저 유드리안,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네이트 세인트 등 다섯 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휘튼 대학, 미네아 폴리스에 있는 노스웨스트 대학을 나온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그런 야만적인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이 되겠는가?” 아우까 선교 전략(Operation Auca)을 수립한 짐 엘리오프와 네 선교사들은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아우까족 언어와 흡사한 퀴추아(Quichua)어와 스페인어를 배웠고, 여자 인

디오 다유마(Dayuma)로부터 아우까 언어를 배우며 정글의 삶과 말라리아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1955년 9월 10일, 리오 꾸라라이(Rio Curaray) 주변에 포진한 아우까 인디오 마을을 단발 비행기로 정탐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호감을 사고 싶어 선물 보따리에 칼, 철사, 성냥, 옷가지와 선교사 자신들의 사진을 담아 왕래가 잦은 길에 풀어놓았다. 얼마 후 그들은 답례품으로 앵무새, 땅콩, 불에 그을린 원숭이 꼬리를 이방인 출입자들에게 전달했다. 접촉을 시도한 지 3개월만에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나오자 뿔뿔이 기뻐한 짐 엘리오프와 동료들은 후원 선교기관인 항공선교회(MAF, Missionary Aviation Fellowship)조차 모르게 진입을 시도했다.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자, 탐험가, 상인, 석유 탐사자들이 무분별하게 몰려올까봐 극비에 부쳤던 것이다.

1956년 1월 3일 목요일, 보통 때라면 꾸라라이 강이 홍수기로 범람할 때였지만, 강변 모래사장에 단발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으리만치 바닥을 들어내 놓고 있었다. 금요일, 몇 명의 아우까 전사들이 사주경계를 하며 짐 엘리오프 일행이 있는 임시 막사를 방문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토요일에는 더 많은 인디오들이 떼로 몰려와 오랜 시간 선교사 주변에 머물면서 편안히 놀다 갔다. 처음 보는 비행기를 매만지며 올라타 보기도 하면서 신기해 했다. 6일 일요일 오후 1시경, 인디오들은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하여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렀다.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시체는 심하게 부패된 채 강물에 버려져 있었고, 몇몇 시신에는 창이 꽂혀 있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히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 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주 예수님처럼 꼭 찬 삶을 원합니다.”

짐 엘리오프의 에콰도르 아우까 인디오 구령을 위한 염원이 고즈넉히 들려오는 듯하다.

은혜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위클리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폐막된 제219차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교단지도자들은 10년 전보다 무려 13%, 40년 전보다는 46% 급감하고 있는 신도수, 교회수를 다루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는다고 했다. 하트포드 신학교 종교리서치 연구소가 발표한 2006년 말 현재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된 교인은 226만 명, 10년 전인 1996년 263만 명에 비하면 37만 명이 줄어들었다. 교회수로도 11,328개에서 10,903개로 425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 총회 사회자였던 조앤 그레이 목사는 “변화의 쓰나미가 덮쳤다. 우리는 벽에 부딪혔으며 새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그동안 견지해 온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석한 교단 내 지도자들은 총회 기간 내내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당면한 문제와 어떻게 하면 40년째 계속되는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문제를 타개할지를 놓고 집중 토론한 바 있다.

최근 교단을 탈퇴한 피츠버그 메모리얼파크 장로교회 딘 위버 목사는 “미 장로교단은 너무 관료적이고, 율법적이고, 중앙집권적이다.”라며 경직된 구조와 2001년 동성애자 안수 논란을 계기로 많은 교회가 교단을 떠난 게 교세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총회장 클립턴 커크패트릭 목사는 “우리는 부모 세대가 했던 기도를 놓치고 있다.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문을 열자.”고 호소하며 교단이 좀더 유연하고 극적인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열린 비교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타종교와

비교하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은 무엇일가에 대해 오랜 토론에 나섰다.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종교에도 있었다. 부활? 죽은 자가 환생했다는 기사 역시 타종교에 있었다. 여타 타종교에서 찾을 수 없고,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찾을 수 있었던 특성은 은혜였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 낫다. 도시빈민을 위해 집을 지어 주는 해비타트, 사랑 어린 인술로 병든 자를 돌보는 단체, 배고픈 자를 위해 실어 나르는 식탁 등은 굳이 교회나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아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이 은혜다.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필립 안시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밝힌다. 은혜(Charis). 그리스어로 까리스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은혜는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 거저 받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으시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된다.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맞아들이면 그뿐이다.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더 거룩한 것이 은혜라고 필립 안시는 말한다. 이 은혜를 얻고 싶어 비 은혜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교회를 찾는다. 정 없어서, 사랑 없는 까닭에,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진정한 이유다. 그러나 애써 용기를 내어 찾아간 교회에 은혜가 없고, 세상 비 은혜 집단에서 주고받았던 쓰라린 상처가 교인들을 통해 다시 들춰진다면 사람들은 은혜를 찾아 또 떠날 것이다.

이제 교회의 경쟁력은 은혜다. 은혜 가득한 교회를 찾기 위해 왕복 수백 마일 거리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은혜를 갈망하는 세대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아침 안개처럼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 위에 가득히 내려앉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교회다



1969년부터 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7개월간 복역했다. 감옥에서 회심하고 거듭난 크리스천이 된 그는 이후 교도소선교회(Prison Fellowship Ministries)를 세워 역동적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찰스 콜슨은 그의 저서 『이것이 참 교회다(The Body: Being Light In Darkness)』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의 성격?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성경적이면서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한다. 장로교와 카톨릭의 고전뿐만 아니라 프란시스 쉐퍼, 크리스토퍼 도슨, 칼 헨리, 헬무트 틸리케 같은 현대 신학자들을 연구했고, 교계 지도자, 목회자, 모든 교파의 평신도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초대형 교회에서부터 사형수들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까지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름으로 ‘참 교회다움’을 찾기 위해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각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그 전투에 소집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전투의 사령관 되시고, 성도는 거룩함으로 훈련받고 곤궁한 이 땅과 사람들에게 참

된 소망과 진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전령과 화해의 도구로 사용될 때 교회가 참 교회답고, 성도가 참 성도다워질 수 있다고 간파한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쳐진 세상 교회와 성도는 성경적인 교회 본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는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목재와 철골 구조물로 인식되곤 한다. 교회(ekklesia)가 하나의 건물, 곧 결혼식, 장례식을 거행하는 장소나 기분 내킬 때 들러서 영적인 사교장으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한다.

조지 갤럽은 “미 국민 절반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영적으로 헌신된 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성도 중 6-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갤럽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행동도 비교해 보았는데,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윤리적 견해나 행동상의 차이가 구별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선하는 습성에서도 신자라고 특별히 더 기부하지 않았고, 수입의 1.5%를 기부하는 것에 별반 차별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갤럽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할 때 “종교는 날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도덕은 날로 퇴보하고 있다.”고 결론지으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다시 본질적인 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그의 논문집에서 현대 미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신들이 목양하고 있는 교회를 평가한다면 어떨 것인가?” 답변자 중 0.5% 미만이 “예수님의 관심사를 온전하게 감당하여 칭찬받을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43%의 목회자들은 “그저 그렇다”, 절대 다수인 53%의 목회자 그룹은 “인간 영혼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뼈 아픈 자성을 표시했다.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현대 미국의 기독교는 개인적인 순종에 열중한

이것이 선교다



- 굿스폰의 거리 교회에서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저들에게 함께 영접기도를 인도하며 기도하는 모습.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노동 시장 한편에 무릎 꿇은 저들도 성도이며, 무릎 꿇은 곳은 예배당이다.

나머지 ‘예수와 나’의 관계만 중시하여 급진적 개인주의(radical individualism)”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적 의식 회복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네. 내가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그런 교회가 아닐세...”

신참 악마에게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Screwtape)가 참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지적하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한 대목은 두 고두고 곱씹을 만한 교훈이다.

15세기 초부터 로마 교황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두 기둥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다. 이 두 세력이 15세기 중엽부터 세계 해상 세력을 장악하면서 사라센 세계를 넘어 마침내 중남미까지 탐험하게 되었다. 이들이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교황청에 보고하였고, 교황청에서는 두 세력이 분쟁하지 않도록 대서양의 아조레스 섬을 중심으로 북극에서 남극까지 선을 그어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 왕에게 독점권을 허락하고, 동쪽은 포르투갈 왕에게 독점권을 허락하였다. 이 선이 그 이듬해에 다시 서쪽으로 370해리 이동하게 됨에 따라 1500년에 포르투갈인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하게 되고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의 점유권에 속하게 된다. 교황으로부터 독점권을 부여받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반드시 자신들의 경비로 교회를 세우고 사제를 임명하여 선교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의 신대륙 선교 전략을 ‘빠뜨로나또(Patronato)’라고 한다.

“일어나라, 가라, 가서 전하라(은 3:1).”는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성경지식을 바탕으로 지·정·의가 반듯하게 균형잡힌 신앙인으로 성장을 경험해야 한다. 겸하여 ‘복음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타문화권 선교지의 사람들의 육적 굶주림과 영적 황무함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할 때 비로소 복음의 반대란찌(개척자)가 되어 나가든지, 나간 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다.

보통 선교전략(Strategy)과 선교방법(Methods of Mission)을 혼용하여 사용하곤 한다. 엄밀히 구분한다면, 선교전략은 자원과 기회들을 활용하는 전

이것이 참 부흥이다



반적인 계획, 원리, 방안 등 좀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반면, 선교방법이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전술(tactics) 혹은 실천방안을 지칭한다. 존 네비우스(John L. Nevius)는 미국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1856년 중국 산둥지역에서 '토착교회 설립 전략'을 활용하여 중국 선교를 발전시켰다. 네비우스는 자신의 사역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토착교회 전략을 『선교지 교회의 개척과 발전(Planting and Development of Missionary Churches)』이라는 책에서 소개한다. 이런 네비우스의 토착화 선교전략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여 접한 후 1890년 안식년차 미국으로 향하던 네비우스를 한국에 초청하여 선교 전략을 벤치마킹한다. 언더우드는 1891년 한국적 상황에 적응시켜 아홉 가지 전략으로 삼고 한국 장로교 선교부의 선교전략으로 채택한다. 주요 원리로는 '각계 각층에 접근하여 전도하라, 자기 증식의 원리, 자치의 원리, 자급자족의 원리, 조직적인 성경공부, 성경에 근거한 엄격한 치리 시행,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경쟁심 중복에 있음을 알고 다른 선교사와 화목하고 협력하는 원칙'을 고수하게 했다. 네비우스의 전략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일깨우는 탁월한 전략이 되었고, 선교 백여 년만에 48,000여 교회가 생기고, 전체 인구 중 25% 이상이 회심한 교인이 되었으며, 전 세계 160여 나라에 1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개신교 선교전략을 다시 점검하여 새롭게 선교방법을 세워야 할 때다. 그것이 빠뜨로나또든, 네비우스식이든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선교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선교 사역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초이자 모판인 지역교회의 선교전략과 방법이 변화해야 한다.

지역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나 헌신을 철저하게 교육하여 반듯한 일꾼을 세워 교인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가든지 나가든지, 혹은 가기도 하고 지원도 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할 때다.

청교도와 부흥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안 머레이(Iain H. Murray)의 책 『부흥과 부흥주의(Revival and Revivalism)』는 하나님에 의한 참된 부흥과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부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미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참 부흥과 거짓 부흥을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 스토다드(Solomon Stoddard)는 “하나님이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소생시키시는 어떤 특별한 계절”을 부흥이라고 했다. 아벨 스티븐스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라고 정의했다.

부흥(Revival)이란, 하나님과 신앙에 무관심한 세대에서 복음 전도가 바탕이 되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것,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다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전체적인 기운이 급격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대각성(Awakening)이라고 한다.

평상시에도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있지만, 부흥과 대각성 시기에는 더 특별히, 더 비범한(Extraordinary) 역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와 나음을 입는 결과를 보게 된다.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나고, 삶은 변화한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고조되고, 기도와 성경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거룩과 경건, 행함이 있는 실천



-성탄절 예배 때 함께 예배하는 한인과 라티노들.
예수님도 천국에서 빙긋이 웃으시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과 기독교 진리 전파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버지니아(올드 도미니언)의 부흥은 드베렉스 자렛이 목회하던 화이트 오 크 교회에 1770-71년 광대한 성령의 부어 주심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칼빈주의적인 설교는 능력으로 가득찼다. 차지도 덤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거짓된 신앙을 격렬하게 지적했다. 잠자고 있는 죄인들의 양심을 각성시켰다.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항복할 때까지 설교는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셨다. 성경적 설교에 목말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생명력으로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다. 목은 땅 같은 마음은 강타당했다. 청중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나왔고, 어떤 이들은 절규하며 울부짖기도 했다. 경건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된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했다.

1773년부터 버지니아 남부 서식스, 브런즈윅, 아멜리아 카운티에서 시작된 복음 사역은 1775년, 1776년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리는 소낙비가 40일 이상 계속하여 쏟아졌다. 도박과 더러운 욕설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 쾌락을 깊게 사랑하던 자들, 거룩한 것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던 그곳 주민 위에 오순절 사건처럼 그들에게 임하자

죄인들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며 항복했고, 회심하기 시작했다.

그들 눈이 열려 자신들이 범한 죄악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웠던가를 보게 되었다. 회개하기 시작한 그들은 5-6시간 동안 비탄과 슬픔에 잠겨 하나님이 진동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휩싸인 자들은 새로운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들에게 더 이상 교파 간의 차별이나 흑과 백의 인종 차별은 없게 되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옥수수밭에서 일하고, 감격 속에 함께 찬송을 불렀고, 예배당에서는 자기 영혼에 평화를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곤 했다.

1776년 여름, 서식스 근방에서 1,600명이 회심하고 거듭났고, 브런즈윅 지역에서는 1,800여 명이, 아멜리아 지역에서는 800명이 회심하였다.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은 미국 최초의 위대한 감리교와 침례교회의 부흥의 시점이 되었다. 1773년 감리교 신자가 1,160명이었던 것이 10년 후인 1784년에는 1,400% 성장한 14,988명으로 증가하는 경이로운 증가를 경험을 하게 된다.

부흥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치 않고 사람이 고안하고 계획한 인본주의의 웃을 입을 때 그 부흥은 언제나 결만 그럴싸한 위조된 부흥이 되고 만다.

전능자와 나누는 영혼의 대화



기도(Prayer)는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하는 라틴어 precarious에서 나왔다. 전능자 아웨 하나님말고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을 뜻한다. 영어권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크리스챤티 투데이의 편집장인 필립 안시는 그의 저서 『기도』에서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 기도라고 정의한다. 그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혼란과 좌절감 속에서 허우적대는지 질문하며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기도와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명쾌한 대답을 선사한다.

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 행위가 존재한다. 문명을 등지고 사는 원시부족들, 라틴 아메리카 잉카, 아즈텍, 마야 부족들은 강건함, 식량 확보, 수확에 필요한 비, 자손 번성, 승전을 이루기 위해 구할 뿐만 아니라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심지어 산 사람조차 제물로 바치며 기도했다.

러시아에 공산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은 집 안에 레닌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레드 코너를 꾸며놓고 기도했다. 프라우다에 소개되었던 기도문이 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무능하게 생각되거든 스탈린을 생각하라, 헤쳐나갈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피로감이 몰려올 때 스탈린을 생각하라, 금방 말짱해질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싶다

면 스탈린을 생각하라,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이 기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google.com에 prayer를 타이핑 하면 주저하지 않고 7천 5백 10만 개의 관련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갤럽은 678명의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은 현재 기도생활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고작 23명만이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 응답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암에 걸렸을 때 기도해 주는 친구가 많으면 기도를 받지 못하는 환자보다 빨리 낫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가?

필립 안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 욕구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주셨는데, 이 갈망을 채울 방도가 기도다.”라고 강조한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성도의 특권으로 해야 한다.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듯이, 다정한 연인들이 사랑하며 속삭이듯이, 절친한 친구 사이에 격이 없는 대화처럼 하나님과도 영혼의 대화는 제한 없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각 사람의 머리털 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을 훈계하듯이 강조하고, 지원물품 요청서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는 강청, 폐쓰고 매달리면 귀찮아서도 들어 줄 것이라는 막가파식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으로 들어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깊어가는 가을 일상에서 떠나 전능자와의 살가운 기도를 회복해 보라. 살갓에 박힌 작은 상처, 심령 깊은 곳에 생긴 인פק션, 상처와 아픈 기억과 연약함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한아름으로 맞이하실 깊은 대화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휴가는 휴가답게 선교는 선교답게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 단일 민족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며, 단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익숙한 한인 선교사 12,000명이 160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에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다. 파송 선교사 수로 미국 다음으로 손꼽을 만큼 성장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역사는 세계 기독교회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낼 만한 성과라고 인정하면서도 피선교지의 거주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깊은 이해없이 공격 일변도의 전도로 빈축을 사는 일이 적지 않다. 한인 선교사들이 타문화권 선교지에 도착한 후에 본국에서처럼 유능하고 역동성 있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문화 차이, 선교지 언어 구사 부족, 현지 적응실패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뼈를 묻을 각오로 떠난 전문인 선교사들조차 선교지에서 평생에 극복해야 할 문제로 문화 차이, 선교지 언어습득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기 선교로 잠시 길 떠나는 헌신자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갖고 선교 현장을 방문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글로벌화된 시대에 외국에 단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텔레비전과 방송매체의 눈부신 발달로 타문화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실제적인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이 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선교는 엄숙함과 진지함과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 차이와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가슴으로 끌어 안으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돌아올 때 선교는 아름답다. 파송되기 전 준비과정은 피를 말리는 철저한 훈련과 연구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선교지의 문화와 겉으로 들어난 문화를 결정하는 가치관, 신조,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오랜 시간 선교문화 인류학(missionary anthropology)적 연구를 심도있게 이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선교지의 최신 선교정세와 언어 습득에 구슬땀을 흘리며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선교지의 언어를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기까지 언어 훈련은 필수다. 단기간에 언어 구사능력이 완성되지 않기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 성경의 문화를 선교사 자신의 문화로 잘 받아 익숙하게 활용한 후 수용자의 문화를 충분히 습득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후에도 선교의 주체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매 순간 기도하면서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뎀은 복음이 왜곡되거나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 선교사들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 있다. 단기선교가 교회의 연중 이벤트성 행사로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 여행과 선교적인 호기심을 적절히 배합한 듯한 모호한 자세도 옳지 않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교지의 영혼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선 동기부터 순수해야 한다. 선교사 후보생들이나 단기 선교 헌신자들은 급한 마음에 배낭부터 챙겨 서둘러 선교지로 직행해선 안 된다. 단기선교에 도랑 치고 가재도 잡는 듯한 모호한 목표는 제해져야 한다. 단기 선교일정에 유명 휴양지에서 보낼 휴가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시간과 선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순수한 선교 동기라고 할 수 없다. 휴가는 휴가답게 보낼 때 보람이 있고 선교는 선교다워야 선교다.

흔들리는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올라



천 년의 침묵처럼 어두움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무대 아래에 위치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사라 브라이트먼(Sarah Brightman)의 ‘노 조레스 뽀르 미 아르헨티나(No llores por mi Argentina,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말아요)’를 흐느끼듯 서곡을 연주한다. 이윽고 무대 한복판에 열은 조명이 클로즈업되면서 황금빛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금발 머리를 단아하게 뒤로 묶은 스페인 여 가수 팔로마 산 바실리오(Paloma San Basilio)가 무대에 선다.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체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중을 사로잡는다. 작은 체구에서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거룩한 악녀이자 천한 성녀 ‘에비타 에바 페론(Evita Eva Peron, 1919-1952)’을 그리듯 노래한다.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진실은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 모든 거친 나날 동안, 모든 나의 광기의 실존 동안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거리를 두지 마세요(no llores por mi Argentina mi alma esta contigo mi vida entera te la dedico mas no te alejes, te necesito).”

에바 페론의 꺼지지 않는 신화, 그의 불꽃 같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기초로 천재 작곡가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뮤지컬 ‘에비타’의 한 대목을 팔로마

바실리오가 열창할 때 그의 얼굴에 붉은 눈물 방울이 주르륵 흘러 내린다.

1919년 아르헨티나의 대초원(팜파스)의 시골마을 로스 톨도스(Los Toldos)에서 농장 주인과 요리사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나 미모를 무기로 ‘부와 명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던 소녀가 있었다. 가난에 찌들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5세 때 옷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한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굶은 일을 다 해야 했던 에바 두아르테. 배역을 따내기 위해 여러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1943년. 이탈리아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유럽의 파시즘에 매료되어 돌아온 청년 통일장교단 소속의 민족주의적 소장파 장교 후안 페론은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잡는다. 이때 페론과 에바의 극적인 밀회가 시작된다. 후안 페론이 육군대령을 거쳐 실권을 쥐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된다. 한때 후안 페론의 정부였던 에바가 꿈에도 그리던 뿌리메라 다마스(Primera Damas, 영부인)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불과 25세 때 일이다. 퍼스트 레이디가 된 에바는 남편 페론과 그가 주창한 페론주의(국가 사회주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정권 정복을 끊임없이 노리는 기득권 세력들과의 싸움에는 악녀처럼 투지를 불사르면서도 가난한 고아와 빈민들을 위해서는 성녀처럼 다가가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에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퍼스트레이디 중 하나 일 것이다. 척수 백혈병과 자궁암으로 죽은 것이 에바가 34세 되던 1952년이다. 쿠데타로 밀려난 후안 페론이 스페인으로 망명하자 에바의 시신 역시 머물 곳 없이 떠돌다 아르헨티나 레콜레타 공원묘지에 묻힌 것은 그가 요절한 지 24년 만이다. 에바의 무덤에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화하



- 지금은 무너진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 부모가 애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이다.

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올 때다. 무너져가는, 아니, 무너진 가정과 식구들을 위해 부모인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

그날 사상 최악의 학원 내 총기사고를 접한 한인 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졌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더 많이 대화하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오래 저들을 위해 무릎 꿇지 못한 게으름에 대해 스스로 문책하고 괴로움에 금식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한다. “미국은 끝이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곳, 유리천장 같은 세계 같아요.”라면서 살수록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위해,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다. 깊은 외로움에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부모된 우리가 돌봐 줄 때다.

|| 에필로그 ||

굿스폰 선교회의 지난 10년간의 선교와 앞으로 해야 할 선교 과제

배꼽 동맥처럼 복음의 유통자로 헌신하라

인체해부학에 의하면 인체에는 장장 12만Km에 해당하는 혈관(Vessel,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미줄처럼 배선되어 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3,000Km라고 한다면 사지육체와 오장 육부에 신선한 산소와 활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라인인 혈관의 길이는 참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 없다. 일평생 멈추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며 펌프질 하는 심장의 박동을 통해 매 46초마다 한 번씩 순환된다.

우리 인체에 배꼽 동맥(Umbilical Artery)이 있다. 배속에 흔적만 있고, 실제로는 피가 흐르지 않는 동맥이 배꼽 동맥이다. 양수로 가득 채워진 모체의 아기집에 갇 수정된 어린 생명이 기적처럼 어머니와 생명을 공유하는 생명선이 탯줄이다. 모체와 연결된 탯줄에는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이 있어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드디어 모태의 산문이 열리면 어린 생명은 산도를 통해 바깥세상으로 나갈 첫 시도를 한다. 해산의 수고 끝에 출생한 어린 생명이 세상에 나오면

이내 땀줄은 잘라지고 배꼽 동맥에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으면서 혈관은 퇴화되고 흔적만 남는다. 시내 광야의 물 없는 건건한 와디(Wadi)처럼...

교회와 성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배꼽 동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선을 통해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의 성장과 발육과 성숙을 위한 생명의 만나와 은혜와 복과 위로를 아낌없이 공급하신다. 뿐만 아니다. 영적 땀줄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 예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생명수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에게 주 예수는 특별한 사명, 곧 불신자를 향해 영적 땀줄을 드리워 그들에게도 주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하는 복음의 유통자, 주의 은혜와 복을 퍼트리는 유통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흔적만 있고 퇴화되어 아무짝에 쓸모 없는 배꼽 동맥처럼 흔적만 어슴프레 남아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계 복음화는 아직도 요원한가?

선교학자 에드워드 데이튼(Edward Dayton)은 세계 267개 나라에, 인구 70억 명 중 아직 41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모른 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극히 크고 위대한 지상명령을 언급하시면서(마 28:18-20)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화 하라고 명하신다. 이에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가 금식하여 기도한 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타문화 권 선교 사역에 순종하는 최초의 교회가 된다(행 13:1-2).

세계 복음화란 무엇인가?

세계 복음화란 본질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의 전파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모든 종족과 개인과 집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기회 주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주된 목적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세계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목표를 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부족, 종족, 언어권 안에 그 문화에 맞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세계 복음화를 장소적 개념(The Countries of the World), 지리적 영토인 국가로 세계를 보면 언어집단과 문화가 분리된다. World Factbook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267개 나라가 있고, 그중 중국 인구가 13억 명, 인디아가 11억 명, 남한이 5천만 명이다. 그에 반해 남태평양의 작은 섬 니웨(Niue)의 총 국민의 수는 1,876명에 불과하다. 세계 복음화를 장소적 개념, 국가라는 견지로 말하기가 어렵다.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종교의 견지에서 살펴보면 심각한 복음화 현황을 접할 수 있다. 복음적인 크리스찬,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성공회, 토착화된 기독교, 그리고 명목상 크리스천(nominal christian)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수치가 20억 명에 달한다. 아직 50억의 고귀한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할 전도대상자로 본다면 세계 복음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업이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무슬림-12억 명, 힌두교 8억 2천만 명, 세속종교(공산주의, 인본, 불가지론, 무신론) 9억 3,800명, 중국-민속종교(3억 8,300명), 불교-4억 명(일본, 태국, 티벳, 미얀마) 자연, 정령신앙-남태평양 1억 7,600만 명

세계 복음화를 시급히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주요한 과업

1. 명목상 크리스천을 복음화하라(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구체적 만남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여 알게 하라).
2. 종교적 탄압과 복음 전파에 적대시하지 않는, 직접 접촉할 수 있는 22억의 비그리스도인을 복음화하라.
3. 미전도지역(Unreached People)의 20억 영혼을 향해 복음화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라.

비 그리스도인(42억) 중 22억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문화권(추수 지역)에 산다. 나머지는 교회도 없고, 전하는 자나 기회도 없다(롬 10:14-15). 이렇게 중차대한 세계복음화의 과제를 안고서도, 현재 선교사의 10%이하만이 미전도 종족 20억을 향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며,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꾸준히 일하신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세상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시며 일하고 계신다.

세계 복음화는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수수께끼도 아니고, 오르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도 아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종족을, 한 부족을 복음화하는 것에 먼저 믿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기울여 순종하여 나간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할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음화는 신비롭다. 성령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신다(요 3:8).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집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전 3:6).

굿스폰 선교회의 앞으로 해야 할 선교 과제

1. evangelism E-1 : 같은 언어, 문화권 내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강력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2. evangelism E-2 : 유사성이 있는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언어 습득, 문화적 특성을 고려, 메시지를 상황화해야 한다. 교회는 그 문화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3. evangelism E-3 :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어렵지만 가장 시급하다. 언어 습득, 문화 충격 극복, 팀워크, 민감성, 인내, 시간, 기도가 필요하다

현재 중산층이 모이는 미국 교회는 아늑한 분위기, 편안한 의자에 앉아 불신자들이 회심하고 자신들과 합류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다. 도무지 E-2에 성의가 없다. E-3에는 아예 수수방관하듯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미국 교회를 급속히 닳아가는 미국 내 4천여 개의 한인 교회들에게, 메가처치의 환상을 버리고 작지만 선교 특성화를 이루는 교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선도하고 일깨우는 사역 또한 굿스폰의 주요 사역이야 한다.

감리교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요한 웨슬리,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의 윌리엄 부스가 영국 하층민 광부, 소외된 부랑자에게 구령의 열심을 갖고 전도하며, 그들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예배 공동체를 설립한 것처럼 미국 내 주요 대도시에 굿스폰의 지부들을 설립하여 도시선교과 요원의 불길처럼

럼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교학자 스티븐 호돈(Steven C. Hawthorne)은 고린도전서 3:6-7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명목상 크리스천이 회심한 후 믿음을 갖게 됨으로 개교회의 구조적 성장, 영적, 질적 성장, 회심 성장, 내적 성숙(Internal Growth)을 이루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주님은 교회가 갱신(renewal)하여 복음적 경험을 갖고, 전도 능력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선교의 모판인 지역 교회의 성장은 급속히 둔화될 것이다. 모달리티(지역교회)의 중보와 헌신적 참여와 후원에 사역 기반을 두고 있는 소달리티(선교단체) 굿스푼은 자립과 성장과 지속적인 사역에 인적, 경제적, 환경적 많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사역 위축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선교의 주체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은혜를 더하시면 굿스푼은 미 전역의 대도시에도 도시선교의 깃발을 드높이며 미국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1. 굿스푼은 미국 내 5천만 중남미 출신 명목상 크리스천인 라티노 선교에 사활을 걸 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구원에 이르게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도서국가 34개국에 자(子) 교회를 세우고, 그 문화권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다(라티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역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교-제자 훈련-신학훈련-자국으로 역 선교사 파송).
2. 가난한 도시빈민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도록 사역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서 American Dream을 이뤄보고자 물려온 1,300만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도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선교와 구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교회는 자신의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E-2, E-3 확산을 위해 모범적인 소달리티로 사역의 기반을 든든히 놓게 될 것이다(Need for E-2 Evangelism in the U.S.A).

3. 메가처치의 환상에 취해 사명도, 사역도 잃어버린 지역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울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선교에 대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지역교회를 일깨워 모달리티(지역 교회)와 소달리티(굿스푼을 포함한 비영리 선교단체)의 아름다운 협력 선교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교회들이 전도를 통해 회심자를 모으고 제자로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르치고, 선도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4. 점점 증가하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세워지는 거대 도시, 거점 도시선교(Urban Ministry)에 총체적 선교(Mission as Holistic Ministry)를 위해 역점을 두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국 내 주요 대도시, 거점도시에 스스로 증식하여 자(子) 교회를 만들 것이다(Boston, New York, Philadelphia, Richmond, Atlanta, Miami, Dallas, Saint Luis, L.A, Sanfrancisco, Chicago, Detroit 등).

2004년, 굿스푼을 세워 주신 하나님이 지난 10년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10년도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영혼 추수와 맡겨 주신 고귀한 영혼들을 위해 굿스푼의 사역은 계속 활성화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the Whole Church) / 불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 전파에 헌신하여 / 세계 267개국의 모든 나라와 열방에(the Whole World) /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은 50억의 고귀한 영혼들(the Whole People)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데 굿스푼이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굿스푼 선교회(About Good Spoon)

◆ 선교회의 시작 : 2004년 1월(만 9년째)

◆ 주소 : 4739 Valley St. Alexandria, VA 22312

◆ 주요지역 : 도시빈민선교(전인적, 총체적 지역)

1. 선교 지역 : Spanish로 진행되는 예배(제자훈련, 성경공부, 성경, 전도지 보급)
2. 사회복지지역 : 도시빈민을 위한 의·식·주 공급, 각종 질병 치유, 직업 소개 등.
3. 교육, 문화, 스포츠지역 : 영어+한국어 교육, 스포츠를 통한 양대 커뮤니티 간 교류

도시빈민 : latino+흑인+백인 홈리스

1. 라티노 도시빈민(워싱턴 수도권 지역 85만 명),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출신 불체자
 - Guatemala, Honduras, Elsalvador, Nicaragua, Mexico, Peru, Ecuador, Bolivia, Colombia, etc.
 - Coyote Mafia를 통해 밀입국(USD 6천 달러 부채)
 - 명목상 크리스천(국교 로만 가톨릭 지역 내 불신자)
2. Virginia+Maryland+Washington DC 지역
 - Mission field : 애난데일, 켈모, 알링턴, 알렉산드리아, 랭글리파크, 리버데일, 볼티모어
 - 빈민가, 인력시장(3D-어렵고, 위험, 더러운 일에 종사)
3. 가난, 문맹, 외로움, 술, 마약, 매춘, 폭력에 노출됨.
4. Mara Salvaturucha-13/MS-18 target.

사회복지 지역

1. 거리 급식 : 매년 38,000명 이상 무료 '밥퍼'지역
 - 거리 급식 : 월, 화, 수, 목, 금, 토(주 5일, 점심지역)
 - 거리 급식 : 1식 4찬, 음료수(밥, 고기, 샐러드)
2. 의·식·주 공급-
 - 의 : 중고 옷, 가구, 가전제품 공급
 - 식 : Food Bank(주식+부식+생필품 공급)
 - 주 : Brother's home 10명 거주(임시 숙소, 6개월 간 정착 준비기간 무료 거주, 화장실, 샤워룸, 이발)
3. 직업 교육, 직업 알선, 굿닥터 치료지역(굿닥터 : 한의사, 내과, 치과, 척추신경, 외과)

교육, 문화, 스포츠 지역

1. 교육 : ESL, 한국어 교육, 스페니쉬 문맹 교육(미국 내 최다 소수인종 라티노, 백인 다음, 5,300만)
2. 한인과 라티노의 교류는 서로에게 유익(1992. 4.29. L.A riots, 로드니킹, 백인 경찰 갈등, 한인타운 방화, 3억 5천만달러 손실)
3. 미국 내 라티노 영향력 급부상(정치적, 경제적)
4. 양대 커뮤니티 교류, 문화공연 주선
5. 한·라티노 친선 축구대회를 통한 교류
6. 청소년을 위한 After School(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지도)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자들

굿스폰은 매년 35,000-40,000명의 도시빈민들에게 '거리 급식'과 '진료 사역', '교육 문화 사업'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1. 고정적인 자원 봉사자 : 600여 명(남녀노소)
2. 일회성, 청소년 캠프 참여 봉사자 : 400명
3. 다양한 경험과 독특한 달란트(Talent)로 섬기는 봉사자

-지역교회에서 물려온 경건한 성도들, 87세의 월남 파월 사령관 부부, 이창순
· 원미경 부부, 김동성 쇼트트랙 우승자, 대사관 직원, 한인 의사들, 특허청,
IRS, NIH, NSA, 다양한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교수, 음악가, 미술가, 건축가
등)